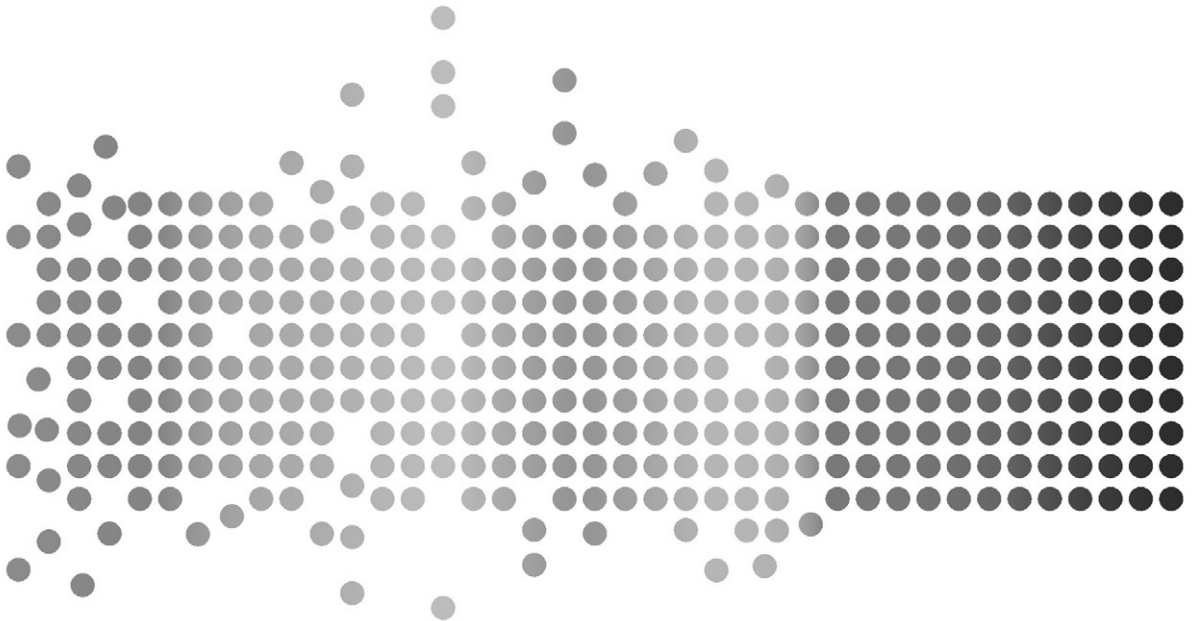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An analysis of the financial structure of Korean medical facilities

조재국 · 윤강재 · 천재영 · 이난희 · 이용균 · 김태현



연구보고서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발행일	2011년 12월
저자	조재국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	대명기획
가격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771-2 93510



머리말

최근의 세계 경제는 정치적 변동과 맞물려 급변하는 상황이며, 장기 간의 경기 침체는 투자의 축소 및 취업 기회의 악화로 이어져 사회취약 계층의 빈곤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확충의 필요성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급여의 지출 및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비 지출도 급증하고 있는 원인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및 의료서비스 수요 등 보건의료 분야의 여건 변화를 들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 중 정확한 요양기관별 환산지수의 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급여비를 수령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매년 적정한 환산지수에 대해 기관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경영수지에 대한 자료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환산지수 산출모형인 지수모형, SGR모형, 원가모형 중 특히 원가모형에서 자료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의료기관별 지출구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의료기관의 비용 측면, 구조적인 측면, 의료기관 구분별, 인력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출구조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수입 구조도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의 분석을 통해 적절한 또는 평균적인 수입구조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조재국 선임연구원의 책임 하에 윤강재 부연구위원, 천재영 연구원, 이난희 전문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연구진은

연구 진행과정에서 좋은 의견과 자료를 지원해주신 이상영 연구위원,
신현웅 연구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결과가 보건의료 여건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에 반영되어
기대되는 성과를 얻기를 희망하며,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
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요 약	1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의 내용	14
3. 연구추진 방법	16
제2장 의원의 지출 및 수입 현황	19
1. 의원 개원에 대한 투자와 부채	19
2. 경영분석	34
3. 의원 경영실태 및 개선방안의 인식	65
제3장 병원의 지출과 수입 현황	79
1. 의료기관의 종별 수익과 비용구조	79
2. 의료기관의 종별 경영지표 분석	82
3. 병원의 경영분석 결과	105
4. 미국 병원의 지출 및 수입 현황	109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5
1. 결론	115
2. 정책제언	120
참고문헌	122
부 록	127

표 목 차

〈표 2- 1〉 진료과목별 개원시 의료장비 등 기타 설비비용	26
〈표 2- 2〉 병상유무별, 성별 의원 창업비 규모	28
〈표 2- 3〉 봉직 경험 유무에 따른 개원부채 유무	30
〈표 2- 4〉 진료과목별 2008년도 매출액 현황	34
〈표 2- 5〉 진료과목별 2008년도 매출액 비교분석	35
〈표 2- 6〉 2008년도 매출액 현황 성별 비교	36
〈표 2- 7〉 2008년도 매출액 현황 연령별 비교	36
〈표 2- 8〉 개원기간별 2008년도 매출액 현황	37
〈표 2- 9〉 개원지역별 2008년도 매출액 현황	37
〈표 2-10〉 개원형태별 2008년도 매출액 현황	38
〈표 2-11〉 병상 및 봉직경험 유무별 2008년도 매출액 현황	38
〈표 2-12〉 진료과목별 2008년도 손익 현황	39
〈표 2-13〉 2008년도 손익 현황 성별 비교	40
〈표 2-14〉 개원기간별 2008년도 손익 현황	40
〈표 2-15〉 개원지역별 2008년도 손익 현황	41
〈표 2-16〉 개원형태별 2008년도 손익 현황	41
〈표 2-17〉 병상 및 봉직경험 유무별 2008년도 손익 현황	42
〈표 2-18〉 진료과목별 2008년도 원장당 순이익 현황	42
〈표 2-19〉 2008년도 원장당 순이익 현황 성별 비교	43
〈표 2-20〉 2008년도 원장당 순이익 현황 연령별 비교	44
〈표 2-21〉 개원형태별 2008년도 원장당 순이익 현황	44
〈표 2-22〉 의원의 특성에 따른 총매출과 총비용의 차이	46
〈표 2-23〉 의원의 특성에 따른 총매출/총비용과의 상관관계	48
〈표 2-24〉 의원의 총매출과 총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50

〈표 2-25〉 손익계산서 제출자 프로파일	51
〈표 2-26〉 2008회계연도 의원 평균손익계산서	52
〈표 2-27〉 진료과목별 2008회계연도 의원 손익현황	53
〈표 2-28〉 투자자 관점에서의 의원 경영성과(2008회계연도)	55
〈표 2-29〉 내과 의원 매출액 변동	57
〈표 2-30〉 내과의원 2008년도 순이익	59
〈표 2-31〉 외과 의원매출액 변동	59
〈표 2-32〉 외과의원 2008년도 순이익	60
〈표 2-33〉 산부인과 의원 매출액 변동	61
〈표 2-34〉 산부인과의원 2008년도 순이익	62
〈표 2-35〉 소아청소년과 의원 매출액 변동	62
〈표 2-36〉 소아청소년과의원 2008년도 순이익	63
〈표 2-37〉 가정의학과 의원 매출액 구성	64
〈표 2-38〉 가정의학과 의원 2008년도 순이익	64
〈표 2-39〉 확장할 진료영역	71
〈표 3- 1〉 연도별 병원 수 변동추이	79
〈표 3- 2〉 연도별 병상수 변동 추이	80
〈표 3- 3〉 병원유형별 병상가동률	81
〈표 3- 4〉 2009년 의료기관 유형별 청구금액과 백분율	81
〈표 3- 5〉 의료기관 종별 4대 진료비 비교	82
〈표 3- 6〉 전공의 수련병원 병상수	83
〈표 3- 7〉 분석대상의 특성별 소재지별 분포	84
〈표 3- 8〉 분석대상의 특성별 설립형태별 분포	85
〈표 3- 9〉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백병상당 약식 대차대조표(2009)	90

〈표 3-10〉 연도별 의료기관 규모별 백병상당 약식 대차대조표(2007~2009)	91
〈표 3-11〉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백병상당 요약 손익계산서(2009) ..	93
〈표 3-12〉 연도별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백병상당 요약 손익계산서 ..	94
〈표 3-13〉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성장성 지표	95
〈표 3-14〉 연도별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성장성 지표	95
〈표 3-15〉 병원의 성장성지표 평가기준치	96
〈표 3-16〉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활동성 지표	97
〈표 3-17〉 연도별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활동성 지표	97
〈표 3-18〉 활동성 지표 평가기준치	98
〈표 3-19〉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수익성 지표	99
〈표 3-20〉 수익성 지표 평가기준치	99
〈표 3-21〉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안전성 지표	100
〈표 3-22〉 연도별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안전성 지표	101
〈표 3-23〉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진료실적 지표	102
〈표 3-24〉 연도별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진료실적 지표	102
〈표 3-25〉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생산성 지표(2009)	103
〈표 3-26〉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인력 지표(2009)	104
〈표 3-27〉 연도별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인력 지표	104
〈표 3-28〉 병원설립 유형별, 의료기관 종별 의료이익률(2009) ..	105
〈표 3-29〉 병원설립 유형별, 의료기관 종별 병상당 의료수익과 비용 (2009)	105
〈표 3-30〉 병원소재지별 의료수익과 의료비용(2009)	106
〈표 3-31〉 의료기관 타산업과 의료이익률 비교표	106

〈표 3-32〉 병원과 타 산업의 기본재산 비율(2009)	107
〈표 3-33〉 소재지별 병원과 타 산업의 기본재산 비율(2009)	107
〈표 3-34〉 병원의 소재지별 의료수익 대 비용요소별 비율(2009)	107
〈표 3-35〉 의료기관 종별 주요비용 구성 비율(2009)	108
〈표 4-1〉 미국 병원의 인건비 및 관리비 비율: 2001-2009	110

그림 목차

[그림 2- 1] 개원시 보증금 규모	20
[그림 2- 2] 개원시 보증금 지역별 비교	21
[그림 2- 3] 개원시 소요된 인테리어 비용	22
[그림 2- 4] 개원시 소요된 인테리어 비용 지역별 비교	23
[그림 2- 5] 개원시 의료장비 등 기타비용	24
[그림 2- 6] 개원시 소요된 의료장비 구입비용 등 기타비용 지역별 비교 ..	24
[그림 2- 7] 진료과목별 총 개원비용 규모	27
[그림 2- 8] 총 개원비용의 지역별 비교	28
[그림 2- 9] 개원시 부채의 유무	29
[그림 2-10] 개원시 기록한 부채의 출처	31
[그림 2-11] 의원 운영 중 기록한 부채의 유무	31
[그림 2-12] 의원 운영부채의 규모	32
[그림 2-13] 개원기간별 의원 운영부채 규모	33
[그림 2-14] 진료과목별 의원 운영부채 규모	33
[그림 2-15] 진료과목별 2008년도 경영성과	56
[그림 2-16] 현재의 의원 수입에 대한 만족도	66

[그림 2-17] 의원 수입확대/비용절감 전략 채택(의향)유무	67
[그림 2-18] 수입 증대 방안	68
[그림 2-19] 의원 비용절약 방안	68
[그림 2-20] 의원의 향후 경영 전면에 대한 개원의의 견해	70
[그림 2-21] 진료영역확장 계획	71
[그림 2-22] 성공적인 개원의 중요 요소	72
[그림 2-23] 현재의 개원지역을 선택한 이유	73
[그림 4- 1] 미국 주요 의료인력별 연간임금 평균: 2000-2010	111
[그림 4- 2] 미국 병원의 수익성 지표(2001-2009)	112

요약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필요성

- 건강보험급여의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비 지출도 급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급증 이유는 노인인구의 증가, 고가약 처방 증가, 보장성 확대, 의료기관의 적정 수입 확보 노력 등의 여러 가지 보건의료 분야의 여건 변화와 맞물려 있음.
- 건강보험 수가 중 환산지수의 경우 매년 건보공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나 정확한 요양기관별 환산지수의 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대부분의 급여비를 수령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매년 적정한 환산지수에 대해 건보공단과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는 의견을 달리고 있음. 이와 같은 이유 중의 중요한 내용은 의료기관의 경영수지에 대한 자료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임.
 - 환산지수 산출모형인 지수모형, SGR모형, 원가모형 중 특히 원가모형에서 자료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받고 있음.
- 자료 구축을 위하여 의료기관별 지출구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지출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비용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하며, 의원 및 병원을 구분할 필요성도 있음.
 - 인력의 경우에도 의사, 간호사 등 대표적인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분석도 필요함.
- 지출구조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수입에 대한 구조도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지출구조 자체가 잘 못 되어 있다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적자를 모면하기 위한 잘 못된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예상됨. 따라서 병·의원의 현재 수입구조를 분석하여 적정한 또는 표준적인 수입구조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나. 연구의 목적

건강보험급여 지출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비 지출도 급증하고 있으며, 환산지수 산출모형인 지수모형, SGR모형, 원가모형 중 특히 원가모형에서 자료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받고 있음. 이와 같은 의료기관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출구조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수입에 대한 구조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의료기관의 현재 수입구조를 분석하여 보건의료분야 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정하거나 평균적인 지출 및 수입구조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다. 연구의 내용

- 의원의 개원 비용 및 의원 경영 수지 분석: 의사협회 자료(2010) 인용
- 수련병원(240여개)에 대한 3년간 경영수지 분석
- 외국 사례 분석: 미국 병원 경영 수지 분석

- 건강보험재정 절감 및 의료공급자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책대안 모색
 - － 개원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 수가체계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 제시

라. 연구방법

- 의료기관 경영 수지에 대한 국내외 문헌 고찰
-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자료 활용
- 전문가 회의
- 결과에 대한 워크숍 및 세미나 등 개최

2. 연구 결과

□ 의원의 개원 비용: 지역별, 전문과목별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임차보증금의 경우 평균 9,674.6만원이었으며 1억원~2억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30.2%로 가장 많았음.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평균 1억 2945.5만원이었으며 정형외과가 평균 2억 3625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불하였음. 의료장비 등 시설설비 투자비용은 평균 1억 9125.6만원이었으며 2억원 이상을 지불하였다는 응답자가 32.6%로 가장 많았음.
- 개원비용 전체를 살펴보면 재활의학과(평균 9억 400만원)와 정형외과(8억 8,088.2만원)가 가장 많이 지불하고 가정의학과(평균 2억 2,934.6만원)가 가장 적게 지불함.
- 개원비용 조달: 부채를 안고 개원한 의원이 68.4%였으며, 부채의

출처는 대부분 금융기관이었음(평균 4억 3천만원으로 월 평균 262만원의 이자 지급).

□ 의원의 경영 수지 분석(2008년): 지역별, 전문과목별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연간 평균 매출액은 4억 7,100만원 정도였으며 정형외과와 안과, 재활의학과 의원의 평균 매출액이 각각 7억 2,700만원과 7억 700만원, 6억 1,100만원으로 높고, 가정의학과(2억 8,900만원)와 이비인후과(3억 7,200만원)의 매출액이 비교적 낮았음.

○ 비용 및 손익 현황: 연간 평균 비용은 3억 600만원 정도였고 안과(5억 900만원), 정형외과(5억 100만원), 재활의학과(4억 500만원)가 지출 비용이 높았으며 가정의학과(1억 8,400만원)와 이비인후과(2억 3,700만원)가 낮았음.

— 순이익은 매출액과 비례하여 정형외과(2억 2,600만원), 재활의학과(2억 600만원), 안과(1억 9,800만원) 등이 순이익도 높은 편이었고, 마찬가지로 가정의학과(1억 400만원)와 이비인후과(1억 3,500만원) 등은 순이익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원장 당 순이익(단독 및 공동 개원 전체): 전체 평균 원장 당 순이익은 1억 4,100만원 정도이며 의원당 순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등의 경우 원장당 순이익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상당부분이 공동개원의 영향에 의한 것이며 산부인과의 경우 의원당 순이익은 186,129,216원이었지만 원장당 순이익은 131,841,528원으로서 전체 평균보다도 약간 낮은 편이었음.

□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향후 경영에 대하여 개원의들이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진료영역의 확장에 관심이 많음.

- 예를 들면 비만클리닉, 건강검진, 만성질환관리, 대체의학 시술, 건강기능식품판매 등의 순으로 확장 진료영역을 제시하고 있음.

□ 수련병원(240여개) 경영수지 분석

- 3개년(2007~2009년) 간의 의료수익은 2007년 이후 3년 동안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 2008년은 전년 대비 6.1% 증가하였으며, 2009년은 10.7% 증가하였고, 입원 및 외래 수익이 모두 증가하였음.
- 수련병원의 연도별 비용 변화 추이 역시 2007년 이후 3년 동안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8년은 전년 대비 16.0% 증가하였으며, 2009년은 7.8% 증가하였음.
 - － 의료비용 가운데 인건비 비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주요 인력별 3개년간 인건비 변동을 보면 의사(전문의, 레지던트)와 간호조무사의 인건비는 감소하였고, 간호사의 인건비는 증가하였음.
 - － 재료비 및 관리비는 2007년에 비해 2009년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심평원의 의료기관 유형별 2009년도 건강보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주요 4대 비용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진료행위료 46.3%, 기본진료료 22.1%, 약품비 21.8%, 재료대 9.8%로 나타났음.
 - －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품비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기본진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환자 중증도에 따른 약품비의 비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240개 수련병원의 2009년도 의료기관 종별로 2009년도 의료이익률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이익률이 흑자를 실현하고 있음.
 - 수익성은 상급종합과 병원급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익률이 양호한 이유는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본 분석대상병원이 수련병원으로서 경영실적이 양호한 병원군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 2009년도 병상당 의료수익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군의 경우 2.18억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종합병원급은 1.4억원, 병원급은 1.26억원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병원의 규모별 수익성의 차이는 단위 병상당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비례하여 병상당 비용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음.
 - 2009년 지역별 의료수익 및 비용을 비교해 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군읍면 지역의 순으로 병상당 의료수익 및 의료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 지역 병원의 진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09년도 수련병원의 의료수익 의료이익률은 2.9%로 국내 제조업 5.2%, 서비스업 4.0%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의 비용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 42.9%, 종합병원 43.8%, 병원급이 48.4%로 나타나 병원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병원의 비용요소 중에서 재료비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급 순으로 나타나 환자중증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병원의 관리비용은 병원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0년에서 2009년간 백병상당 인력지표를 살펴보면 의사직

은 20.1명→25.9, 약사직은 2.4명→3.1명, 의료기사직은 12.3명→17.8명, 행정관리직은 11.3명→14.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특히 간호직은 47.9명→67.5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이는 간호등급제 도입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되며 중소병원에서의 간호사 구직 노력과 반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야기하고 있음.

- 2007년에서 2009년간 직종별 1인당 평균 인건비를 살펴보면 전문의 9천 6백만원→1억 7백만원, 간호사 2천 5백만원→3천 1백만원, 약사 4천 1백만원→4천 2백만원로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간호사 인건비가 가장 많이 증가함.

□ 외국 사례 분석: 미국 병원 경영 수지 분석

- 미국 병원의 인건비 비율은 총 의료비용 대비 약 45%이며, 총 의료수익 대비로는 약 40%를 차지함. 최근 그 비중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병원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음. 일반관리비가 총 의료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로 지난 10여년간(2001-2009) 큰 변화가 없었음(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의 Hospital Cost Reports와 Thompson Benchmark 자료).
- 미국의 주요 의료인력별 연간 임금소득 자료에 따르면(미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0년 현재 외과 의사(Surgeons)의 평균 소득은 \$225,390, 일반내과 의사(General Internists)는 \$189,480, 가정의 또는 일반의(Family and General Practitioners)는 \$173,860임. 이는 전국적인 평균치이며 실제 의사가 근무하는 의원이나 병원의 규모, 설립형태, 지역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

- 약사의 경우는 \$109,380이며, 간호사는 그 뒤를 이어 \$67,720임.
- 의사군과 간호사의 임금격차가 지난 10여년간 다소 벌어졌는데 2000년 일반내과 의사의 연 평균 소득이 간호사의 2.65배였으나, 2010년에는 2.80배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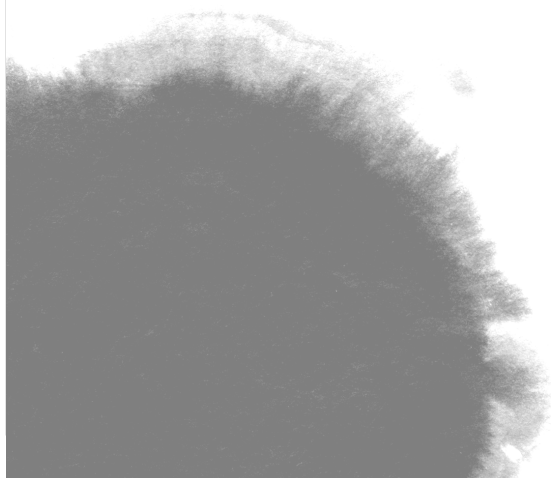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3. 정책 제언

- 의원의 경우 의원 스스로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 중 수입증대 방안으로는 진료영역 확대, 의원의 규모확대, 진료시간 연장 등이 있으며, 비용절감 방안으로는 관리비 축소, 인력 감축, 공동개원, 공동구매 등이 있음.
- 그 중 의원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 진료영역의 확대로서 이는 현행 전공의 교육체계와 전문과목의 구분에 정면으로 배치됨. 즉, 수련병원에서의 교육과 훈련이 개원의의 실제 진료분야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희박하다는 것임.
- 따라서 정책적인 관점에서 단골의사제도이든 만성질환 관리의사제도이든 일차의료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의원의 경영수지가 호전되면서 효율적인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 최근 의료계에서 반대하여 만성질환관리 의사제도가 원래 취지가 퇴색되기는 하였으나 일단 시작이 되었으므로 향후 점진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병원의 경영수지 분석결과는 병원의 종별, 설립주체별, 소재지별, 규모별 수익구조 및 비용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산정과정에서 의료기관 설립유형별(공공과 민간),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 종합, 병원)로 수익과 비용구조에 대한 분석접근법에 가중치가 달리 적용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병원 종별 환산지수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임.
- 분석대상인 수련병원은 경영상태도 호전되면서 병원인력 중 간호인력 비중이 급증하였고 인건비 수준도 급증하였음. 이는 간호등급제의 과실이 집중되는 현상으로서 중소병원에서의 간호사 구직난을 고려할 때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예: 간호조무사)의 인정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0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급여의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비 지출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급여비 지출이 급증하는 이유는 노인인구의 증가, 고가약 처방 증가, 보장성 확대, 의료기관의 적정 수입 확보 노력 등의 여러 가지 보건의료 분야의 여건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외래 진료비의 경우 2005년 의원의 경우 53.2%, 종합전문병원 10.8%, 종합병원 11.4%, 병원 5.8%에서 2009년 의원 48.4%, 종합전문병원 14.2%, 종합병원 13.2%, 병원 7.0%로 대형병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 중 환산지수의 경우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확한 요양기관별 환산지수의 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급여비를 수령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매년 적정한 환산지수에 대해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1년의 환산지수 계약의 경우 병원협회와는 체결했으나 의사협회와는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결과를 가져 온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의료기관의 경영수지에 대한 자료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환산지수 산출모

형인 지수모형, SGR모형, 원가모형 중 특히 원가모형에서 자료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의료기관별 지출구조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적정한(또는 표준적인) 지출구조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비용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적정 수준 또는 표준적인 시스템에 대한 분석, 의원과 병원의 구분,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대표적인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분석 또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지출구조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수입에 대한 구조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출구조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 잘못된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병·의원의 현재 수입구조를 분석하여 보건의료분야 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정하거나 표준적인 지출 및 수입구조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의 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현재 수급구조를 분석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논점을 위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의원의 개원 비용 분석

최근 의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원 비용이 대부분 2억원

에서 5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모든 진료과목을 조사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진료과목별로 개원 비용을 파악하고 표준적인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인력 및 장비구입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여기에는 의사소득, 신규 또는 중고 장비 구입 현황 등이 포함되었다.

나. 표준적인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병원에 대해서도 유형별로 개원 비용을 파악하고자 표준적인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다. 의원, 병원 등에 경영수지 자료 분석

이미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경영수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인력 및 시설·장비에 대한 현황, 의사 인력에 대한 자료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사협회, 병원협회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필요시 표본을 추출하였다.

라. 외국 사례 분석

외국사례로는 일본 등 외국의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수지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마. 건강보험재정 절감 및 의료공급자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책대안 모색

지출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제

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개원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및 수가체계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편, 다년도에 걸친 사업일 경우에는 연차별로 구성하되 당해연도 사업은 구체적으로, 전·후년도 사업은 개략적으로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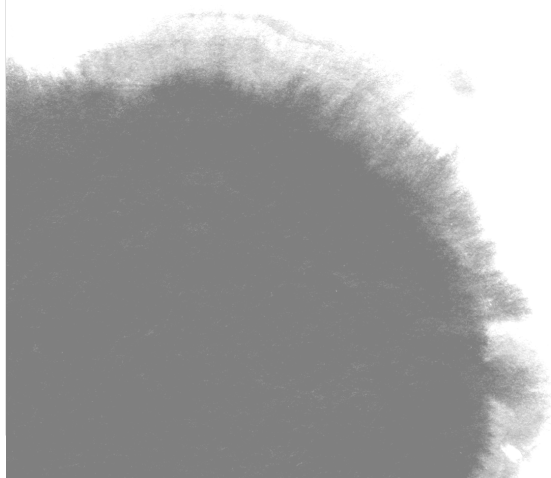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3. 연구추진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의료기관 경영 수지에 대한 국내외 문헌 고찰, 전문가 회의, 의료인 의견 수렴, 필요시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와 협동하여 표본조사 실시, 그리고 결과에 대한 워크숍 및 세미나 등 개최하여 의견 수렴 등이다.

02

의원의 지출 및 수입 현황



제2장 의원의 지출 및 수입 현황¹⁾

1. 의원 개원에 대한 투자와 부채

가. 개원에 따른 투자비용

진료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이나 기본적인 의료장비만을 구비하여 의원을 창업하더라도 적지 않은 자금이 소요된다. 이른바 ‘창업자금’이다. 개원기간의 5년 이하인 의원을 대상으로 창업시 소요된 자금의 규모에 대해 질문하였다. 하나의 의원을 개소하면서 소요되는 창업비는 3억 7331.2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의원의 건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자가건물에서 개원한 경우를 포함할 경우 평균 창업비는 5억 7024.4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원의 창업비는 진료과목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창업비 중 인테리어비용이나 의료장비 구입비용 등 총 창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에 대해 별도로 질문하였으며, 창업비 총액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1) 임차보증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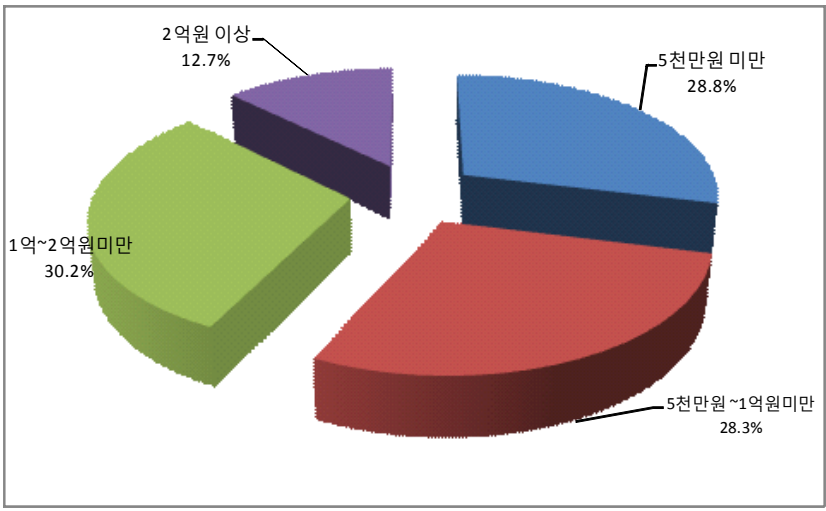
새로이 의원을 개소하는 경우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의원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정도에 따라 개원초기의 자금 유동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타인의 건물을

1) 본 장의 내용은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2010) 보고서 중에서 의원의 개원 및 경영에 관한 부분을 재인용 또는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임차하여 개원하는 경우 초기의 소요자금 계획을 수립할 때 임차보증금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임차 보증금이 비용은 아니지만 일단 적지 않은 현금의 지출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개원한지 5년 이하인 개원의에게 임차보증금의 규모에 대해 질문하였다. 개원시 평균 9,674.6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범주별로 구분해 보면 개원시 임차보증금 1억원~2억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30.2%로 가장 많았으며, 5천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는 28.8%로서 그 뒤를 이었다. 28.3%는 개원시 임차보증금으로 5천만원~1억원 미만을 지불하였으며,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12.7%로서 적지 않은 의원이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지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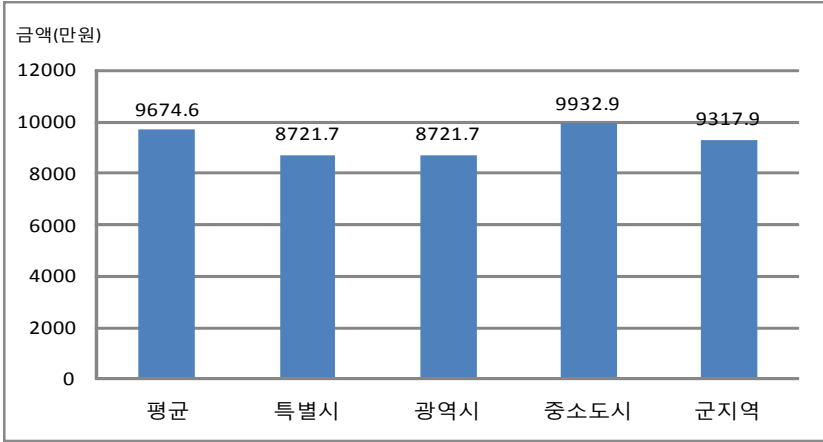
[그림 2-1] 개원시 보증금 규모



개원시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의 규모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단순히 대도시에 개원하는 의원의 임차보증금이 더 많은 것은 아니었다. 이는 개원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의원의 임차보증금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의원의 규모나 경쟁의 정도 등도 의원의 임차보증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개원한지 5년 이하인 개원의에게 개원시 지급된 임차보증금에 대해 질문한 결과 특별시가 1억 663.6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증금을 지불하였으며, 중소도시가 9,932.9만원, 군지역이 9,932.1.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광역시에 개원한 의원은 8721.7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불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적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

[그림 2-2] 개원시 보증금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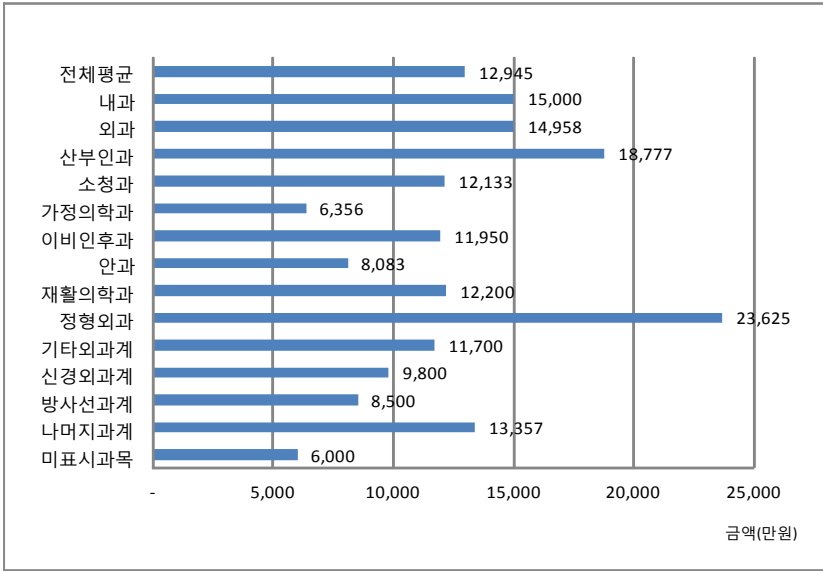
참고: 자가소유개원은 제외, 건물 임차 개원만 계산함.

2) 인테리어 비용

의원을 개원하면서 지출된 인테리어 비용은 평균 1억 2945.5만원이 었지만, 진료과목과 개원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의원이 평균 2억 3625만원의 초기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여, 다른 진료과목의 초기 인테리어 비용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정형외과 다음으로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지출된 진료과목은 평균 1억 8777만원을 지출한 산부인과이지만, 이는 정형외과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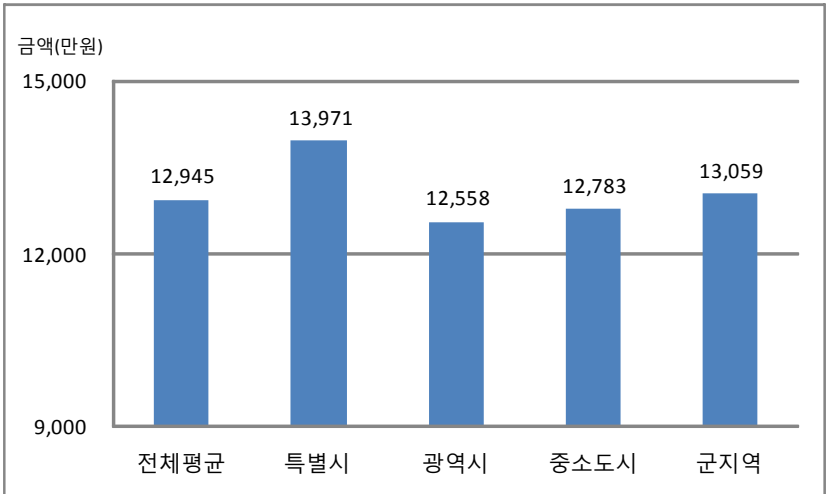
는 4,848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적게 소요된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로서 평균 6,356만원이었다. 가정의학과 외에도 안과(8,083만원), 방사선과계(8,500만원)와 신경외과계(9,800만원)가 초기 인테리어 비용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을 지출하였다.

[그림 2-3] 개원시 소요된 인테리어 비용



지역별로는 특별시에 개원한 의원이 초기에 가장 많은 금액을 인테리어를 위해 지출하였지만, 도시의 규모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의 차이는 없었다. 특별시에 개원하는 의원은 초기 인테리어 비용으로 평균 1억 3970.6만원을 지출한 반면, 광역시는 1억 2557.6만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중소도시와 군지역은 각각 평균 1억 2782.8만원과 1억 168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지역에 개원하는 의원이 광역시나 중소도시에 개원하는 의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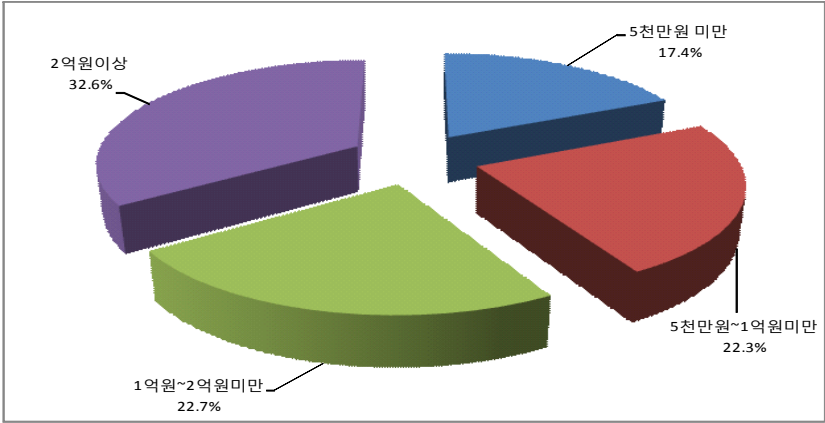
[그림 2-4] 개원시 소요된 인테리어 비용 지역별 비교



3) 의료장비 구비비용 등 기타 비용

의원 개원과 함께 정상적인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의료장비 등 최소한의 설비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의료장비나 환자진료를 위한 비품, 설비 등은 일반적으로 고가(高價)이다. 개원을 위해 의료장비 등의 구입비용으로 2억원 이상을 지불하였다는 응답자가 32.6%로 가장 많았으며, 5천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는 17.4%로 가장 적었다. 응답자의 27.7%는 개원시 1억원~2억원 미만의 의료장비 등 설비비용을 지급하였으며, 22.3%는 5천만원~1억원을 지불하였다. 의원 개업을 위해 의료장비 등 시설설비를 위해 지불한 금액은 평균 1억 9125.6만원이었다([그림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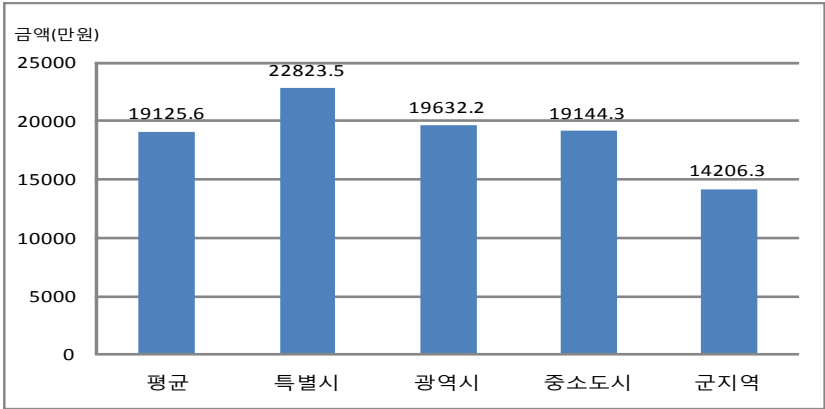
[그림 2-5] 개원시 의료장비 등 기타비용



참고: 평균 1억 9125.6만원

의료장비 등 의원 설비를 위해 개원초기 지불한 금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별시가 평균 2억 2,823.5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불하였으며, 광역시는 개원시 평균 1억 9,632.2만원, 그리고 중소도시는 평균 1억 9,144.3만원을 지불하였다. 군지역이 환자진료를 위해 필수적인 의료장비 등 설비구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평균 1억 4,206.3만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지출규모가 가장 적었다([그림 2-6]).

[그림 2-6] 개원시 소요된 의료장비 구입비용 등 기타비용 지역별 비교



진료과목별로는 기타방사선과계가 개원시 의료장비 등 의원 설비를 위한 비용으로 평균 3억 7,600만원을 지급하여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신경정신과계와 정형외과가 각각 평균 2억 4,200만원과 2억 2,764.7만원을 개원시 의료장비 등 설비를 위해 지불하여 기타방사선과의 뒤를 이었다. 재활의학과 안과, 산부인과, 그리고 기타 외과계 등 주로 외과계열이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개원시 의료장비 등 설비를 위해 많은 자금이 지불되었다. 비외과계열로서 개원시 평균 2억원 이상의 의료장비 등 설비비용으로 지불한 진료과목은 내과로서, 내과는 평균 2억 865.4만원을 개원시 의료장비 등 설비비용으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하면서 가장 적은 금액을 의료장비 등 설비비용으로 지불한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로서, 그 금액은 평균 7,473.9만원이었다(표 2-1).

〈표 2-1〉 진료과목별 개원시 의료장비 등 기타 설비비용

		사 례 수	개원시 의료장비 등 기타(만원)				평균
			~5000 미만	5000~ 10000미 만	10000~ 20000미 만	200000 상~	
			n(%)	n(%)	n(%)	n(%)	
전체		242	42	54	67	79	19125.6
진료 과목	내과	26	0 (0.0)	6 (23.1)	14 (53.8)	6 (23.1)	20865.4
	외과	12	2 (16.7)	0 (0.0)	3 (25.0)	7 (58.3)	19666.7
	산부인과	22	0 (0.0)	6 (27.3)	8 (36.4)	8 (36.4)	21181.8
	소아청소년과	23	7 (30.4)	10 (43.5)	4 (17.4)	2 (8.7)	7473.9
	가정의학과	26	7 (26.9)	9 (34.6)	7 (26.9)	3 (11.5)	11175.0
	이비인후과	18	2 (11.1)	4 (22.2)	5 (27.8)	7 (38.9)	19644.4
	안과	12	2 (16.7)	1 (8.3)	0 (0.0)	9 (75.0)	21500.0
	재활의학과	10	0 (0.0)	2 (20.0)	4 (40.0)	4 (40.0)	22300.0
	정형외과	17	3 (17.6)	0 (0.0)	5 (29.4)	9 (52.9)	22764.7
	기타외과계	31	5 (16.1)	4 (12.9)	4 (12.9)	18 (58.1)	20548.4
	기타신경외과 계	10	6 (60.0)	1 (10.0)	2 (20.0)	1 (10.0)	24200.0
	기타방사선과 계	5	0 (0.0)	1 (20.0)	2 (40.0)	2 (40.0)	37600.0
	기타 나머지과	14	2 (14.3)	6 (42.9)	4 (28.6)	2 (14.3)	17464.3
	미표시 과목	16	6 (37.5)	4 (25.0)	5 (31.3)	1 (6.3)	82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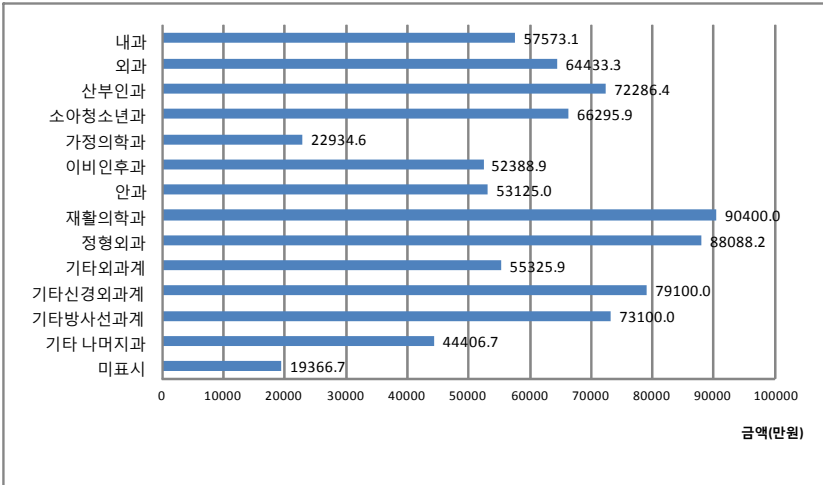
4) 개원 총 투자금액(의원 창업비)

하나의 의원을 개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진료과목이나 지역, 진료 면적, 입원실 유무, 시설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원형태도 개원 총 투자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단독개원 보다는 공동개원하는 경우 의원 창업비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많다.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의원을 창업하면서 소요된 총 금액에 대해 개원한지 5년 이하인 개원의에게 질문하였다.

개원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한 진료과목은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그리고 기타신경외과계로서 이들 진료과목으로 개원한 의원에서는 창업비로 각각 평균 9억 400만원과 8억 8,088.2만원, 그리고 7억 9,100만원을 지출하여 다른 진료과목의 창업비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기타방사선과계와 산부인과의원도 의원 창업비로 평균 7억 3,100만원과 7억 2,286.4만원을 지출하여 위의 3개 진료과목 의원과 함께 개원을 위해 7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원 개업을 위해 가장 적은 금액이 소요된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로서 평균 2억 2,934.6만원을 의원 창업비로 지출하였다([그림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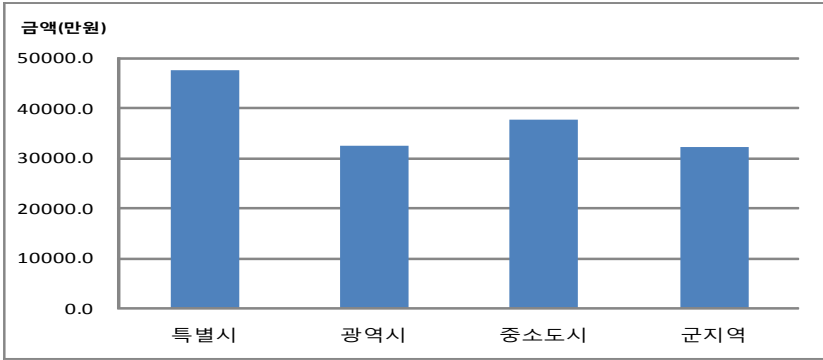
[그림 2-7] 진료과목별 총 개원비용 규모



지역별로는 특별시에 개원하는 의원이 평균 4억 7,512.1만원을 창업비로 지출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의원 개업을 위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소도시에 개원한 의원은 평균 3억

7,672.0만원을 창업비로 지출하여 특별시 다음으로 창업비가 많이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군지역은 의원 창업비로 각각 3억 2,541.3만원과 3억 2,203.6만원이 소요되었다([그림 2-8]).

[그림 2-8] 총 개원비용의 지역별 비교



병상이 있는 의원을 개원하는 경우 평균 11억 8,539.5만원의 창업비를 지출한 반면, 병상 없는 의원 개원시에는 평균 3억 3,419.8만원이 더 소요되어 병상의 유무에 따라 의원 창업비의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원 창업비의 규모는 원장의 성별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남성이 개원하는 경우 평균 5억 9,725.1만원의 창업비를 지출한 반면, 여성은 이보다 3억 3,830.4만원이 적은 2억 5,894.7만원을 의원 창업비로 지출한 것이다(표 2-2).

〈표 2-2〉 병상유무별, 성별 의원 창업비 규모

(단위: 개소, 만원)					
구분		사례수	평균창업비	최대	최소
병상	있음	66	118539.5	650000	14000
	없음	172	33419.8	364000	2000
성별	남성	219	59725.1	650000	2000
	여성	19	25894.7	115000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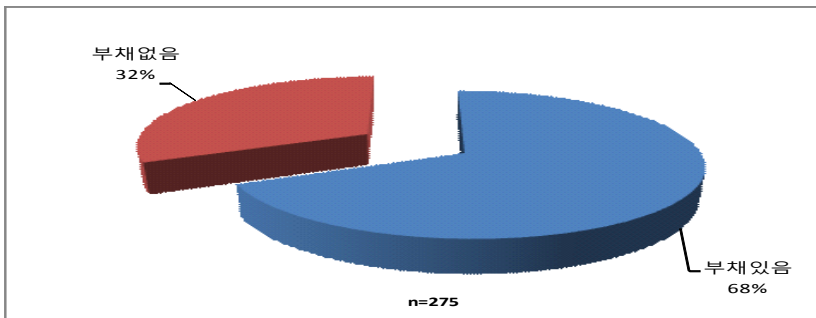
나. 개원에 따른 투자비용의 조달

의사 수 급증과 함께 개원의 수도 증가하면서 의원의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쟁력있는 개원을 위해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비하는 등 적지 않은 금액을 개원하는데 투자한다. 이로 인하여 장기 간의 봉직을 통해 개원자금을 마련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자기자본만으로는 개원한다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개원자금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개원자금 규모의 확대현상은 개원과 동시에 의원 재무제표(개시재무제표)에 부채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 현실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원시 기록한 부채는 의원 운영 중 그 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된다. 의원 부채의 규모에 따라 지불하는 이자비용의 규모도 달라지며, 이자비용의 지급은 현금유출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자비용의 규모에 따라서는 의원의 지불능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개원 부채의 유무

개원 5년 이하의 의원에게 개원자금의 일부(또는 전부)를 타인자본에 의존하면서 개원과 동시에 부채를 기록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개원자금의 일부(또는 전부)를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부채를 기록하는 의원이 68.4%였으며, 개원한지 5년 이하의 의원 중 31.6%는 개원부채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9] 개원시 부채의 유무



개원기간 5년 이하의 개원의 중 개원 전(前)에 다른 의료기관에 봉직한 경험이 없는 경우 개원부채가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봉직 경험이 있는 개원의보다 높았다. 봉직의 경험이 있는 개원의 중 개원시 부채를 기록한 비율은 65.1%인 반면, 봉직의 경험이 없는 의원이 개원시 부채를 기록한 비율은 이보다 14.3% 포인트가 더 많은 79.4%였다.

〈표 2-3〉 봉직 경험 유무에 따른 개원부채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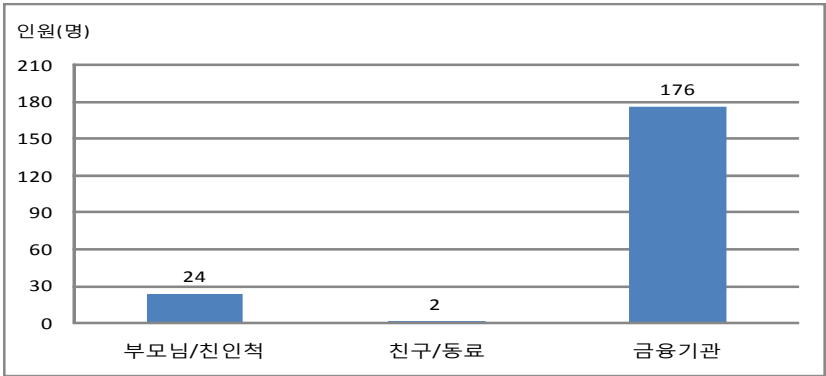
(단위: 개소)

봉직 경험 유무	사례수	개원부채 있음	개원부채 없음
봉직 경험 있음	212	138(65.1%)	74(34.9%)
봉직 경험 없음	63	50(79.4%)	13(20.6%)

2) 개원 부채의 출처

개원자금의 일부(또는 전부)를 타인자본에 의존하였다는 응답자 275명 중 그 출처를 밝힌 응답자는 179명이었다. 이중 일부는 2개소 이상에서 개원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원시 필요한 자금을 타인자본에 의존하는 경우 대부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만, 아직도 사전(私的)인 관계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부채의 출처를 밝힌 응답자 179명 중 176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개원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24명은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개원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친구나 동료로부터 개원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응답자는 2명이였다. 금융기관에서 개원자금을 조달한 경우 그 부채금액은 평균 4억 3천만원이며 이로 인해 월 평균 262만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는 개원자금으로 조달한 금액은 평균 1억 6천만원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의원당 월평균 62만원에 달하였다.

[그림 2-10] 개원시 기록한 부채의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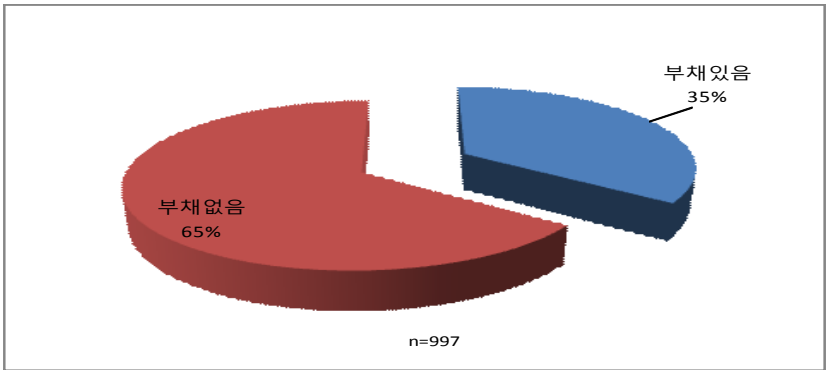


참고: n=179

다. 의원경영에 따른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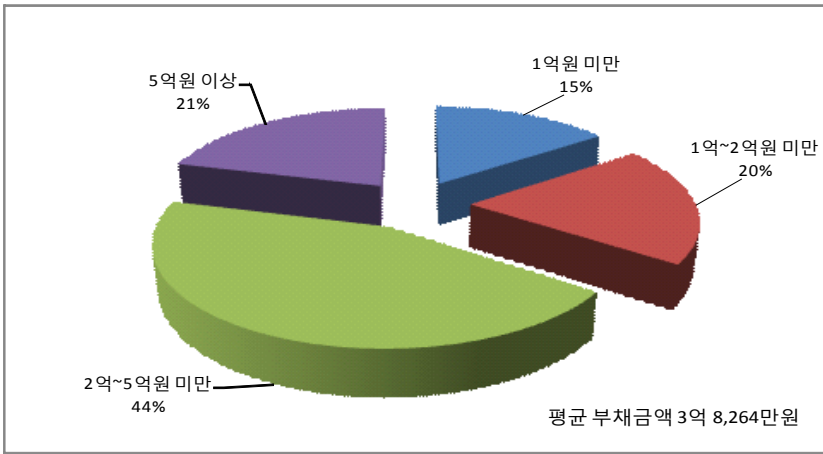
의원에서는 운영 중 자금이 부족하거나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자금을 차입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의원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부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4.9%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의원의 운영부채가 없다는 응답자는 65.1%로서, 부채 없는 의원을 운영한다는 응답자가 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응답자보다 30.2%p 많았다.

[그림 2-11] 의원 운영 중 기록한 부채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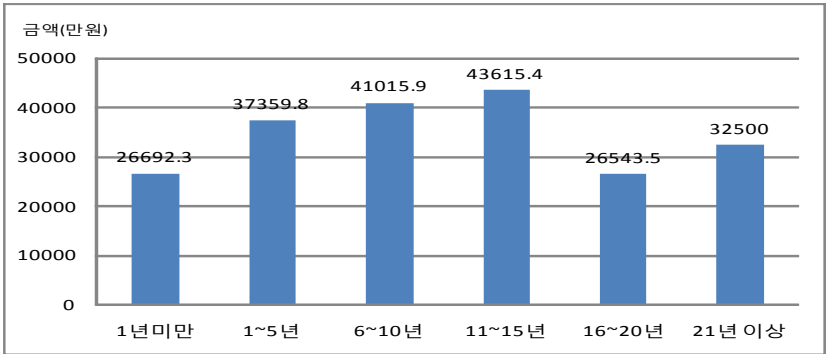
의원이 운영부채를 기록하고 있다면 그 금액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1억원 미만의 운영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비율은 응답자의 15.1%로 가장 적었으며, 5억원 이상의 운영부채를 기록하고 있다는 비율은 20.9%였다. 응답자 중 44.3%는 2억원~5억원 미만의 운영부채를 기록하고 있으며, 19.7%는 의원 운영부채로서 1억원~2억원 미만의 금액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12]).

[그림 2-12] 의원 운영부채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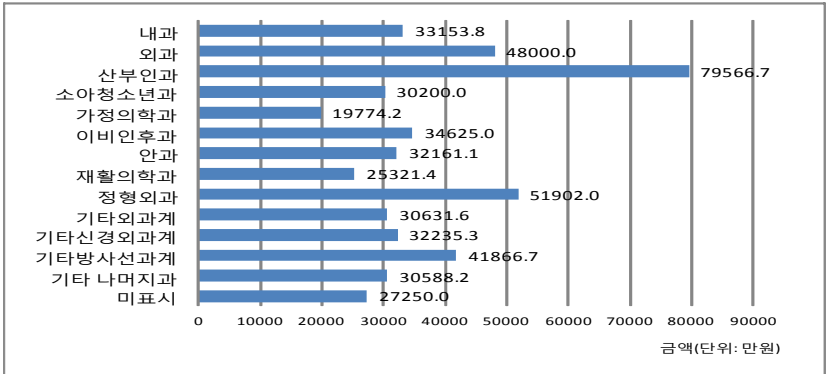
의원의 운영부채는 개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다가 개원기간 15년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1년부터는 다시 증가하였다. 개원한지 1년 미만인 의원의 평균 운영부채 2억 6,692.3만원은 개원기간이 길어지면서 증가하여 개원기간이 11~15년인 의원은 평균 4억 3,615.4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줄었다. 그리고 개원 21년 이상인 의원은 3억 2,500만원으로 운영부채금액이 다시 증가하였다([그림 2-13]).

[그림 2-13] 개원기간별 의원 운영부채 규모



의원 운영 중 기록한 부채 금액은 진료과목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많은 운영부채금액을 기록하고 있는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의원으로서, 산부인과 의원은 평균 7억 9,566.7만원의 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형외과(5억 1,902만원)와 기타방사선과계(4억 1,866.7만원), 그리고 외과(4억 8,000만원)가 그 뒤를 이어 일반적으로 외과계가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많은 운영부채를 기록하고 있었다. 가정의학과(1억 9,774.2만원)와 재활의학과(2억 5,321.4만원)는 의원 운영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그림 2-14]).

[그림 2-14] 진료과목별 의원 운영부채 규모



참고: n=325

2. 경영분석

전체 응답의원 1009개 중 682개 의원이 2008년도 수익, 비용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였다. 그 중 2개²⁾를 제외한 680개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과목별, 연령별, 개원기간별, 지역별, 개원형태별 경영현황을 살펴보았다.

가. 2008 회계연도의 경영 현황

1) 매출 현황³⁾

설문지에 기재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본 2008년의 진료과목별 의원 매출현황은 <표 2-4>와 같다.

<표 2-4> 진료과목별 2008년도 매출액 현황

(단위: 원)

진료과목	응답의원수	평균매출액	최대값	최소값
내과	87	432,031,839	1,500,000,000	60,000,000
외과	58	469,696,897	2,400,000,000	50,000,000
산부인과	51	573,990,196	5,403,530,000	40,000,000
소아청소년과	58	446,987,586	2,800,000,000	84,000,000
가정의학과	52	288,765,000	930,000,000	50,000,000
이비인후과	53	371,872,075	1,200,000,000	32,700,000
안과	38	706,759,474	4,000,000,000	80,000,000
재활의학과	19	611,315,789	1,500,000,000	150,000,000
정형외과	45	727,540,667	1,500,000,000	70,000,000
기타외과계	89	462,576,966	2,725,000,000	55,000,000
기타신경정신과계	25	385,219,200	1,550,000,000	80,000,000
기타방사선과계	21	546,155,238	1,500,000,000	150,000,000
나머지과	39	471,369,744	1,500,000,000	50,000,000
과목미표시	45	305,576,667	1,500,000,000	46,000,000
전체	680	471,128,853	5,403,530,000	32,700,000

- 2) 1개는 서울소재 산부인과 의원으로서 연간 매출이 120억원에 달했고, 1곳은 지방도시 소재 내과의원으로 매출이 1천4백만원에 불과하여 경영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3) 설문지에서는 의원의 매출액과 비용을 범주화하여 질문하였다. 범주화된 매출액을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정형외과와 안과, 재활의학과 의원의 평균 매출액이 각각 727,540,667원과 706,759,474원, 611,315,789원으로 다른 진료과목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가정의학과(288,765,000)와 이비인후과(371,872,075)의 매출액이 비교적 낮았다. 산부인과의 경우도 매출액이 573,990,196원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동개원 형태의 대형의원이 조사에 상당수 포함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설문지에 기재된 의원의 매출액에 대한 급여비율을 적용하여 건강보험 매출액(급여매출액 추정액)을 산출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비(건강보험+의료급여)와 비교하였다. <표 2-5>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설문지에 근거하여 추정한 건강보험매출액과 심평원의 급여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그 집계방식과 상이한 표본의 범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2-5〉 진료과목별 2008년도 매출액 비교분석

(단위: 원)

진료과목	평균매출액(A)	급여매출액 비율(B)	급여매출액 추정액(A*(B))	심평원집계액
내과	432,031,839	89.9	388,494,705	403,683,885
외과	469,696,897	85.2	400,030,971	354,955,623
산부인과	573,990,196	89.3	512,366,079	256,894,671
소아청소년과	446,987,586	82.2	367,643,151	263,176,918
가정의학과	288,765,000	93.7	270,649,667	223,638,335
이비인후과	371,872,075	97.1	361,263,948	363,522,080
안과	706,759,474	95.2	673,141,463	539,316,770
재활의학과	611,315,789	97.7	597,151,636	421,765,926
정형외과	727,540,667	71.4	519,667,064	592,424,1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원 매출관련 자료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매출액이므로,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한 진료과목별 매출액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체 매출액 중 급여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제표를 첨부한 의원의 손익계산서 자료를 통해 급여매출액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적용하여 진료과목별 급여매출액을 추정하였다. 이비인후과의원의 경우 설문을 통해 추정된 급여매출액이 361,263,948원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인 363,522,080원과 비슷하였으나, 산부인과 의원 등의 경우 응답의원 중 대형의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 등으로 통계치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2-6〉 2008년도 매출액 현황 성별 비교

(단위: 원)				
성별	응답의원수	평균매출액	최대값	최소값
남성	611	484,539,182	5,403,530,000	32,700,000
여성	69	352,379,420	1,400,000,000	60,000,000

성별로는 원장이 남성인 의원의 평균 매출액은 약 4억 8천만원이었으며, 여성인 의원의 평균 매출액은 약 3억 5천만원이었다. 여성이 원장으로 있는 의원의 매출 규모는 남성이 원장인 의원의 평균 매출액보다 1억 3천만원이 적었으며, 여성이 원장인 의원의 매출액은 전체 평균인 471,128,853원보다도 1억 2천여만원이 적었다(표 2-6 참조).

〈표 2-7〉 2008년도 매출액 현황 연령별 비교

진료과목	응답의원수	평균 매출액	최대값	최소값
40세 미만	70	484,352,857	1,500,000,000	32,700,000
40~49	337	509,832,255	3,500,000,000	45,970,000
50~59	189	505,666,296	5,403,530,000	50,000,000
60~69	57	231,097,193	845,470,000	50,000,000
70세 이상	26	217,537,692	1,153,820,000	40,000,000

연령별로는 40대까지 평균 매출액이 상승하다가 60대 이후로는 급격

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0세 미만에서 484,362,857원이던 평균 매출액이 40대에는 509,832,255원까지 올랐다가, 60대 이후로는 2억원대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표 2-7).

〈표 2-8〉 개원기간별 2008년도 매출액 현황

(단위: 원)				
개원기간	응답의원수	평균매출액	최대값	최소값
1년미만	7	245,174,286	420,000,000	70,000,000
1~5년	199	499,121,256	3,500,000,000	32,700,000
6~10년	222	513,427,568	5,403,530,000	50,000,000
11~15년	111	462,180,901	3,800,000,000	65,000,000
16~20년	72	405,734,167	1,490,000,000	50,000,000
21년 이상	69	359,806,232	4,000,000,000	40,000,000

개원기간별 매출액 현황도 연령별 현황과 비슷한 양태를 보였다. 개원 이후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여 개원기간 6~10년 사이에 평균 매출액이 513,427,568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점차 낮아져서 21년 이상의 의원의 평균 매출액은 359,806,232원으로 개원초기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표 2-9〉 개원지역별 2008년도 매출액 현황

(단위: 원)				
개원지역	응답의원수	평균매출액	최대값	최소값
서울	111	451,536,667	1,740,000,000	32,700,000
광역시	202	441,269,109	5,403,530,000	40,000,000
중소도시	278	500,667,842	4,000,000,000	46,000,000
군 지역	89	471,067,753	1,800,000,000	45,970,000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소재 의원의 평균 매출액이 500,667,842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지역은 451,536,667원 그리고 광역시 소재 의원은 441,269,109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평균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표 2-10〉 개원형태별 2008년도 매출액 현황

(단위: 원)

개원형태	응답의원수	평균매출액	최대값	최소값
단독개원	538	354,089,368	1,490,000,000	32,700,000
단독개원+고용의	49	668,176,735	1,669,910,000	90,000,000
공동개원	63	803,148,413	2,400,000,000	200,000,000
공동개원+고용의	30	1,550,951,000	5,403,530,000	280,000,000

개원형태별로는 봉직의 없는 순수 ‘단독개원’의 평균 매출액이 354,089,368원으로서 가장 낮았다. 원장의사가 1인인 단독개원이지만 고용의를 채용하고 있는 의원(단독개원+고용의)은 평균 668,176,735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다수의 의사가 공동 출자하여 개원한 ‘공동개원’의원의 평균 매출액은 803,148,413원이었다. 공동개원이며 고용의까지 채용하고 있는 의원(공동개원+고용의)의 평균 매출액은 1,550,951,000원에 달하였다(표 2-10).

〈표 2-11〉 병상 및 봉직경험 유무별 2008년도 매출액 현황

(단위: 원)

특징		응답의원수	평균매출액	최대값	최소값
병상	있음	170	711,770,588	5,403,530,000	32,700,000
	없음	510	390,914,941	4,000,000,000	50,000,000
봉직경험	있음	522	483,040,651	5,403,530,000	32,700,000
	없음	128	532,971,875	1,740,000,000	50,000,000

병상 유무 및 봉직경험 유무별로 살펴본 평균 매출액은 <표 2-11>과 같다.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이 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의원보다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의 평균 매출액은 711,770,588원으로서 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의원의 390,914,941원 보다 3억 2천여만원의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의원의 매출액은 봉직경험이 없는 원장의 의원이 봉직경험이 있는 원장의 의원보다 많았다.

봉직경험이 있는 의원의 평균 매출액은 483,040,651원으로서 봉직경험이 있는 의원의 532,971,875원 보다도 적다.

2) 비용 및 손익 현황

설문지에 기재한 의원의 비용 및 매출을 기준으로 의원의 손익을 산출하였다. 응답한 680개 의원의 손익현황은 아래의 <표 2-12>와 같다.

<표 2-12> 진료과목별 2008년도 손익 현황

(단위: 원)

진료과목	응답의원수	매출	비용	순이익
내과	87	432,031,839	284,149,770	147,882,069
외과	58	469,696,897	301,231,897	168,465,000
산부인과	51	573,990,196	387,860,980	186,129,216
소아청소년과	58	446,987,586	283,416,724	163,570,862
가정의학과	52	288,765,000	184,410,000	104,335,000
이비인후과	53	371,872,075	237,228,868	134,863,208
안과	38	706,759,474	508,887,632	197,871,842
재활의학과	19	611,315,789	405,000,000	206,491,556
정형외과	45	727,540,667	501,049,111	226,491,556
기타외과계	89	462,576,966	274,999,663	187,577,303
기타신경정신과계	25	385,219,200	259,230,000	125,989,200
기타방사선과계	21	546,155,238	314,066,667	232,088,571
나머지과	39	471,396,744	284,954,872	186,414,872
과목미표시	45	305,576,667	201,408,000	104,168,667
전체	680	471,128,853	305,691,191	165,437,662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안과 등이 순이익도 높은 편이었고, 마찬가지로 가정의학과와 이비인후과 등은 매출액과 순이익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의 경우는 공동개원에 의한 대형의원들의 영향으로 의원당 순이익이 186,129,216원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2-13〉 2008년도 손익 현황 성별 비교

(단위: 원)

성별	응답의원수	매출	비용	순이익
남성	611	484,539,182	314,752,799	169,786,383
여성	69	352,379,420	225,450,000	126,929,420
전체	680	471,128,853	305,691,191	165,437,662

연령별 순이익도 매출액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50대까지 평균 순이익이 상승하다가 60대 이후로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즉 40세 미만에서 164,161,571원이던 평균 순이익이 50대에는 180,999,206원까지 올랐다가, 60대 이후로는 1억원 미만으로 급격히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2-13).

〈표 2-14〉 개원기간별 2008년도 손익 현황

(단위: 원)

개원기간	응답의원수	매출	비용	순이익
1년 미만	7	245,714,286	110,428,571	135,285,714
1~5년	199	499,121,256	342,150,050	156,971,206
6~10년	222	513,427,568	323,353,288	190,074,279
11~15년	111	462,180,901	290,092,162	172,088,739
16~20년	72	405,734,167	293,512,639	112,221,528
21년 이상	69	359,806,232	201,327,246	158,478,986

개원기간별 순이익 현황도 매출액과 비슷한 양태를 보였다. 개원 이후 순이익이 점차 증가하여 개원기간 6~10년의 평균 순이익은 190,074,279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축소되고 있다. 다만 21년 이상 의원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16~20년 의원에 비해 작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발생이 적어서 순이익은 오히려 더 크게 조사되었다(표 2-14).

〈표 2-15〉 개원지역별 2008년도 손익 현황

(단위: 원)				
개원지역	응답의원수	매출	비용	순이익
서울	111	451,536,667	315,409,820	136,126,847
광역시	202	441,269,109	279,931,832	161,337,277
중소도시	278	500,667,842	320,300,360	180,367,482
군 지역	89	471,067,753	306,402,135	164,665,618

비교적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중소도시 소재 의원이 순이익은 180,367,482원으로 가장 높았다.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서울지역은 높은 운영비용으로 인하여 가장 낮은 순이익을 기록하였다. 서울지역 의원의 평균 순이익은 136,126,847원에 불과하다. 군지역 소재 의원의 경우 순이익이 164,665,618원으로 전체 평균 165,437,662원과 비슷하다(표 2-15).

〈표 2-16〉 개원형태별 2008년도 손익 현황

개원형태	응답의원수	매출	비용	순이익
단독개원	538	354,089,368	222,564,926	131,524,442
단독개원+고용의	49	668,176,735	547,618,571	120,558,163
공동개원	63	803,148,413	511,853,492	291,294,921
공동개원+고용의	30	1,550,951,000	968,333,333	582,617,667

개원형태별로 의원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단독개원+고용의’ 형태의 의원이 가장 낮은 순이익을 기록하였으며(순이익 120,558,163원), 순수 ‘단독개원’의원의 평균 순이익은 131,524,442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의원당 순이익을 기록한 개원형태는 ‘공동개원+고용의’형태로서 평균 582,617,667원을 기록하였다.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지만 고용의는 없는 형태인 ‘공동개원’의원의 평균 순이익은 291,294,921원으로서 단독개원 의원보다는 높은 순이익을 기록하였지만, ‘공동개원+고용의’형태의 의원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표 2-16).

〈표 2-17〉 병상 및 봉직경험 유무별 2008년도 손익 현황

		(단위: 원)			
특징		응답의원수	평균매출액	비용	순이익
병상	있음	170	711,770,588	499,646,000	212,124,588
	없음	510	390,914,941	241,039,588	149,875,353
봉직경험	있음	522	483,040,651	313,612,050	169,428,602
	없음	128	532,971,875	345,035,313	187,936,563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의 평균 순이익은 212,124,588원으로, 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의원의 평균 순이익 149,875,353원에 비해 높았다. 봉직경험별로는 개원전 봉직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의원의 187,936,563원보다 오히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7).

3) 원장 당 순이익

여전히 단독개원이 가장 많은 개원형태이지만 의료기관간 경쟁의 심화 등 의원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2인 이상이 투자하여 개원하는 공동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원의 경영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료과목간의 의원 운영 성과에 대한 비교를 위해서는 원장당(=투자자당) 순이익의 산출이 필요하다. 설문지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원장당 순이익을 산출하였다(표 2-18).

〈표 2-18〉 진료과목별 2008년도 원장당 순이익 현황

(단위: 원)				
진료과목	응답의원수	의원당 순이익	원장당 순이익	평균 원장수
내과	87	147,882,069	131,283,061	1.13
외과	58	168,465,000	141,608,261	1.19
산부인과	51	186,129,216	131,841,528	1.41
소아청소년과	58	163,570,862	123,209,221	1.33
가정의학과	52	104,355,000	100,490,000	1.04
이비인후과	53	134,863,208	123,237,069	1.09

진료과목	응답의원수	의원당 순이익	원장당 순이익	평균 원장수
안과	39	197,871,842	167,091,778	1.18
재활의학과	19	206,315,789	170,434,783	1.21
정형외과	45	226,491,556	203,842,400	1.11
기타외과계	89	187,577,303	163,670,392	1.15
기타신경정신과계	25	125,989,200	121,143,462	1.04
기타방사선과계	21	232,088,571	157,221,290	1.48
나머지과	39	186,414,872	151,462,083	1.23
과목미표시	45	104,168,667	99,735,957	1.04
전체	680	165,437,662	140,622,013	1.18

의원당 순이익이 다른 진료과목 의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던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등의 경우 원장당 순이익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부분이 공동개원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부인과의 경우 의원당 순이익은 186,129,216원이었지만 원장당 순이익은 131,841,528원으로서 전체 평균 원장당 순이익 140,622,013원 보다도 약간 낮은 편이었다(표 2-18).

〈표 2-19〉 2008년도 원장당 순이익 현황 성별 비교

(단위: 원)				
성별	응답의원수	의원당 순이익	원장당 순이익	평균 원장수
남성	611	169,786,383	143,683,490	1.18
여성	69	126,929,420	112,283,718	1.13

원장이 남성인 의원의 평균 원장당 순이익이 143,683,490원으로서, 여성이 원자인 의원의 평균 순이익 112,283,718원 보다는 높았다. 그 격차는 의원당으로 비교하였을 때 보다는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표 2-19).

〈표 2-20〉 2008년도 원장당 순이익 현황 연령별 비교

(단위: 원)

진료과목	응답의원수	의원당 순이익	원장당 순이익	평균 원장수
40세 미만	70	164,161,571	129,115,843	1.27
40~49	337	175,930,356	146,391,432	1.20
50~59	189	180,999,206	156,204,795	1.16
60~69	57	90,667,193	87,593,729	1.04
70세 이상	26	88,111,154	84,847,778	1.04

연령별로 살펴본 원장당 순이익의 경우 의원당 순이익과 마찬가지로 50대에 가장 높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기울기는 큰 차이를 보였다. 젊은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던 의원당 순이익의 상당부분이 공동개원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최고 정점을 이루는 50대 연령층의 평균 원장당 순이익은 156,204,795원에 불과하였다(표 2-20).

〈표 2-21〉 개원형태별 2008년도 원장당 순이익 현황

(단위: 원)

개원형태	응답의원수	의원당 순이익	원장당 순이익	평균 원장수
단독개원	538	131,524,442	131,524,442	1.00
단독개원+고용의	49	120,558,163	120,558,163	1.00
공동개원	63	291,294,921	129,236,479	2.25
공동개원+고용의	30	582,617,667	246,176,479	2.37

개원형태별로 원장당 순이익을 살펴보면 공동개원의 경우 의원당 순이익은 291,294,479원으로 단독개원시 보다는 오히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개원이면서 고용의를 두고 있는 경우의 원장당 순이익은 120,558,163원으로 개원형태 중 가장 낮았다. 공동개원이며 고용의 까지 채용하고 있는 의원의 원장당 평균 순이익은 246,176,479원으로서 다른 개원형태보다도 가장 높았다(표 2-21).

나. 의원의 매출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1) 의원의 특성에 따른 총매출과 총비용의 차이 분석

의원의 특성에 따른 총매출과 총비용 각각에 대한 차이분석은 <표 2-22>와 같다. 먼저 의원의 매출에 대해서 유의하게 분석된 항목은 의원형태, 표방진료과목, 의원수입증대를 위한 전략채택(의향)유무, 의원비용관리를 위한 전략채택(의향)유무, 야간/공휴일 진료여부, 의료분쟁경험 유무, 운용비용 부채유무와 대표원장의 성별이다.

의원형태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단독개원의형태는 연평균 매출이 3억 5천여만원이고, 2인 이상인 경우는 9억천여만원으로 2인 이상인 경우가 단독개원인 경우보다 약 2.6배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표방진료과목에 따라서는 일차의료를 주로 하는 진료과는 4억 2천여만원, 그 외 진료과는 5억 2천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일차의료진료과보다 그 외 진료과의 매출보다 1.2배 정도 많은 매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원의 수입증대를 위한 전략을 채택(의향)하고 있는 경우는 5억천여만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4억천여만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의원비용관리를 위한 전략을 채택(의향)하고 있는 경우는 5억천여만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4억여만원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야간/공휴일 진료를 하는 경우는 매출이 5억2천여만원이고 하지 않는 경우는 4억2천여만원으로 약 1.3배의 매출차이를 보이고 있고, 의료분쟁의 경험유무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의료분쟁경험이 있는 경우의 매출이 6억2천여만원이고 없는 경우는 4억4천여만원으로 1.4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운용비용의 부채유무에 따라서도 부채가 있는 경우의 매출이 더 높다. 대표원장의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원장인 경우 매출이 높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22〉 의원의 특성에 따른 총매출과 총비용의 차이

변수		총매출(만원)		총비용(만원)	
		평균	t(F)-값	평균	t(F)-값
의원형태	1인 의원	35409±23646	-8.72***	22256±17435	-8.52***
	2인 이상 의원	91456±75649		62063±54943	
표방진료과 목	일차의료 진료과 ⁴⁾	42392±48701	-2.77**	27654±32981	-2.34*
	기타진료과	52150±43259		33680±34038	
개원지역	대도시	44491±43425	1.06	29251±35723	0.50
	중소도시	50067±50292		32030±33929	
	군지역	47107±30610		30640±23535	
개원 전 봉직여부	경험 있음	48304±50222	1.58	31361±36137	1.40
	경험 없음	43177±30158		27952±23288	
의원 수입 증대를 위한 전략 채택(의향) 유무	채택하여 운용 중이거나 채택할 의향이 있음	51004±46932	2.53*	34611±37285	3.81***
	운용하지 않으며 채택할 의향도 없음	41943±45179		25198±27127	
의원 비용 관리를 위한 전략 채택(의향) 유무	채택하여 운용 중이거나 채택할 의향이 있음	52773±52908	3.43***	35289±38865	3.97***
	운용하지 않으며 채택할 의향도 없음	40854±36943		25352±25685	
진료영역 확장 계획 유무	채택하여 운용 중이거나 채택할 의향이 있음	46491±42568	-0.31	30644±28924	0.05
	운용하지 않으며 채택할 의향도 없음	47587±49121		30512±36814	
진료비 삭감 경험 유무	있다	48123±48187	1.09	31288±35077	1.04
	없다	43665±37541		28287±26169	
진료비 심사/규제 로 인한 적정 진료를 제공하지 못한 경험 유무	있다	45894±40372	-10.9	29340±27201	-1.37
	없다	53735±71078		37190±57217	
야간/공휴	한다	53406±55017	3.06**	35318±42045	3.14**

변수		총매출(만원)		총비용(만원)	
		평균	t(F)-값	평균	t(F)-값
일 진료 여부	안한다	42085±37405		26775±24296	
의료분쟁 경험 유무	있다	62361±61197	2.72**	41031±42196	2.69**
	없다	44637±45996		28870±31716	
개원비용 부채 유무	있다	47474±38166	0.14	34511±30812	1.00
	없다	46351±52691		29193±35959	
운용비용 부채 유무	있다	52976±49760	2.38*	34894±31866	2.51*
	없다	43840±44192		28167±34417	
대표원장 성별	남	48454±48055	3.75***	31475±34891	3.61***
	여	35238±24427		22545±16865	

*p<0.05, **<0.01 ***p<0.001

총 비용에 대해서도 총매출과 비슷한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의원형태 역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총비용은 1인 단독개원에 비해 2인 이상의 의사가 있는 경우의 총비용이 2.8배가 더 많았다. 표방진료과목 역시 기타 진료과가 일차의료진료과에 비해 비용이 더 높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원수입증대를 위한 전략채택유무에 대해서는 채택한 의원과 채택하지 않은 의원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야간/공휴일 진료를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1.3배 지출이 많았고, 의료분쟁이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의 지출이 1.4배 더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표원장의 성별에 따라서도 남자가 여자에 비해 비용이 1.4배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고 있다.

2) 의원의 특성에 따른 총매출/총비용과의 상관관계 분석

의원의 특성에 따른 총매출과 총비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23>과 같다. 매출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항목은 총근무의사

4) 일차의료진료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미표시의원

소, 병상수, 진료비 삭감총금액, 주간 총진료시간, 하루 평균진료환자수(외래), 하루 평균진료환자수(입원), 의원면적, 임대보증금, 월임차료, 개원총비용, 총비용과 대표원장의 연령이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개원연한, 진료비삭감총건수이다. 그러나 여기서 대표원장의 연령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총매출이 감소한다.

여기에서 총근무의사수는 피어슨 상관계수가 0.62978이고, 월임차료는 0.63762, 총비용은 0.87896이며 유의확률이 0.0001로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데 이는 이들 항목이 총매출액과 선형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총비용과의 상관관계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항목은 총근무의사수, 병상수, 하루평균 진료환자수(외래), 하루평균 진료환자수(입원), 의원면적, 임대보증금, 월임차료, 개원총비용, 총매출과 대표원장의 연령이다.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개원연한, 진료비 삭감총건수, 진료비 삭감총금액과 주간 총진료시간이다.

총비용과 피어슨 상관계수가 0.6이상인 항목으로는 월임차료(0.62667)와 개원총비용(0.64345), 총매출(0.87896)로 이 역시 유의확률이 0.0001로서 총비용고 선형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상관분석에서 총매출과 총비용과의 상관관계에서 거의 같은 항목이 동시에 매출과 비용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23〉 의원의 특성에 따른 총매출/총비용과의 상관관계

변수	총매출	총비용
	r-값	r-값
총 근무 의사 수	0.62978 ^{***}	0.56725 ^{***}
병상 수	0.39506 ^{***}	0.39560 ^{***}
개원연한	0.08979 [*]	0.09822 [*]
진료비 삭감 총 건수	0.12453 ^{**}	0.12656 ^{**}

변수	총매출	총비용
	r-값	r-값
진료비 삭감 총 금액	0.14982***	0.14430**
진료비 건당 삭감액	0.05308	0.05087
주간 총 진료 시간	0.14256***	0.12177**
하루 평균 진료 환자수(외래)	0.54955***	0.48910***
하루 평균 진료 환자수(입원)	0.39531***	0.32174***
의원 면적	0.50644***	0.55762***
의원 임대 보증금	0.46810***	0.50779***
의원 월 임차료	0.63762***	0.62667***
개원 총비용	0.61226***	0.64353***
총매출		0.87896***
총비용	0.87896***	
대표원장 연령	-0.13876***	-0.13689***

*p<0.05, **p<0.01 ***p<0.001

3) 의원의 특성에 따라 총매출과 총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의원의 총매출과 총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 모형은 <표 2-24>와 같다. 먼저 총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모형에서 전체 모형의 R^2 값은 57.3%이며, 전체 모형은 통계적으로는 매우 유의하다. 총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항목으로 의원형태에서는 단독 개원보다 2인 이상인 의원의 총매출이 더 적었으며, 의료분쟁의 경험유무에서 의료분쟁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의 총매출 역시 더 적었다. 또한 표방진료과목에 따라서는 일차의료진료과에 비해서 그 외 진료과의 매출이 더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총의사수가 1단위 증가하면 매출은 26,017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고, 외래환자수와 의원면적 역시 매출과 유의한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대표원장의 연령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총매출이 감소하는 음의 관련성을 보인다.

다음으로 총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모형에서 전체 모형의 R²값은 51.3%이며, 전체 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모형에서는 매출과는 달리 의원형태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단지 의사수의 증가에 따른 비용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외래환자수와 의원면적 역시 총비용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분쟁의 경험이 있는 의원에 비해 없는 의원의 비용이 더 적었으며, 표방진료과목에 따라서도 일차의료진료과 보다는 그 외 진료과의 비용이 더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원장인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총비용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24〉 의원의 총매출과 총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변수		매출액		비용액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의원형태 (1인 의원 기준)	2인 이상 의원	-11871	-2.49*	-1775	-0.48
야간/공휴일 진료여부 (한다 기준)	안한다	829	0.32	-864	-0.43
의료분쟁경험 유무 (있다 기준)	없다	-9098	-2.62**	-5716	-2.13*
대표원장성별 (남자기준)	여	-605	-0.15	-471	-0.15
표방진료과목 (일차의료진료과 기준)	그 외 진료과	4269	3.43***	2494	2.59**
총 의사수		26017	11.86***	13489	7.94***
병상수		531	2.58**	138	0.86
주간 진료시간		1	0.19	-1	-0.50
외래환자수		257	9.21***	142	6.56***
의원면적		93	4.57***	123	7.75***
대표원장연령		-443	-3.17**	-338	-3.13**
R-Square(%)		57.3		51.3	
F값		80.78***		63.36***	

다. 세무보고용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한 경영분석

1) 세무보고용 손익계산서 첨부 의원 현황

전체 응답의원 1009개 중에서 112개 의원이 2008년도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세무보고용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진료과목별 의원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표 2-25>에는 유형별 의원수를 표시함과 함께 공동개원 등 의원규모로 인한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의원의 의사인력 현황을 대비시켰다.

〈표 2-25〉 손익계산서 제출자 프로파일

구분		의원수	원장의사수	총의사수
성별	남	101	111	118
	여	11	12	12
진료과목	내과	14	15	17
	외과	12	12	12
	산부인과	7	7	7
	소아청소년과	7	7	7
	가정의학과	11	12	12
	이비인후과	9	9	10
	안과	6	7	7
	재활의학과	4	4	5
	정형외과	3	3	3
	기타외과계	13	16	18
	기타신경외과계	6	6	6
	기타방사선과계	5	8	8
	나머지과	6	8	8
	과목 미표시	9	9	10
총계		112	123	130

2) 손익계산서에 근거한 2008회계연도 의원 손익 현황

조사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2008 회계연도의 의원 평균 수익 및 비용을 계산한 결과는 <표 2-26>과 같다.

<표 2-26> 2008회계연도 의원 평균손익계산서

항목	금액	
I. 매출액		
건강보험	340,915,127	
의료급여	39,472,411	
일반진료	47,755,140	
자동차보험	15,012,268	
산재보험	<u>474,082</u>	443,629,028
II. 매출 원가		
기초재료	2,227,996	
당기매입	13,849,068	
기말재료	<u>2,148,176</u>	<u>13,928,888</u>
III. 매출총이익(I - II)		429,700,140
IV. 판매관리비		
급여 제수당	81,905,174	
퇴직금	2,913,273	
의약품비	16,399,240	
복리후생비	22,379,086	
여비교통비	3,793,624	
세금과공과	5,987,931	
지급입차료*	13,583,726	
보험료	3,551,973	
감가상각비	28,453,662	
수선비	3,739,465	
접대비	7,759,232	
광고선전비	3,131,788	
운반비	1,467,029	
차량유지비	9,353,189	
지급수수료	16,220,866	
판매수수료	18,945	
대손상각	-	
소모품비	20,646,740	
의료소모품비	12,848,554	
기타	<u>34,268,169</u>	<u>288,421,676</u>
V. 영업손익(III-IV)		141,278,464
VI. 영업외수익		

항목	금액	
수입이자	39	
판매장려금	128,743	
국고보조금	0	
기타	<u>514,313</u>	643,095
VII 영업외비용		
지급이자**	8,817,581	
기부금	574,914	
기타	<u>2,634,937</u>	<u>12,027,433</u>
VIII 당기순이익		₩129,894,126
(V+VI+VII)		

주: * 자기건물 보유를 제외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68개 의원을 기준으로 한 지급임차료 평균액은 22,373,212원이다.

**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하여 실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46개 의원을 기준으로 한 지급이자 평균액은 21,468,893원이다.

3) 손익계산서상의 의원 경영성과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112개 의원의 1008년도 평균 매출액은 443,629,028원이었으며, 영업외수익은 643,095원으로 의원의 평균 총 수익은 444,272,123원이었다. 그리고 의원에서는 평균 314,377,997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의원당 평균 129,894,126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다. 진료과목별 의원 평균 매출액과 순이익은 <표 2-27>과 같다.

<표 2-27> 진료과목별 2008회계연도 의원 손익현황

진료과목	매출액	의원순이익
내과	441,669,001	133,655,223
외과	468,851,694	122,307,353
산부인과	256,267,059	81,311,207
소아청소년과	274,778,485	86,616,384
가정의학과	284,530,091	76,997,027
이비인후과	386,413,017	132,217,958
안과	466,906,319	145,695,708
재활의학과	518,915,958	162,329,133
정형외과	958,733,359	235,486,677
기타외과계	618,447,713	180,682,485

진료과목	매출액	의원순이익
기타신경외과계	291,268,305	85,662,115
기타방사선과계	803,962,026	263,632,785
나머지과	523,033,024	139,651,046
과목미표시	293,695,310	83,110,322
전체	443,629,028	129,894,126

의원이라는 경영조직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의원당 매출 규모와 순이익의 규모면에서는 정형외과(매출액: 958,733,359원, 순이익: 235,486,677원)와 기타방사선과계(매출액: 803,962,026원, 순이익: 263,632,785원)가 양호한 반면, 산부인과(매출액: 256,267,059원, 순이익: 81,311,207원)와 가정의학과(매출액: 284,530,019원, 순이익: 76,997,027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형태인 의원의 경영성과를 보다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를 조직의 기준이 아닌 투자자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즉 원장당 매출규모와 순이익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근래 들어 공동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4) 투자자의 관점에서 살펴 본 의원의 경영성과

먼저 의원의 매출액은 의료기관에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인력수와 관련이 있으므로, 고용의사와 원장의사를 모두 합한 전체 의사인력을 기준으로 의사당 매출액을 계산하였다. <표 28>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형외과(958,733,359원)와 기타방사선과계(502,476,266원), 외과(468,851,694원)의 의사 1인당 매출액이 비교적 높은 반면, 가정의학과(260,819,250원), 소아청소년과(274,778,485원), 그리고 산부인과(286,267,059원)의 의사 1인당 매출액이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사당 매출액이 의원의 경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기 는 하지만, 의원의 ‘의사’는 투자자(원장)일수도 있고, 고용의사일수도

있어 정보이용자에 따라 의사당 매출액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그보다는 자영업으로서의 의원 경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보다 더 정확한 정보는 투자자당(원장당) 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의사는 의원의 매출액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하지만, 고용의사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은 이미 의원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기 때문이다.

〈표 2-28〉 투자자 관점에서의 의원 경영성과(2008회계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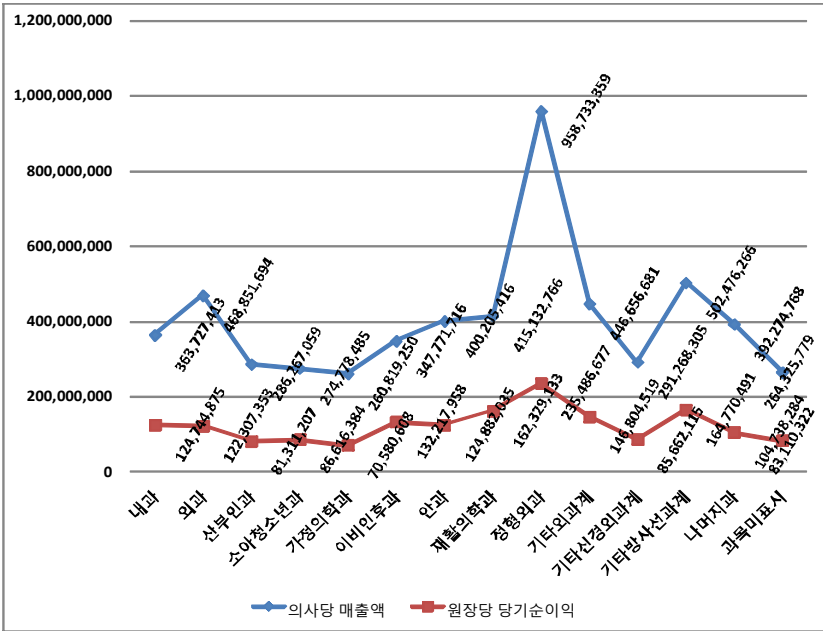
(단위: 원)

진료과목	의사당 매출액	원장당 순이익
내과	363,727,413	124,744,875
외과	468,851,694	122,307,353
산부인과	286,267,059	81,311,207
소아청소년과	274,778,485	86,616,384
가정의학과	260,819,250	70,580,608
이비인후과	347,771,716	132,217,958
안과	400,205,416	124,882,035
재활의학과	415,132,766	162,329,133
정형외과	958,733,359	235,486,677
기타외과계	446,656,681	146,804,519
기타신경외과계	291,268,305	85,662,115
기타방사선과계	502,476,266	164,770,491
나머지과	392,274,768	104,738,284
과목미표시	264,325,779	83,110,322
전체	382,203,471	118,277,580

의원의 총 매출액에 영업외수익 등을 합산한 총수익에서 매출을 위해 발생하는 매출원가와 고용의사를 포함한 의원의 인건비, 각종 제세공과금 등 판매관리비,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의원의 순이익을 산출한 다음(당기순이익=매출액+영업외수익-매출원가-판매관리비-영업외비용), 이를 의원의 투자자 수에 따라 배분하여 원장당 순이익을

계산하였다. 의원의 투자자인 개별 원장에게 귀속되는 원장당 순이익은 정형외과(235,486,677원), 기타방사선과계(164,770,491원), 그리고 재활의학과(162,329,133원)가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높은 반면, 가정의학과(70,580,608원)와 산부인과(81,311,207원), 그리고 기타신경외과계(85,662,115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5] 진료과목별 2008년도 경영성과



5) 진료과목별 의원의 경영실태

가) 내과의원

14개 내과의원이 2008회연도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의원당 매출액은 약 4억 4천만원이었으며, 제 비용을 차감한 순 이익은 약 1억 3천만원이었다(표 2-27 참조).

의원의 매출은 건강보험수입과 의료급여수입 그리고 일반진료수입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내과의 경우 건강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으로서, 총매출액의 구성을 보면 건강보험수입이 82.2%, 의료급여수입이 7.7%로 전체 매출의 89.9%가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의원의 일반진료수입은 10.1%에 불과했다(표 2-29).

〈표 2-29〉 내과 의원 매출액 변동

항목	2002년		2004년		2008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급여수익 (보험+급여)	308,879,493	92.2	328,756,048	93.4	397,160,701	89.9
비급여수익*	26,060,427	7.8	23,298,320	6.6	44,508,300	10.1
총수익(매출)	334,939,920	100	352,054,368	100	441,669,001	100

* 일반진료수익, 자동차보험수익, 산재보험수익

내과 의원의 2002년도 평균 매출액이 334,939,920원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⁵⁾ 2004년도에는 평균 매출액이 352,054,368원으로서 2년 동안의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겨우 2.52%에 그쳤다.⁶⁾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은 다소 매출액이 증가하였지만, 이는 공동개원 등 의원 대

5) 내과 등의 2002년 매출액 등의 금액 및 비율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의원급 의료 기관의 원가분석 연구”에서 인용.

6) 내과 등의 2004년 매출액 등의 금액 및 비율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의원급 의료 기관 경영분석 연구”에서 인용.

형화에 의한 효과로서 의사 1인당 매출액은 2004년 331,345,288원에서 2008년 363,727,413원으로 연평균 증가율로는 여전히 2.36%에 불과하였다.

내과의원 1곳당 2008년도 평균 순이익(소득세 차감전)은 133,655,223원이었으며, 공동개원을 감안하여 원장 1인당으로 산출한 평균 순이익(소득세 차감전)은 124,744,875원이었다. 경영주에게 귀속되는 진정한 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이러한 순이익 금액에서 자기자본비용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야 하는데, 자기자본비용은 대차대조표의 평균 자기자본 금액에 2008년 연평균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수익률 9.89%⁷⁾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자기자본비용은 채권자보다 후순위 수익자로서 경영위험을 크게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타인자본비용보다 조달비용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 바,⁸⁾ 의료산업에 있어서도 투입 자기자본에 대해 채권수익률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분야의 경우 자본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자기자본 수익률을 대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위험수익률에 가까운 국고채 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자기자본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반영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원 폐업의 위험이 높아진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무보증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BBB-등급)을 대용치로서 적용하였다. 향후 의원 또는 의료기관에 적용되어야 할 자기자본 수익률에 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기자본비용을 차감한 후의 2008년도 내과 의원 원장 1인당 순이익은 <표 2-30>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4,051,904원이었다.

7) www.ksdabond.or.kr,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2008년 평균)

8) 매일경제 2004. 2.16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표 2-30〉 내과의원 2008년도 순이익

진료과목	의원당 순이익	원장당 순이익
자기자본 차감전 순이익	133,655,223	124,744,875
자기자본비용	22,171,040	20,692,970
자기자본 차감후 순이익	111,484,183	104,051,904

나) 외과 의원

재무제표를 제출한 12개 외과의원의 2008년 평균 매출액(의원당)은 약 4억 6천9백만원이었으며, 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은 약 1억 2천2백만원이었다(표 2-27 참조).

외과 의원도 건강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 중 하나로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여러 연구들에서 외과계 의원을 대표하여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총매출액의 구성을 보면 건강보험수입이 전체 매출액의 72.9%, 의료급여수입이 12.3%로 전체 매출의 85.2%가 건강보험 수가수준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일반진료수입은 14.8%로서, 이는 2004년도의 일반진료수입 19.3%보다 그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표 2-31〉 외과 의원매출액 변동

항목	2002년		2004년		2008년	
	급여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급여수익 (보험+급여)	259,830,855	95.5	262,490,066	80.7	399,311,129	85.2
비급여수익*	12,247,210	4.5	62,842,378	19.3	69,540,564	14.8
총수익(매출)	272,078,065	100	325,332,384	100	468,851,694	100

* 주: 일반진료수익, 자동차보험수익, 산재보험수익

2002년도에 272,078,065원을 기록한 외과의원의 평균 매출액은 공동개원 등 의원규모가 대형화되면서 2004년에 325,332,384원으로 증가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2008년에는 468,851,694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과위원의 자동차보험 수익은 총매출액의 10.9%인 50,932,576원, 산재보험은 0.1%인 600,678원, 기타 일반수익은 3.8%인 18,007,310원을 차지하였다.

외과의원 1곳당 및 원장 1인당 2008년도 평균 순이익(소득세 차감전)은 122,307,353원이다. 외과의원에서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가(高價)인 시설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영주인 의원장에게 귀속되는 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순이익에서 자기자본비용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야 하는데, 2008년 연평균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 9.89%를 적용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까지 고려한 후의 2008년도 외과 원장 1인당 순이익은 <표 2-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97,442,937원이었다.

〈표 2-32〉 외과의원 2008년도 순이익

(단위: 원)	
진료과목	원장당 순이익
자기자본 차감전 순이익	122,307,353
자기자본비용	24,864,416
자기자본 차감후 순이익	97,442,937

다) 산부인과 의원

재무제표를 제출한 7개 산부인과위원의 2008년 의원당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8천6백만원이었으며, 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은 약 8천1백만원이었다(표 2-27 참조).

산부인과 의원은 통상 비보험수입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진료과목 중 하나로 분류되지만, 분만을 하지 않는 1인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보험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응답한 산부인과 의원들의 총매출액의 구성을 보면 건강보험수입이 전체 매출액의 68.0%, 의료급여수입이 21.3%로 전체 매

출의 89.3%가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일반진료 수입은 10.7%인 것으로 나타나서,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대상으로 한 과거 연구보다 일반진료수입의 비중이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33〉 산부인과 의원 매출액 변동

(단위: 원)

항목	2003년		2004년		2008년	
	급여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급여수익 (보험+급여)	161,308,527	66.0	455,282,042	74.3	255,533,164	89.3
비급여수익*	83,120,189	34.0	157,084,650	25.7	30,733,896	10.7
총수익(매출)	244,428,716	100.0	612,366,692	100.0	286,267,059	100.0

* 일반진료수익

2003년도의 산부인과 의원 매출액이 244,428,716원으로 조사되었던 것에 비하여 2004년에는 매출액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⁹⁾.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2003년 응답의원의 경우 의원당 평균 종사의사수가 1.15명으로 대부분 단독개원이었던데 비하여, 2004년 조사에서는 의원당 의사수가 1.80명으로 높아진데 따른 효과였다. 2008년 조사에서는 공동개원에 의한 대형 산부인과 의원 응답이 포함되지 않아서 의원당 매출액이 다시 낮게 나타났다.

산부인과의원 1곳당 2008년도 평균 순이익(소득세 차감전)은 81,311,207원이었으며, 자기자본비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2008년 연평균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 9.89% 적용) 2008년도 산부인과 의원 원장 1인당 순이익은 <표 2-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71,578,998원이었다.

9)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산부인과 의원의 실태분석, 2004

〈표 2-34〉 산부인과의원 2008년도 순이익

(단위: 원)	
진료과목	원장당 순이익
자기자본 비용 차감전 순이익	81,311,207
자기자본비용	9,732,209
자기자본 비용 차감후 순이익	71,578,998

라) 소아청소년과 의원

재무제표를 제출한 7개 소아청소년과의원의 2008년 의원당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7천5백만원이었으며, 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은 약 8천 7백만원이었다(표 2-27 참조).

소아청소년과 의원도 건강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 중 하나이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총매출액의 구성을 보면 건강보험수입이 전체 매출액의 72.2%, 의료급여수입이 10.0%로 전체 매출의 82.2%가 건강보험 수가수준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일반진료수입 비율은 17.8%로서 2004년도 조사에서의 일반진료수입 비율 17.1%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2-35〉 소아청소년과 의원 매출액 변동

항목	2003년		2004년		2007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급여수익 (보험+급여)	193,259,426	87.0	226,378,921	82.9	226,002,759	82.2
비급여수익*	28,790,174	13.0	46,677,915	17.1	48,775,725	17.8
총수익(매출)	222,049,600	100.0	273,056,835	100.0	274,778,485	100.0

* 일반진료수익

2004년도 매출액이 273,056,835원이었는데, 4년이 경과한 이번 조사에서도 매출액이 비슷한 수준인 274,778,485원으로 나타났다¹⁰⁾.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소아청소년과의원의 심각한 경영난을 입증

1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원급의료기관 경영분석 연구, 2005

하는 지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의원 1곳당 2008년도 평균 순이익(소득세 차감전)은 86,616,384원이었다. 자기자본비용을 고려하면(2008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평균 자기자본 금액에 2008년 연평균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수익률 9.89%적용) 2008년도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1인당 순이익은 69,557,879원에 불과하였다(표 2-36).

〈표 2-36〉 소아청소년과의원 2008년도 순이익

진료과목	원장당 순이익
자기자본 비용 차감전 순이익	86,616,384
자기자본비용	17,058,505
자기자본 비용 차감후 순이익	69,557,879

마) 가정의학과 의원

재무제표를 제출한 11개 가정의학과위원의 2008년 의원당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8천5백만원이었으며, 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은 약 7천7백만원이었다(표 2-27 참조).

가정의학과 의원도 건강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 중 하나이지만, 그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여러 연구들에게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경영현황 자료가 제대로 수집되어 있지 않다. 가정의학과 의원의 총매출액 구성을 보면 건강보험수입이 전체 매출액의 78.7%, 의료급여수입이 15.0%로 전체 매출의 93.7%가 건강보험 수가수준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일반진료수입은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수익이 266,680,431원이었고, 자동차보험 수익은 전체 수익의 0.2%인 435,940원, 산재보험은 전체 매출의 0.04%인 110,882원, 기타 일반수익은 6.1%인 17,302,839원을 차지하였다.

〈표 2-37〉 가정의학과 의원 매출액 구성

항목	2008년	
	금액	비율
급여수익(보험+급여)	266,680,431	93.7%
비급여수익*	127,849,661	6.3%
총수익(매출)	284,530,091	100%

* 일반진료수익, 자동차보험수익, 산재보험수익

가정의학과 원장 1인당 2008년도 평균 순이익(소득세차감전)은 70,580,608원으로 다른 진료과목 의원에 비하여 극히 낮은 수준이다. 가정의학과가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시설장비의 투입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소득세차감전) 연평균 7천만원의 원장당 순이익은 낮은 수준이다. 나아가 자본비용(2008년 연평균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 9.89% 적용)을 고려하면 2008년도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1인당 순이익은 64,982,157원에 불과하다(표 2-38).

〈표 2-38〉 가정의학과 의원 2008년도 순이익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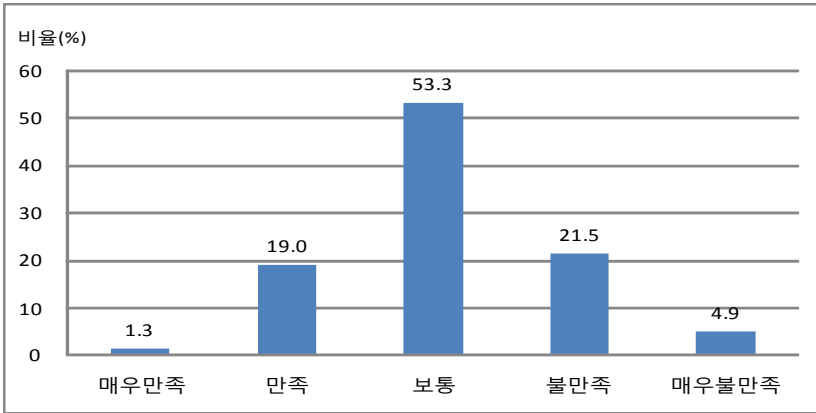
진료과목	의원당 순이익	원장당 순이익
차감전 순이익	76,997,027	70,580,608
자기자본비용	6,107,400	5,598,450
차감후 순이익	70,889,625	64,982,157

3. 의원 경영실태 및 개선방안의 인식

가. 현재의 의원 수입에 대한 만족도

다른 경영조직과 마찬가지로 의원도 하나의 경영조직이다. 그리고 의원도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생존경쟁을 하여야 한다.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인 의료서비스 시장에는 강력하고 다양한 규제정책과 소비자 유치를 위한 극심한 경쟁이 공존하는 시장이다. 공급자인 의원이 시장에 제공할 의료서비스 품목의 종류나 품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며,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 서비스품목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공급자 스스로 그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정부의지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 그만큼 규제정책이 다양하고 강력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소규모 자영업 형태인 의원은 종합 병원이나 대학 병원 등 대규모 병원과 사실상 소비자(환자)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기록하여 재투자하고 경쟁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의원 경영에 책임이 있는 개원의들에게 현재의 의원 경영수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현재의 의원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에서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3%(매우만족 1.3%, 만족 19.0%)이었으며, 26.4%는 의원의 현재 수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의 의원 수입에 대해 불만족인 의원의 비율이 만족한 의원의 비율보다 6.1%p 많은 것이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3.3%)은 현재의 의원 수입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2-16] 현재의 의원 수입에 대한 만족도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진 개원의가 현재의 의원 수입에 비해 만족보다는 불만족하다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의원 경영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원의 경영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면 현재의 불만은 조만간 해소될 수 있지만, 개원의들은 의원의 미래에 대해 희망은 작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¹⁾

나. 경영실태 개선 방안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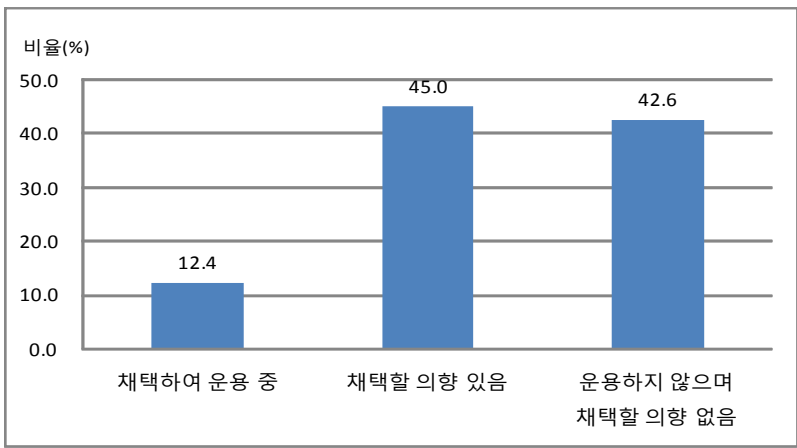
1) 개선전략의 인식

의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수입확대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또는 채택 예정인 경우) 비용관리 전략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또는 채택 예정인 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 의원이 비록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경영실체이지만 의원의 운영도 경영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12.4%가 의원매출확대와 비용감소 전략을 이미 채택하여 사용 중이라는 것은 개원가에서도 체계적인 경영이

11) 의료정책연구소, 의원경영실태 조사 분석, 2010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아직은 의원수입확대 전략 및 비용절감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채택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45.0%에 달하였다. 그러나 의원의 수입증대 전략 및 비용절감 전략을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채택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42.6%라는 것은 아직도 의원의 운영을 경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있는 개원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7] 의원 수입확대/비용절감 전략 채택(의향)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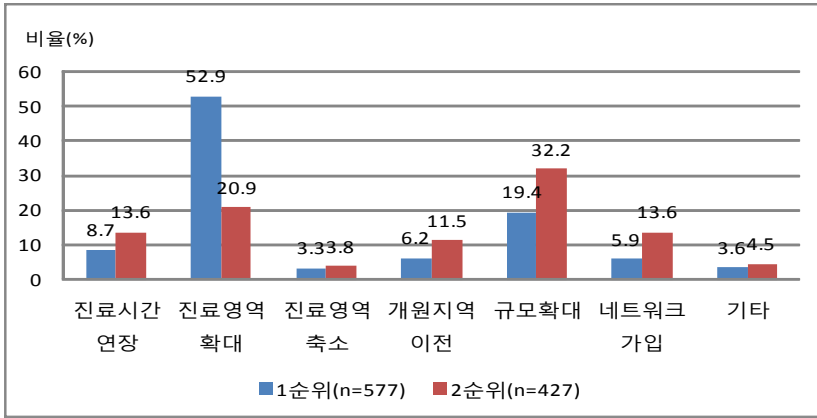


참고: n=1009

2) 의원 수입증대 방안 인식

개원의가 의원 경영개선 방안으로서 고려하고 있는 수입증대 방안으로는 1순위로 진료영역확대를 꼽는 개원의가 가장 많았다(52.9%). 의원의 규모확대(19.4%)와 진료시간 연장(8.7%)이 그 뒤를 이었다(그림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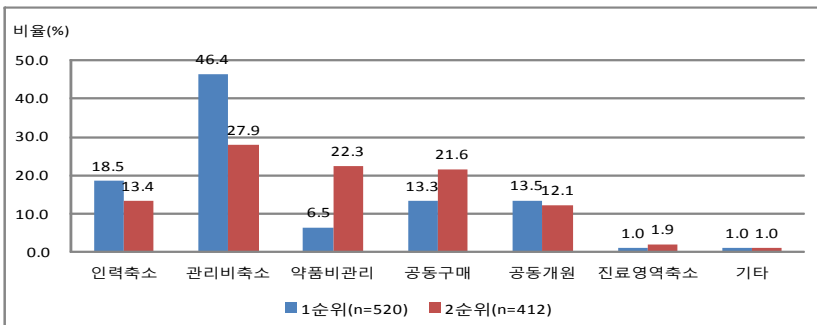
[그림 2-18] 수입 증대 방안



3) 의원 비용절감 방안 인식

의원 경영개선 방안으로서 채택하거나 채택할 예정인 비용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1순위와 2순위에 대해 질문하였다. 1순위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관리비 축소(46.4%)였다. 의원의 비용절감 방안으로서 인력축소를 통한 비용절감(18.5%)과 공동개원(13.5%)이나 공동구매(13.3%)를 통한 비용절감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그림 2-19).

[그림 2-19] 의원 비용절약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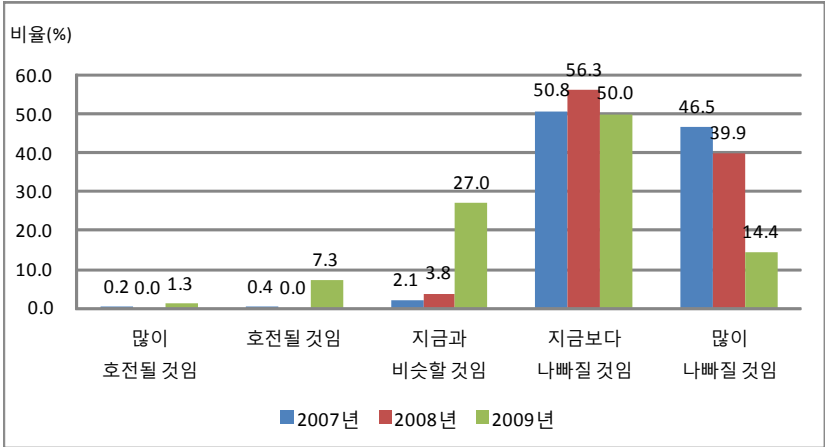
다. 향후 경영 전망의 인식

현재의 의원 경영수입에 불만족한다는 개원의가 만족한다는 개원의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앞으로 의원 경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아니다.

수년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개원의들이 미래의 의원 경영에 대해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의 의원 경영실태와 비교하여 의원의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8.6%만 의원의 경영이 앞으로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많이 호전될 것이다 1.3%, 호전될 것이다 7.3%), 64.4%는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많이 나빠질 것이다 14.4%,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 50.0%). 응답자의 27.0%는 앞으로 의원 경영이 지금과 별 변함없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비록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자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지금보다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자가 과거보다 증가하였지만, 가장 많이 증가한 답변은 의원의 경영실태가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의원의 운영은 건강보험제도나 정부정책의 의지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향후 의원의 경영전망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이라는 것은 개원의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낮은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원의들이 앞으로도 의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때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저비용-고효율의 제도로 운용될 수 있다. 의원의 경영난으로 의원이 환자진료보다는 생존을 위해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개원의들의 진료의욕은 상실되고, 이는 다시 의원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벼랑 끝에 서있는 의원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의원의 폐업이 증가하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물리적·경제적 접근성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도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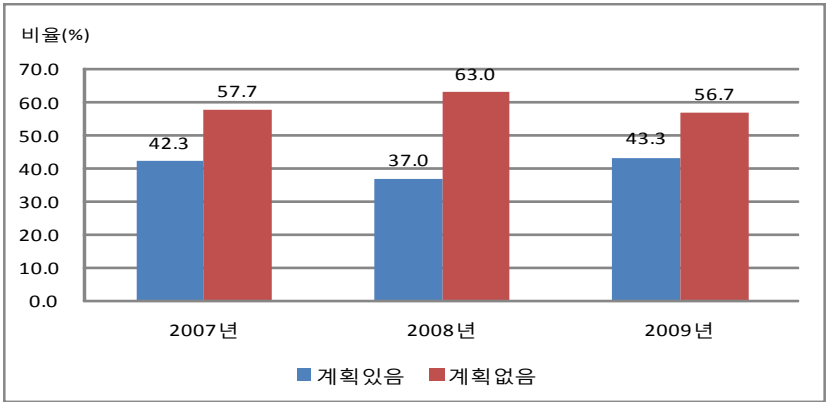
[그림 2-20] 의원의 향후 경영 전면에 대한 개원의의 견해



라. 진료영역 확장에 관한 인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원의 수익증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진료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개원의가 가장 많았다. 위의 질문과는 별도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료영역을 확장한 계획이 있는지에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56.7%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료영역을 확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2008년의 63.0%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진료영역을 확장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 43.3% 보다는 높은 비율이다.

[그림 2-21] 진료영역확장 계획



기회가 주어져 진료영역을 확장한다면 1순위로 비만클리닉(24.0%)과 건강검진(20.8%)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2 순위에서는 비만클리닉(13.4%)과 대체의학 시술(13.4%)이 확장하고 싶은 진료영역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순위에서는 만성질환관리 (13.5%)와 건강기능식품판매(11.3%), 그리고 대체의학 시술(11.0%)을 개원의들은 확장하고 싶은 진료영역으로 꼽았다.

〈표 2-39〉 확장할 진료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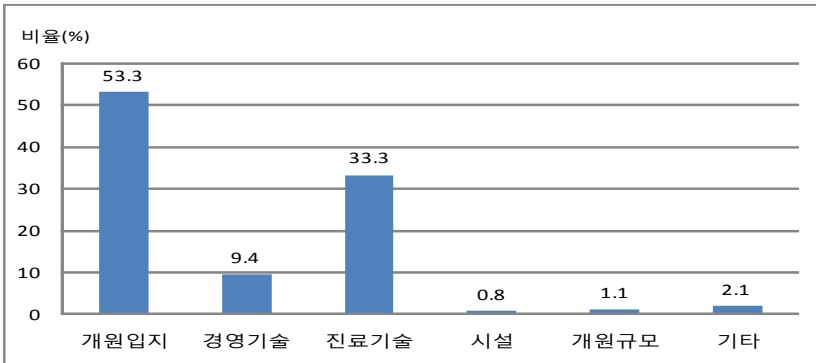
확장할 진료영역	1순위	2순위	3순위
	n(%)	n(%)	n(%)
비만클리닉	105(24.0)	49(13.4)	30(9.4)
건강검진	91(20.8)	36(9.8)	26(8.2)
성형	48(11.0)	40(10.9)	17(5.4)
타과진료	42(9.6)	29(7.9)	25(7.9)
건강증진서비스	40(9.2)	40(10.9)	29(9.1)
대체의학 시술	26(6.0)	49(13.4)	35(11.0)
만성질환관리	23(5.3)	42(11.8)	43(13.5)
운동처방	23(5.3)	19(5.2)	22(6.9)
영양처방	14(3.2)	24(6.6)	24(7.4)
건강기능식품 판매	4(1.0)	22(6.0)	36(11.3)
치료화장품 판매	3(0.7)	3(0.8)	10(3.2)
한의사와 협진	3(0.7)	9(2.5)	17(5.4)

확장할 진료영역	1순위	2순위	3순위
	n(%)	n(%)	n(%)
기타	15(3.4)	3(0.9)	4(1.3)
계	437(100.0)	366(100.0)	318(100.0)

마. 성공적인 개원의 요소

개원을 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개원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는 것은 개원위치를 결정할 때부터 의원 경영의 성공을 위한 요소들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의원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 개원의들에게 성공적인 의원의 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절반 이상(53.3%)의 개원의들은 ‘개원입지’가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료기술(33.3%)과 경영기술(9.4%)이 그 뒤를 이었다([그림 2-22]). 개원의들에게는 여전히 개원입지가 성공적인 개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그림 2-22] 성공적인 개원의 중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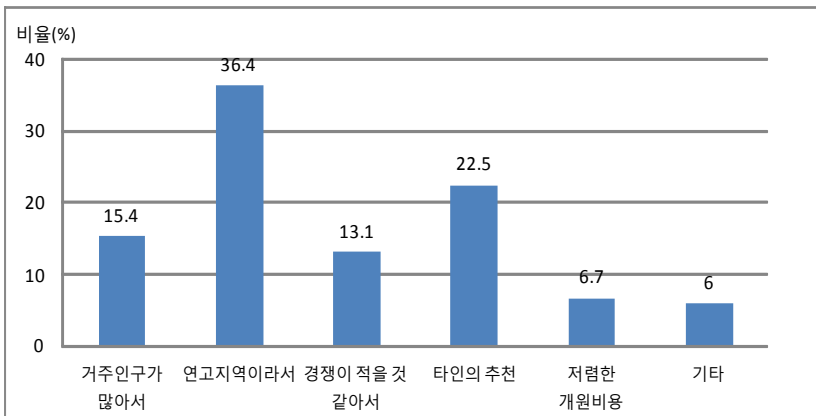
참고: n=1006

12) 의원 경영실태 조사 분석, 의료정책연구소, 2010

13) 2007년의 조사에서는 개원의들이 성공적인 개원의 중요 요소로서 개원입지(66.0%), 진료기술(17.5%), 경영기술(7.9%), 개원규모(2.5%), 그리고 병원시설(1.9)순으로 꼽았다. 또한 2008년의 조사에서도 개원의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개원의 요소는 개원입지(62.4%), 진료기술(21.6%), 경영기술(11.1%), 개원규모(2.8%), 그리고 병원시설(0.6%)순으로 그 중요도의 인식에는 2007년의 조사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임금자, 일차 의료기관 경영실태조사, 2007, 임금자, 최진우, 의원 경영실태조사, 2009

개원의의 53.3%가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개원입지’를 꼽았지만, 이를 직접 개원지역 선정과 연결하여 현실화 하는 의원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의들은 실제 개원지역을 선택할 때 ‘연고지역’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연고지역이기 때문에’ 현재의 개원지역을 선택하였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다. ‘경쟁이 적을 것 같아서’나, ‘거주인구가 많아서’ 등 의원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의원 개원지역 선택시 가장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는 응답자는 각각 13.1%와 15.4%로서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타인의 추천에 의해 현재의 개원지역을 선택하였다는 응답자는 22.5%로서, 이는 의원 입지 선정시 전문가나 개원선배의 의견을 고려하는 개원의가 적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23] 현재의 개원지역을 선택한 이유



참고: n=1001

바. 의원 경영난 개선 방안

의원의 경영난에 대해 국회에서조차 논의되고 대책의 강구를 요구할 만큼 의원의 경영난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의원이 경영난에

처해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의원의 경영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논의는 자주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본 조사에서는 의원의 경영개선 방안으로서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나 의원의 공중보건사업 확대, 외래 진찰료 수가(상대가치)인상, 외래진찰료 체감제의 개선, 외래 초·재진 구분 기준의 개선, 그리고 환자 편의시설 등 의료 외 수익사업의 확대 등이 제시된다면 찬성할 것인지에 대해 개원의들의 견해를 물었다.

의원 경영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서 그 동안 유명무실화된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70.5%(매우 찬성 18.6%)로서 반대한다는 응답자의 비율(3.0%)보다 무려 67.5% 포인트나 높았다. 의료전달체계가 현재와 같이 무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화될 경우 의원의 경영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자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 운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지불 가능한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것이 의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다. 의원 경영개선 방안의 하나로서 의원에서 공중보건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33.9%)는 의견이 반대한다(22.3%)는 의견보다 많았지만, 중립적인 견해인 ‘보통’이라는 의견이 43.8%로 가장 많았다. 개원의들은 의원에서 공중보건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이지도 않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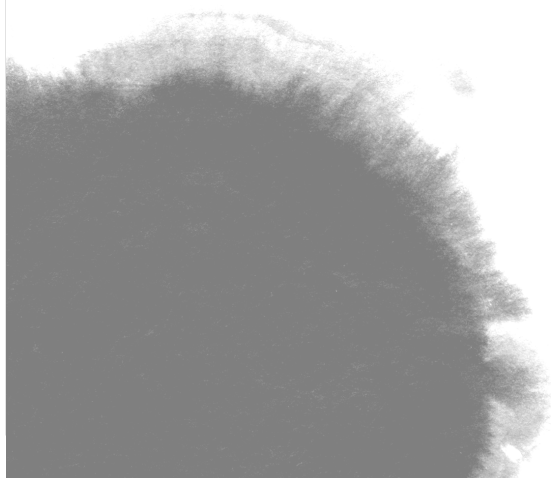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의원의 경영개선 방안으로서 외래진찰료 수가(상대가치)의 인상이나 외래 초·재진 구분 기준의 개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의 비율이 매우 높다. 외래진찰료 수가(상대가치)의 인상은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의원의 경영에 당장, 그리고 매우 강력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이러한 이유로 경영개선방안으로서의 외래진찰료 수가(상대가치) 인상에 대해서는 87.9%가 찬성하였으며, 반대의견은 1.2%에 불과하였다. 또한 경영개선방안으로서 외래 초·재진 구분 기준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75.9%였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3.9%였다. 외래진찰료 체감제의 개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69.8%) 반대한다는 의견(3.8%)보다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의원경영개선방안으로 환자 편의시설 등 의료 외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이 46.6%로 비교적 높지 않았다. 의원경영개선방안으로서 환자 편의시설 등 의료 외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개원의들은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의 특성상 진료서비스 이외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03

병원의 지출 및 수입 현황



제3장 병원의 지출과 수입 현황

1. 의료기관의 종별 수익과 비용구조

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익 및 비용구조

지난 10년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증가추이를 보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에서 상급종합병원은 2000년 43개소에서 2010년 44개소로 1개 병원이 증가하였으나, 종합병원은 202개에서 274개소로 증가하였다. 특히 병원은 2000년 662개소에서 2010년 1,315개소로 653개가 증가하였고 요양병원은 같은 기간 동안 19개소에서 867개소로 848개가 증가하였다.

<표 3-1> 연도별 병원 수 변동추이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2000	43	202	662	19
2001	43	234	677	28
2002	42	241	729	54
2003	42	241	803	68
2004	42	241	857	113
2005	42	249	909	203
2006	43	253	961	361
2007	43	261	1,048	591
2008	43	269	1,193	690
2009	44	269	1,262	777
2010	44	274	1,315	867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진료비 통계지표(부문발해), 2011.1

급성기 병원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이 318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12.7%를 차지하고 있고, 병원급은 전체 의료기관의 87.3%를 차지하여 기관수로는 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병상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128,673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26.9%, 일반병원 25.6%, 요양병원 16.1%로 병원급 병상수가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급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 연도별 병상수 변동 추이

구분	계	유형별병상수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 원
2000	287,040	113,518	-	62,874	67,288
2001	288,952	108,224	-	63,813	76,976
2002	316,089	115,779	-	75,392	83,987
2003	340,988	111,801	8,355	78,853	96,338
2004	353,289	117,323	10,445	86,897	91,702
2005	379,751	120,728	25,501	90,467	93,972
2006	410,581	124,090	43,336	98,228	95,224
2007	450,119	125,840	66,727	112,392	96,292
2008	478,645	128,673	76,970	122,654	97,842

자료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심평원의 병상가동률 자료를 살펴보면 병원유형별 병상가동률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병원급과 유병상 의원의 병상가동률은 각각 68.2%, 49.0%로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종합병원급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3-3〉 병원유형별 병상가동률

구분	기관수	총병상수(%)	총입원일수(%)	가동률(%)
상급종합병원	44	42,633(8.6)	13,495(10.2)	86.7%
종합병원	269	92,893(18.8)	28,350(21.5)	83.6%
병원	1,262	168,890(34.2)	42,060(31.8)	68.2%
요양병원	777	81,767(16.5)	25,796(19.5)	86.4%
의원(유병상)	6,660	97,572(19.7)	17,441(13.2)	49.0%
소계	9,477	494,290(100)	132,094(100)	73.2%

자료: 심사평가원(2009)

의료기관 유형별 2009년도 건강보험 청구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청구금액 비중이 21.8%, 종합병원 19.7%, 병원 16.8% 그리고 의원이 3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00년도부터 빠른 속도로 성장한 요양병원의 청구금액 비중은 2009년도 기준으로 4.6%로 나타났다.

〈표 3-4〉 2009년 의료기관 유형별 청구금액과 백분율

		(단위: 천원, %)	
구분		건강보험(2009)	백분율
소계	합계	28,722,439,029	100.0%
	입원	12,402,047,896	100.0%
	외래	16,320,391,133	100.0%
상급 종합병원	소계	6,262,419,471	21.8%
	입원	3,955,744,872	31.9%
	외래	2,306,674,599	14.1%
종합병원	소계	5,661,584,127	19.7%
	입원	3,570,253,274	28.8%
	외래	2,091,330,853	12.8%
병원	소계	4,817,639,980	16.8%
	입원	3,620,310,204	29.2%
	외래	1,197,329,775	7.3%
(요양병 원)	소계	1,325,741,690	4.6%
	입원	1,256,898,197	10.1%
	외래	68,843,492	0.4%
의원	소계	8,990,004,908	31.3%
	입원	1,179,874,862	9.5%
	외래	7,810,130,047	47.9%

자료 : 심평원, 진료실적분석(2009)를 기준으로 백분율로 산정하였음

의료기관 유형별 2009년도 건강보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주요 4대 비율(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품비, 재료대)을 살펴보면 진료행위료 46.3%, 기본진료료 22.1%, 약품비 21.8% 그리고 재료대 9.8%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품비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기본진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환자 중증도에 따른 약품비의 비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의료기관 종별 4대 진료비 비교

(단위: %)

구분		기본 진료료	진료 행위료	약품비	재료대
총합계	소계	22.1%	46.3%	21.8%	9.8%
	입원	23.2%	43.2%	19.8%	13.8%
	외래	20.2%	51.4%	25.2%	3.1%
상급종합 병원	소계	18.4%	47.5%	23.8%	10.3%
	입원	19.7%	44.7%	20.9%	14.7%
	외래	16.1%	52.3%	28.9%	2.7%
종합병원	소계	27.3%	44.5%	19.0%	9.1%
	입원	28.2%	41.1%	18.2%	12.4%
	외래	25.8%	50.1%	20.3%	3.7%
병원	소계	33.5%	48.5%	12.1%	6.0%
	입원	30.9%	42.5%	14.9%	11.6%
	외래	35.5%	53.2%	9.8%	1.5%

자료 : 심평원, 진료실적분석(2009)를 기준으로 백분율로 산정하였음

2. 의료기관의 종별 경영지표 분석

가.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의료기관의 상급종합,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별 경영분석에서는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에서 표준화 수련병원의 병원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 수련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에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진료실적자료를 기준으로 경영실태를 분석하였다⁴⁾.

현재 전국병원 중에서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271개소로
서 병상수는 115,470 병상으로 전국 급성기 병원 병상수의 28.7%을
차지하고 있다. 수련병원은 국내 병원 중에서 규모면이나 경영수지 측
면에서 양호한 편으로 비교적 통계자료의 생산이 양호한 실정이다. 따
라서 급번 병원 유형별 경영분석에는 2009년도 수련병원 중에서 자료
이용에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분석대
상으로 하였다.

〈표 3-6〉 전공의 수련병원 병상수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계
병원수	42	215	14	271
병상수	38,920	75,850	700	115,470

자료: 대한병원협회 내부자료(2009).

1) 병원 특성 및 병상 규모별 분류

병원의 특성에 따라 일반병원과 특수병원으로 분류하였다. 일반병원
은 다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그리고 병원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병상규모에 의해 2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① 10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② 500병상 이상 1000병상 미만의 상급종합병원,
③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④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
원, ⑤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으로 분류하였다. 정신병원
은 특수병원으로 분류하였다.

14) 수련병원 심사 대상병원 중 2009년 240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였음.

2) 소재지별 분류

병원의 소재지별로 ‘특별시군’, ‘광역시군’, ‘중소도시군’ 그리고 ‘기타지역군’으로 분류하였다. 특별시군은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들을 말하며, 광역시군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그리고 인천광역시 등 행정구역상 광역시에 속한 병원들이며, 중소도시군 병원들은 행정구역상 시에 속한 병원들이며 마지막으로 기타 지역군은 행정구역상 군에 속한 병원들이다.

〈표 3-7〉 분석대상의 특성별 소재지별 분포

소재지	합계	일 반 병 원							특수 병원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 병원	
			1000병상이 상	500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병 상미만	100병상 이상-300병 상미만			
전국	240	226	10	34	48	58	62	14	14	
특별시	49	47	5	12	10	12	5	3	2	
광역시	65	65	3	11	13	18	14	6	0	
중소도시	116	107	2	11	24	26	39	5	9	
기타지역	10	7	0	0	1	2	4	0	3	

〈표 3-8〉 분석대상의 특성별 설립형태별 분포

설립형태	합계	일 반 병 원							특수 병원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 병원	
			1000 병상이상	500병상이상 ~1000 병상미만	500병상이상	300병상이상 ~500병상미만	100병상이상 ~300병상미만			
국립 (의과대학)	2	2	1	0	0	1	0	0	0	
국립 (기타)	10	4	0	0	1	1	0	2	6	
특수법인 (의과대학)	6	6	2	2	1	1	0	0	0	
특수법인 (기타)	28	28	1	3	7	8	9	0	0	
학교법인 (의과대학)	61	60	3	28	15	9	5	0	1	
공사 (공단)	9	9	0	0	2	2	4	1	0	
시립	3	2	0	0	1	0	1	0	1	
사회복지법인	2	2	1	0	0	0	1	0	0	
재단법인	21	20	1	0	7	7	5	0	1	
의료법인	65	60	1	1	14	17	22	5	5	
기 타	32	33	0	0	0	12	15	6	0	

나. 자료작성기준

1)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 가)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였다.
- 나)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 라) 가지금급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가) 자산의 계정과목

- (1)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였다. 당좌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의료미수금,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제세, 본지점 및 기타의 당좌자산으로 구분하였다. 재고자산은 약품, 진료재료, 급식재료, 저장품, 의료부대물품으로 구분하였다.
- (2)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였다. 투자자산은 장기금융상품, 투자유기증권,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퇴직보험예치금, 보증금, 이연법인세차 및 기타 투자자산으로 구분하였다.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의료장비,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건설중인 자산, 기타유형자산 및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구분하였다.

나) 부채의 계정과목구분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하였다.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비지급제세금, 유동성장기부채, 선수수익, 예수보증금, 단기부채성 충당금, 임직원단기차입금 및 기타의 유동부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고정부채는 장기차입금, 외화 장기차입금, 금융리스미지급금, 장기성매입채무, 퇴직급여충당금, 이연법인세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구분하였다.

2)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가) 의료수익은 입원수익, 외래수익 및 기타의료수익으로 구분하며 의료수익감면을 차감한 후의 수익을 계상하였다.
- 나) 의료수익감면은 진료비에누리(또는 진료비할인), 연구용환자감면

및 자선환자감면 등으로 구분하였다.

- 다) 의료외수익은 의료부대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수익,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대손충당금환입, 기부금수익 및 잡이익 등으로 구분하였다.

다. 자료작성기준

1) 성장성 분석지표

성장성지표는 병원의 경영규모 및 병원운용의 결과가 당해 연도에는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감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병원의 경쟁력이나 미래의 이익 창출능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주요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 총자본증가율(%)	$= \frac{\text{당기총자본} - \text{전기총자본}}{\text{전기총자본}} \times 100$
나) 자기자본증가율(%)	$= \frac{\text{당기자기자본} - \text{전기자기자본}}{\text{전기자기자본}} \times 100$
다) 순이익증가율(%)	$= \frac{\text{당기순이익} - \text{전기순이익}}{\text{전기순이익}} \times 100$
라) 의료수익증가율(%)	$= \frac{\text{당기의료수익} - \text{전기의료수익}}{\text{전기의료수익}} \times 100$
마) 입원수익증가율(%)	$= \frac{\text{당기입원수익} - \text{전기입원수익}}{\text{전기입원수익}} \times 100$
바) 외래수익증가율(%)	$= \frac{\text{당기외래수익} - \text{전기외래수익}}{\text{전기외래수익}} \times 100$

2) 활동성 분석지표

활동성지표는 병원에 투입된 자본이 일정 기간 중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분석지표에 사용된 주요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 총자본회전기간(일)} = \frac{\text{총자본}}{\text{의료수익}} \times 365$$

$$\text{나) 의료미수금회전기간(일)} = \frac{\text{의료미수금 잔액}}{\text{의료수익}} \times 365$$

: 의료미수금 잔액이 몇 일분의 의료수익에 해당하는가를 알기 위한 지표로서 기간이 길수록 의료미수금의 관리가 부실한 것을 나타내는 지표

$$\text{다) 재고자산보유일수(일)} = \frac{\text{유동부채}}{(\text{의료비용}-\text{감가상각비})} \times 365$$

: 재고자산의 보유수준이 평균 몇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text{라) 의료미수금회전율(회)} = \frac{\text{유동부채}}{(\text{의료비용}-\text{감가상각비})} \times 365$$

: 의료미수금에 대한 의료수익의 비율을 비교하는 지표

3) 수익성 분석지표

수익성지표는 병원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비율로서 자본이용의 효율성, 이익창출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분석지표에 사용된 주요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 총자본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총자본}} \times 100$$

: 당기순이익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로서 병원운영에 투입된 총자본의 최종결과를 나타내는 지표

$$\text{나) 의료수익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의료수익}} \times 100$$

: 의료수익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text{다) 총자본의의료이익률(\%)} = \frac{\text{의료이익}}{\text{총자본}} \times 100$$

$$\text{라) 의료수익의의료이익률(\%)} = \frac{\text{의료이익}}{\text{의료수익}} \times 100$$

4) 안전성 분석지표

의료기관의 경영분석지표로서 안전성지표는 경영주체로서 병원자본의 건실성, 지불능력, 부채상환능력, 자본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이다. 분석지표에 사용된 주요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 기본재산비율(\%)} = \frac{\text{기본재산}}{\text{총자본}} \times 100 = \frac{(\text{총자본}-\text{부채})}{\text{총자본}} \times 100$$

$$\text{나) 타인자본의존도(\%)} = \frac{\text{부채}}{\text{총자본}} \times 100$$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text{다) 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총당할 수 있는 유동성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단기지급능력이 양호

$$\text{라) 당좌비율(\%)} = \frac{\text{현금예금+유가증권+의료미수금+받을어음}}{\text{등의 당좌자산}} \times 100$$

: 유동부채에 대한 당좌자산의 비율로서 단기채무에 대한 병원의 지급능력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지표

$$\text{마) 고정비율(\%)} = \frac{\text{고정자산}}{\text{기본재산}} \times 100$$

$$\text{바) 고정장기적합율(\%)} = \frac{\text{고정자산}}{\text{기본재산} + \text{고정부채}} \times 100$$

: 자기자본 및 고정부채가 고정자산에 어느 정도 투입되어 운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라. 주요경영지표 분석

의료기관의 일정시점에서 자산상태와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주요 차이점은 공공병원이 백병상당 유동자산과 자산총계가 민간병원에 비해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표분석 결과는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서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고 병원의 투자에 대한 부담이 공공기관의 경우 공적 지원금으로 건립되어 고정자산(건물, 의료기기 등) 투자에 대한 부채성 지출비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3-9〉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백병상당 약식 대차대조표(2009)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일 반 병 원						
		평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000병상 이상	500병상 이상~1000병상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병상미만	100병상 이상~300병상미만	
민간	1.유동자산	3,715,685.4	7,975,028.7	5,859,119.4	3,450,463.1	3,070,671.8	2,548,843.7	4,289,944.1
	1)당좌자산	3,597,885.8	8,029,504.6	5,698,331.7	3,339,040.6	2,953,423.2	2,450,110.5	4,093,597.5
	2)채고자산	122,003.8	152,565.6	160,201.9	108,908.5	112,449.3	98,200.1	196,346.2
	자산총계	10,318,883.8	18,943,146.7	10,088,026.0	10,767,135.2	11,209,399.5	7,204,816.9	15,448,136.2
	1.유동부채	13,759,897.1	26,918,175.4	16,238,899.5	14,250,305.0	14,279,930.1	8,498,169.3	19,739,615.3
	2.고정부채	4,478,512.0	9,836,526.5	5,891,854.3	5,003,519.3	3,905,726.0	3,501,666.3	2,360,038.5
	부채총계	4,583,532.7	9,147,542.9	5,029,329.1	5,017,522.6	5,024,276.8	2,950,521.1	4,753,391.7
	3.자본(기본재산)	9,053,709.4	18,984,069.4	10,921,277.9	10,088,117.5	8,930,002.8	6,365,798.4	7,113,430.2
	②이익잉여금	5,025,363.0	7,922,148.1	5,528,703.7	4,868,607.0	4,842,174.4	3,117,695.7	12,622,793.5
	②이익잉여금	-520,520.9	-3,707,750.0	-2,545,082.8	-1,146,803.6	747,071.9	-352,230.2	3,399,849.9
공공	1.유동자산	4,823,380.9	9,299,150.6	8,777,461.0	5,280,631.1	3,353,072.7	3,434,940.6	5,165,820.7
	1)당좌자산	4,685,701.4	9,161,074.2	8,632,704.8	5,116,761.9	3,217,314.2	3,310,860.7	5,059,193.4
	2)채고자산	137,679.6	138,076.4	144,756.2	163,869.2	135,758.5	124,079.9	106,627.3
	2.고정자산	12,768,382.3	11,314,532.0	15,037,541.4	15,464,977.7	12,814,408.3	9,003,503.4	21,258,061.9
	자산총계	17,583,395.8	20,613,682.6	23,815,002.4	20,745,608.7	16,167,480.9	12,411,372.9	26,423,882.6
	1.유동부채	2,987,337.6	5,461,846.9	5,419,400.2	2,853,285.8	1,935,897.9	2,752,512.2	2,408,156.5
	2.고정부채	4,688,449.1	8,989,540.3	8,941,728.1	5,359,818.7	3,434,522.3	3,723,952.8	496,522.0
	부채총계	7,733,642.8	15,246,908.7	14,361,128.3	8,213,104.6	5,370,420.2	6,476,465.0	2,904,678.6
	3.자본(기본재산)	8,656,547.9	6,162,295.4	9,453,874.2	9,869,152.0	7,540,039.8	6,449,622.7	23,519,204.1
	②이익잉여금	-2,387,081.7	-2,566,981.2	-4,029,858.7	-1,643,066.1	-2,134,381.2	-3,107,717.8	519,020.5

연도별로 의료기관의 규모별 백병상당 대차대조표를 분석해 보면 자산규모는 전체적으로 증가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자산증가와 함께 부채도 매년 증가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부채증가는 고정부채와 유동부채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연도별 의료기관 규모별 백병상당 약식 대차대조표(2007~2009)

	구분	2007	2008	2009
전체	1.유동자산	2,704,828.6	2,984,057.3	3,586,600.7
	1)당좌자산	2,635,374.0	2,857,217.6	3,471,911.5
	2)재고자산	109,101.0	112,716.4	118,723.3
	2.고정자산	8,264,819.4	9,192,743.6	9,988,594.2
	자산총계	11,135,473.8	12,246,403.3	13,311,636.8
	1.유동부채	3,316,329.3	3,577,812.6	4,334,646.5
	2.고정부채	3,374,765.0	3,620,889.2	4,422,009.1
	부채총계	5,956,684.5	6,421,138.8	8,748,657.6
	3.자본(기본재산)	5,306,513.3	5,710,173.9	4,869,239.8
	②이익잉여금	-1,195,665.2	-1,062,554.6	-508,282.2

일정기간동의 경영실적으로 평가할 있는 손익계산서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의 백병상당 입원 수익이 민간기관이 84.5억으로 공공기관 67.5억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민간부문의 의료기관이 공공병원에 비해서 중증도의 높음에 기인하는 차이와 경영상의 이익창출에 대한 병원경영 목표상의 차이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¹⁵⁾

이 밖에 비용구조 측면에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비용 차이를 살펴 보면 <표 3-11>에서와 같이 민간병원이 병상당 1.32억원, 공공의료기관이 1.31억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규모별로 공공과 민간병원의 비용구조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대형병원의 경우 국립대학 부속병원이 소속된 500병상 이상군에서는 공공병원이 높게 나타난 반

15) 국내에서 그 동안 병원의 수익자료 획득 어려움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규모별 수익 및 비용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은 몇몇 case study의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면에 규모가 작은 병원군에서는 공공병원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100병상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공공병원군과 민간병원군의 병상당 비용구조는 2배 이상 민간병원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병상 당 비용구조면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차이는 인건비의 구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병원의 인건비는 100병상 당 28.2억임에 비해서 민간병원은 63.9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익과 비용구조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익구조 측면에서 민간병원의 경우 당기손이익 규모가 백병상당 12.8억임에 비해서 공공병원의 경우 4.0억의 적자를 실현하여 향후 수가결정 구조적 측면에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이 국내 의료기관의 공급병상의 절반수준인 규모임을 감안하면 분리하여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표 3-11〉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백병상당 요약 손익계산서(2009)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일 반 병 원						
		평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000병상 이상	500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 병상미만	100병상 이상~300 병상미만	
민간	1)입원수익	8,454,220.6	20,114,631.5	13,100,188.3	9,266,905.7	7,067,664.1	5,148,584.2	6,694,744.2
	2)외래수익	5,382,970.5	12,449,591.0	7,414,357.5	5,380,945.6	4,323,264.3	3,663,158.3	8,508,346.2
	2. 의료비용	13,228,851.2	31,623,226.8	20,186,966.0	13,956,900.5	10,855,513.6	8,362,594.9	13,071,774.7
	1)인건비	6,306,277.8	12,000,955.2	9,004,603.2	6,373,165.0	5,469,404.2	4,644,813.4	6,394,510.9
	2)재료비	4,317,788.3	11,900,775.7	7,297,595.7	4,726,371.3	3,363,273.4	2,381,757.7	3,000,639.0
	3)관리운영비	3,101,987.2	7,721,495.9	3,874,310.4	3,265,860.2	2,714,083.5	2,185,991.1	3,766,126.8
	3. 의료이익(손실)	811,530.9	2,343,700.7	1,238,814.9	656,384.2	416,850.1	583,116.5	2,250,351.3
	4. 의료외수익	557,766.2	2,541,190.0	708,172.3	420,668.4	529,588.8	397,009.0	443,294.1
	5. 의료외비용	1,067,124.2	4,807,279.3	1,864,420.1	799,995.7	702,514.2	651,018.1	1,305,543.5
	6. 경상이익(손실)	251,986.8	77,611.3	37,907.4	277,058.1	246,340.5	245,044.9	999,929.5
	7. 특별이익	15,219.0	13,288.2	7,410.1	19,991.6	24,227.6	10,784.5	0.0
8. 특별손실	5,830.3	10,055.4	3,937.1	571.3	15,261.7	2,661.6	0.9	
9. 세전순이익(손실)	302,403.9	80,844.1	227,858.0	327,549.1	223,170.1	312,442.1	903,404.3	
10. 법인세비용	31,714.8	54,591.1	974.0	19,905.1	31,170.4	32,730.7	162,992.7	
11. 당기순이익(손실)	277,313.7	26,253.1	102,481.8	262,738.0	229,089.2	275,865.1	1,281,286.8	
공공	1)입원수익	6,754,992.3	15,061,375.6	14,545,673.7	8,509,682.1	4,596,843.7	3,803,464.5	2,473,271.3
	2)외래수익	4,852,294.8	8,623,457.7	8,980,542.7	7,842,624.7	3,673,001.0	2,353,877.8	643,412.3
	2. 의료비용	13,138,761.1	23,961,902.5	23,782,510.8	17,984,823.9	9,498,594.2	8,278,068.7	6,115,440.7
	1)인건비	5,303,910.8	10,157,417.1	8,719,242.4	5,909,226.8	4,190,264.7	4,086,139.9	2,816,801.9
	2)재료비	3,577,597.6	8,327,071.1	8,056,044.4	4,918,931.2	2,194,306.7	1,821,387.9	822,765.6
	3)관리운영비	4,149,163.7	5,477,414.3	7,007,224.0	6,960,216.2	3,220,916.7	2,071,481.2	2,475,873.2
	3. 의료이익(손실)	-729,307.1	725,366.0	338,586.6	-1,105,080.2	-245,588.4	-1,153,406.0	-2,799,733.5
	4. 의료외수익	1,468,988.7	2,049,284.3	2,074,600.6	948,622.7	1,280,078.8	1,499,244.9	2,477,499.8
	5. 의료외비용	809,202.4	1,917,077.4	2,806,641.6	461,214.7	459,277.5	623,175.6	82,055.2
	6. 경상이익(손실)	-387,627.8	857,572.9	-393,454.3	-618,073.5	-119,870.5	-728,852.9	-432,327.2
	7. 특별이익	68,156.3	48,025.9	11,735.6	27,908.1	2,852.7	183,704.6	0.0
8. 특별손실	1,866.4	12,790.7	4,477.7	1,135.7	0.0	910.1	0.0	
9. 세전순이익(손실)	-76,361.9	892,808.1	-386,196.4	31,815.6	-40,416.0	-332,712.9	0.0	
10. 법인세비용	-135,585.3	27.9	-125.2	-621,389.7	0.0	0.0	0.0	
11. 당기순이익(손실)	-294,813.6	892,780.2	-386,071.1	24,871.6	-117,017.8	-900,168.0	-404,288.9	

연도별 의료기관의 백병상당 손익구조를 살펴보면 2007~2009년 3개 연도별 입원과 외래부문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대상병원의 수익구조 측면에서 의료이익규모는 연도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도의 경우 적자를 실행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의료비용의 증가가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2〉 연도별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백병상당 요약 손익계산서

구분	2007	2008	2009
1)입원수익	7,156,564.4	7,160,896.9	7,678,724.9
2)외래수익	4,242,069.2	4,467,616.8	5,024,597.6
2.의료비용	11,631,797.5	12,746,327.9	12,699,596.8
1)인건비	5,204,396.8	5,659,343.1	5,817,021.1
2)재료비	3,504,901.5	3,644,531.6	3,957,549.0
3)관리운영비	2,761,952.7	2,990,056.9	3,248,918.7
3.의료이익(손실)	245,082.6	172,919.1	478,711.4
4.의료외수익	673,107.5	764,871.4	773,367.2
5.의료외비용	756,881.6	834,599.6	955,703.7
6.경상이익(손실)	19,984.0	-60,084.6	176,067.2
7.특별이익	265,938.6	149,894.1	26,438.4
8.특별손실	47,579.0	29,124.0	4,546.2
9.세전순이익 (손실)	124,101.6	23,654.1	264,725.6
10.법인세비용	95,569.5	93,192.7	-8,824.6
11.당기순이익(손실)	68,777.8	-26,579.3	219,784.9

병원의 경영분석지표 중에서 성장성지표는 병원의 경영규모 및 병원 운용의 결과가 당해 연도에는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감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정신병원을 제외하고 공공병원군과 민간병원군의 성장성지표는 대체로 양호 성장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당기순이익 증가율지표가 공공 민간병원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성장지표 상대적인 차이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표 3-13〉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성장성 지표

	성장성지표	전체 평균	일 반 병 원							특수 병원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 병원
				1000 병상 이상	500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 병상 이상	300병 상 이상·5 00병상 미만	100병상 이상·300병 상미만			
민간	총자본 증가율 (%)	7.5	7.6	9.2	8.8	5.6	9.3	6.6	8.5	5.3	
	자기자본증가율 (%)	21.04	21.40	12.70	28.00	-8.80	31.30	33.30	34.60	12.00	
	순이익 증가율 (%)	52.2	51.7	28.9	-25.4	89.2	75.6	44.8	10.7	61.8	
	의료수익증가율 (%)	11.4	11.5	12.5	8.9	10.6	15.9	8.7	14.7	9.4	
	입원수익증가율 (%)	10.3	10.4	10.7	7.0	7.4	21.4	6.5	-0.8	5.4	
	외래수익증가율 (%)	17.7	19.0	15.5	12.1	16.9	21.1	23.6	19.2	-15.6	
공공	총자본 증가율 (%)	12.3	11.2	24.6	16.1	6.6	7.7	13.8	6.6	27.1	
	자기자본증가율 (%)	8.50	7.22	33.2	40.1	5.4	7.8	-10.7	5.9	25.1	
	순이익 증가율 (%)	-29.0	-50.4	75.4	28.5	-31.4	-44.2	-73.5	-284.2	306.8	
	의료수익증가율 (%)	12.5	10.3	11.7	10.7	11.1	14.0	7.3	3.8	46.3	
	입원수익증가율 (%)	9.8	8.2	10.6	9.2	8.9	12.6	3.5	4.5	83.7	
	외래수익증가율 (%)	15.4	15.6	13.5	14.4	14.0	21.5	15.2	0.8	4.8	

병원의 경영분석지표 중에서 성장성지표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도 지표가 양호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성지표가 갖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양호한 수련병원이 순이익증가율, 의료수익증가율 등이 타 병원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14〉 연도별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성장성 지표

성장성지표	2000	2007	2008	2009
총자본 증가율 (%)	2.3	7.5	6.4	8.6
자기자본증가율 (%)	3.1	8.2	1.9	17.91
순이익 증가율 (%)	-38.3	12.3	-7.0	31.0
의료수익증가율 (%)	1.3	9.9	6.8	11.6
입원수익증가율 (%)	5.4	9.8	5.6	10.3
외래수익증가율 (%)	0.7	11.1	8.3	17.1

참고로 국내 의료기관의 경영분석지표 중에서 성장성지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치가 정립된 바는 없지만, 타 산업분석지표를 기준으로 병원의 성장성지표를 평가한다는 다음과 같다.

〈표 3-15〉 병원의 성장성지표 평가기준치

지표(비율명)		판 정				
		A	B	C	D	E
성장 성 지표	(1)입원수의증가율	> 15.0	10.0~14.9	5.0~9.9	0.0~4.9	0.0 >
	(2)외래수의증가율	> 15.0	10.0~14.9	5.0~9.9	0.0~4.9	0.0 >
	(3)의료수의증가율	> 15.0	10.0~14.9	5.0~9.9	0.0~4.9	0.0 >
	(4)입원환자증가율	> 15.0	10.0~14.9	5.0~9.9	0.0~4.9	0.0 >
	(5)외래환자증가율	> 15.0	10.0~14.9	5.0~9.9	0.0~4.9	0.0 >

자료: 병원경영연구원 내부자료(2010)

대체적으로 병원의 성장성 지표는 민간과 공공의료기관 모두 2009년도의 경우 양호한 결과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분석대상 의료기관이 경영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B군에 밀집해 있는데, 이는 전국병원 중에서 수련병원군이 상대적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그룹에 속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평가된다.

병원의 활동성지표는 병원에 투입된 자본이 일정 기간 중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표 3-165>와 같이 총자본 회전기간은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에 비해서 2배 이상 짧게 나타났다. 그리고 의료미수금 회전기간도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에 비해서 짧게 나타났다.

〈표 3-16〉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활동성 지표

	활동성지표	전체 평균	일 반 병 원								특수 병원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 병원	
				1000 병상이상	500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 병상미만	100병상 이상-300 병상미만			
민간	총자본 회전기간 (일)	360.3	359.1	289.2	274.8	399.3	375.6	348.1	482.6	387.6	
	의료 미수금 회전기간 (일)	41.8	42.3	36.8	39.9	46.1	43.1	41.9	35.9	30.8	
	재고자산보유일 수 (일)	12.1	21.9	4.6	6.3	11.7	17.7	22.9	67.1	77.5	
	의료 미수금 회전율 (회)	0.7	-1.1	0.3	0.1	-1.0	-0.7	-1.6	-6.1	-2.0	
공공	총자본 회전기간 (일)	646.3	576.0	309.0	346.6	481.6	685.5	693.8	387.3	1,392.0	
	의료 미수금 회전기간 (일)	51.8	51.9	43.2	40.2	60.9	55.5	52.4	27.9	50.6	
	재고자산보유일 수 (일)	21.9	21.9	4.6	6.3	11.7	17.7	22.9	67.1	77.5	
	의료 미수금 회전율 (회)	-1.1	-1.1	0.3	0.1	-1.0	-0.7	-1.6	-6.1	-2.0	

연도별 병원의 활동성지표는 <표 3-17>과 같다. 표와 같이 총자본 회전기간은 연도별로 2007년도에 비해서 2008~2009년도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병원의 투자자본이 회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료미수금 회전기간은 연도별 짧아지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이유는 병원의 의료미수금관리의 효율성 제고효과와 함께 심사평가원의 미수금에 대한 청구기간의 단축 효과가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표 3-17〉 연도별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활동성 지표

활동성지표	2000	2007	2008	2009
총자본 회전기간 (일)	401.5	341.9	368.0	431.5
의료 미수금 회전기간 (일)	64.5	50.7	48.0	44.2

수련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분석지표 중에서 활동성 지표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기준치는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는 전국병원의 활동성 지표를 그룹화 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화 한 것으로 공공병원군이 대체로 낮은 등급화 수준인 D군에 속하는 병원군이 많은 반면, 민간병원군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A~B군에 속하는 병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활동성 지표 평가기준치

지표(비율)명		판 정				
		A	B	C	D	E
활동성 지표	(1)총자본회전기간(일)	< 320	320~349	350~379	380~409	410 <
	(2)재고자산보유일수(일)	> 80	60~79	40~59	20~39	20 >
	(3)의료미수금회전율(회)	> 20.0	19.9~15.0	10.0~14.9	9.9~5.0	5.0 >
	(4)의료미수금회전기간(일)	< 20.0	20~39.9	40~59.9	60~79.9	80 <

자료: 병원경영연구원 내부자료(2010)

의료기관의 수익성지표는 병원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비율로서 자본이용의 효율성, 이익창출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내 의료기관의 유형별, 규모별 수익성 분석결과는 <표 3-19>와 같다. 2009년도 기준으로 민간의료기관의 평균 의료수익 의료이익률(정신병원 제외)은 4.6%로 양호한 편이지만 공공의료기관은 -11.0%를 적자를 실현하고 있어 공공과 민간병원군의 수익성 측면에서 차이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병원규모별로는 병상규모가 큰 병원그룹은 수익률이 양호한 반면에 중소병원군의 수익률은 적자를 실현하고 있어 병원규모가 클수록 병원경영에 유리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 3-19〉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수익성 지표

	수익성지표		전체 평균	일 반 병 원						특수 병원	
				소규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000 병상이 상	500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 병상미 만	100병상 이상-300 병상미 만		
민간	총자본 순이익율 (%)	2.4	2.3	0.5	-0.4	1.9	2.9	3.6	6.6	3.1	
	의료수익 순이익률 (%)	1.7	1.8	0.4	-0.4	1.7	1.7	2.2	8.5	-0.1	
	총자본 의료이익율 (%)	5.4	5.5	9.5	6.5	4.6	5.5	4.4	8.7	2.9	
	의료수익 의료이익율 (%)	4.3	4.6	7.7	5.8	4.2	3.0	3.9	10.7	-3.1	
공공	총자본 순이익율 (%)	-2.1	-3.0	4.9	-2.1	-0.4	-1.2	-8.1	-4.7	10.6	
	의료수익 순이익률 (%)	-3.1	-4.1	4.4	-1.7	-1.7	-2.2	-11.2	-6.3	22.3	
	총자본 의료이익율 (%)	-6.0	-6.1	4.3	-0.3	-4.6	-3.8	-12.1	-12.6	-1.9	
	의료수익 의료이익율 (%)	-11.1	-11.1	3.8	0.2	-12.9	-11.2	-16.0	-18.6	-57.2	

의료기관의 수익성지표를 평가하기 위해서 수련병원과 전국병원군의 수익성 분석지표를 참고로 그룹화하여 평가해 보면 연간 10%이상이면 매우 양호군, 5~9.9%미만의 경우 양호한 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공공병원군의 경우 대체로 불량한 반면에 민간병원군의 양호한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수익성 지표 평가기준치

지표(비율)명		판 정				
		A	B	C	D	E
수익성 지표	(1)총자본의료이익율	> 10.0	6.0~9.9	2.0~5.9	-2.0~1.9	-20. >
	(2)의료수익의료이익율	> 10.0	5.0~9.9	0.0~4.9	0.0~4.9	-5.0 >
	(3)총자본순이익율	> 10.0	5.0~9.9	0.0~4.9	0.0~4.9	-5.0 >
	(4)의료수익순이익율	> 10.0	5.0~9.9	0.0~4.9	0.0~4.9	-5.0 >

병원의 안전성지표는 경영주체로서 병원자본의 건실성, 지불능력, 부채상환능력, 자본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이다. 병원의

설립주체별, 규모별 분석한 분석지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병원설립 주체별 기본재산비율을 살펴보면 공공병원군이 안전성 측면에서 민간병원군보다도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산의 유동성을 평가할 있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도 민간병원에 비해서 공공병원이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표 3-21〉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안전성 지표

	안전성지표		전체 평균	일 반 병 원							특수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소계	1000 병상이 상	500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병 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 병상미 만	100병상 이상~300 병상미 만		
민간	기본재산비율	(%)	35.2	34.2	29.5	25.6	26.8	39.4	38.0	52.8	61.0
	타인자본 의존도	(%)	64.8	65.8	70.5	74.4	73.2	60.6	62.0	47.2	39.0
	유동비율	(%)	131.2	129.5	109.2	120.2	107.5	114.0	108.4	431.5	170.8
	당좌비율	(%)	126.7	125.5	110.2	117.4	104.1	109.7	103.4	420.7	158.2
	고정비율	(%)	173.6	176.0	194.4	222.6	-50.9	212.4	250.3	362.1	120.2
	고정장기 적합율	(%)	119.5	118.8	91.8	112.6	126.5	108.6	129.0	120.7	132.6
공공	기본재산비율	(%)	53.2	50.7	29.9	34.5	66.1	61.0	35.1	84.8	98.1
	타인자본 의존도	(%)	46.8	49.3	70.1	65.5	33.9	39.0	64.9	15.2	1.9
	유동비율	(%)	230.1	223.2	177.0	163.1	310.5	239.5	184.0	162.4	598.8
	당좌비율	(%)	221.5	215.6	174.9	160.2	300.0	228.9	177.9	156.0	559.8
	고정비율	(%)	83.3	83.5	147.8	202.4	126.7	103.1	-13.4	104.8	80.0
	고정장기 적합율	(%)	88.4	88.8	77.5	80.6	81.2	88.1	100.2	90.9	79.9

또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자기자본 비율은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동비율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병원의 자산 중에서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대하고 있는데,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시설과 장비 등 고정비에 투자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22〉 연도별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안전성 지표

안전성지표		2007	2008	2009
기본재산비율	(%)	35.0	36.3	40.0
타인자본 의존도	(%)	64.5	62.3	60.0
유동비율	(%)	171.1	141.2	155.4
당좌비율	(%)	148.4	126.9	150.0
고정비율	(%)	89.4	120.9	150.2
고정장기 적합율	(%)	125.1	126.9	111.2

병원의 경영분석지표로서 안전성 평가기준은 자기자본비율 80%이상, 유동비율 120%이상, 고정비율 100%미만인 경우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공공의료기관의 안전성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종합병원의 규모가 작은 병원군들의 안전성지표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병원의 경영분석지표로서 진료실적지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 하면 병원의 진료실적은 병원수익의 90%이상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대상 병원의 병상이용률은 74.6%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종합병원의 경우 규모에 따른 변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병원급의 경우는 병상이용률이 47.3%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병원서비스의량을 평가할 수 있는 100병상 당 외래환자수는 종합병원의 경우 병상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에 병상규모가 작은 병원군은 낮게 나타나고 있어 대형병원으로 외래환자의 쏠림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3〉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진료실적 지표

진료실적 I		전체 평균	일 반 병 원							특수 병원
			평균	종 합 병 원					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500 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 병상미만	100병상 이상-300 병상미만		
				1000 병상 이 상	500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외래환자 초진율	(%)	24.0	24.7	19.5	20.9	25.5	25.5	26.2	25.1	8.0
외래환자 입원율	(%)	4.6	4.3	4.6	4.6	4.4	4.0	4.1	4.3	12.5
병상 이용율	(%)	74.8	74.6	77.5	77.0	77.3	74.8	76.1	47.7	79.3
병원 이용율	(%)	134.7	136.5	142.5	136.6	142.1	134.1	137.9	115.3	94.8
병상 회전율	(회)	31.0	32.2	42.7	37.5	30.7	28.3	29.8	44.3	3.0
병상 회전간격	(일)	4.5	3.1	1.1	1.2	2.0	3.9	2.2	14.4	36.4
응급 환자율	(%)	8.0	8.0	4.9	6.7	6.3	6.9	9.8	8.1	-
평균 재원일수	(일)	18.0	12.1	7.7	8.6	11.8	12.2	11.8	27.1	147.9
입원대 외래환자 비율	(%)	2.9	3.0	2.9	2.6	2.4	2.4	2.6	10.6	0.2
100병상당1일평균외래 환자수	(명)	282.1	294.0	345.7	306.3	269.1	262.9	283.7	499.0	18.1
100병상당1일평균재원 환자수	(명)	83.3	83.4	89.2	87.2	85.7	82.6	84.3	59.8	80.1

〈표 3-24〉 연도별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진료실적 지표

진료실적 I		2000	2007	2008	2009
외래환자 초진율	(%)	-	22.6	23.1	24.0
외래환자 입원율	(%)	5.1	5.0	4.9	4.6
병상 이용율	(%)	79.4	84.7	83.7	74.8
병상 회전율	(회)	24.4	28.8	29.7	31.0
병상 회전간격	(일)	-	4.5	4.8	4.5
응급 환자율	(%)	6.1	7.5	7.6	8.0
평균 재원일수	(일)	25.1	20.9	20.4	18.0
입원대 외래환자 비율	(%)	2.0	2.5	2.8	2.9
100병상당일평균 외래환자수	(명)				282.1
100병상당1일 평균재원환자수	(명)				83.3

병원의 설립 유형별, 병원의 병상 규모별 생산성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병원의 직원1인당 의료수익은 병원 규모가 클수록 높아 1000병상 이상 병원군의 경우 월 평균 10백만이 넘어서고 있지만 중소 병원군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병상당 의료수익도 대

형병원군의 경우 18~27억 수준이지만 중소병원군의 경우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7.5억으로 나타나 병원규모별 의료수익의 차이가 높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3-25〉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생산성 지표(2009)

(단위: 천원,%)

생산성지표	전체평균	일 반 병 원							특수 병원	
		평균	종 합 병 원					병원		정신 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500 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 병상미만	100병상 이상-300 병상미만			
			1000 병상 이상	500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직원1인당월의료수입	7,009.9	7,132.7	10,297.4	8,552.4	7,682.8	6,574.9	5,951.8	6,941.4	4,728.3	
백병상당 월평균 부가가치	531,581.0	556,071.4	1,242,435.0	839,688.5	558,523.9	453,228.9	373,722.0	583,840.5	76,468.4	
백병상당 월평균 의료수입	1,141,579.3	1,193,426.3	2,763,657.7	1,818,368.9	1,305,520.6	950,151.3	750,563.5	1,081,920.7	178,088.4	
총자산 투자효율	54.4	55.6	55.2	70.3	53.4	52.3	51.2	59.6	33.2	
의료수입 부가가치율	45.9	46.3	44.3	46.2	43.9	47.2	48.4	42.8	38.2	
인건비 투자효율	103.2	105.2	129.4	114.9	108.2	102.0	96.9	103.3	66.0	

이 밖에 병원의 설립 유형별, 병원의 병상 규모별 인력지표를 살펴보면 <표 3-26>과 같다. 100병상당 병원의 직종별 인력수준은 의사직과 간호직의 경우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의사직의 경우 대형병원의 경우 교육기관으로 전임교수가 높은 반면에 중소병원군은 최소 수련전임의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간호직의 경우 대형병원에서는 간호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서 병상당 간호사 배치인력을 높이려고 노력한 결과, 중소병원군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 1000병상 이상의 병원군에서는 백병상당 간호사 평균인력수가 111.5명인 반면에 중소종합병원인 경우 56.1명, 병원급은 51.8명으로 2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병원별 간호사 서비스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6〉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인력 지표(2009)

(단위: 명)

백병상당 직종별인력		전체 평균	일 반 병 원						특수 병원	
			평균	중 합 병 원						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500 병상이상	300병상 이상-500 병상미만	100병상 이상-300병 상미만		
				1000 병상이상	500병상 이상-1000병 상미만					
의사직소계	(명)	25.92	27.19	56.30	49.37	29.66	20.83	15.46	21.85	5.07
전문의	(명)	14.82	15.57	27.01	22.03	15.52	13.53	11.83	16.86	2.55
간호직소계	(명)	67.54	70.34	115.42	90.87	72.26	68.10	56.51	51.84	21.47
간호사	(명)	53.64	56.20	93.05	73.41	58.84	54.83	44.61	35.58	11.57
약무직소계	(명)	3.08	3.22	5.55	4.35	3.73	2.80	2.37	2.53	0.86
의료기사직소계	(명)	17.89	18.84	29.23	24.88	18.71	17.01	15.10	21.35	2.25
행정관리직소계	(명)	14.34	14.89	18.45	15.39	14.08	13.41	14.11	23.78	5.23
기타직소계	(명)	17.21	17.78	29.07	23.13	17.25	15.88	14.23	22.18	7.86

연도별로 병원의 병상 규모별 인력지표를 살펴보면 백병상 병원의 직종별 인력수준은 의사직과 간호직 모두 2000년도에 비해서 2007~2009년도가 높아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백병상당 간호사 인력은 간호인력 가산제의 도입 영향에 따라서 2000년도에 비해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간호직 증가추세에 비해서 의사직과 기타 의료기사직의 인력은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완만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3-27〉 연도별 의료기관 유형별, 규모별 인력 지표

백병상당 직종별인력		2000	2007	2008	2009
의사직소계	(명)	20.1	24.4	24.8	25.9
전문의	(명)	10.0	13.4	13.9	14.8
간호직소계	(명)	47.9	59.8	61.1	67.5
간호사	(명)	36.9	49.2	50.4	53.6
약무직소계	(명)	2.4	2.7	2.9	3.1
의료기사직소계	(명)	12.3	16.2	16.6	17.8
행정관리직소계	(명)	11.3	13.5	13.7	14.3
기타직소계	(명)	2.8	6.7	6.9	17.2

3. 병원의 경영분석 결과

가. 손익관계 비율지표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원유형별, 종별 의료이익률은 평균적으로 흑자를 실현하고 있어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분석대상 병원의 수익률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로서는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본 분석대상병원이 수련병원으로서 경영실적이 양호한 병원군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표 3-28〉 병원설립 유형별, 의료기관 종별 의료이익률(2009)

구 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료수익의료이익률	5.06%	3.07%	7.80%
의료수익경상이익률*	1.83%	0.66%	5.07%
의료수익순이익률**	1.88%	0.96%	3.46%

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단과수련병원으로 안과전문병원이 주 분석대상으로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병원종별 분석에서 수익성지표는 병원의 종별로 차이가 많았다. 상급종합병원군의 경우 연간 병상당 매출규모는 2.18억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종합병원군은 1.4억, 병원군은 1,26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의 병상규모별 수익성의 차이는 병상당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비례하여 병상당 비용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병원설립 유형별, 의료기관 종별 병상당 의료수익과 비용(2009)

구 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병상 당 의료수익(백만원)	218.2백만	140.0백만	126.4백만
병상 당 의료비용(백만원)	207.2백만	132.1백만	113.3백만

병원이 소재한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군읍면 지역의 순으로

병상 당 의료수익 및 의료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 지역 병원의 진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0〉 병원소재지별 의료수익과 의료비용(2009)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읍면
의료수익 의료이익률	4.3%	2.6%	2.5%
병상 당 의료수익(백만원)	135.5	122.0	86.7
병상 당 의료비용(백만원)	129.8	119.7	84.4
총자산 의료이익률(%)	4.3%	1.7%	-0.4%

수련병원의 의료수익 의료이익률은 2009년도 기준으로 2.9%로 국내 제조업 5.2%, 서비스업 4.0%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서 이와 같은 결과는 보건복지부의 2008년도 ‘종합병원 경영수지분석’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31〉 의료기관 타산업과 의료이익률 비교표

구 분	의료기관 (2009)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09	
		제조업	서비스업
의료수익의료이익률	2.89%	5.15%	4.03%
의료수익경상이익률*	0.68%	5.95%	4.96%
의료수익경상이익률**	1.02%	4.89%	3.91%

주) 일반기업의 이익률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09자료’참고하였음.

이 밖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본재산비율은 36.3%로서 타 산업(제조업 47.7%, 서비스업 41.9%) 비해 낮은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표 3-32〉 병원과 타 산업의 기본재산 비율(2009)

구 분	의료기관	제조업	서비스업
기본재산 비율	36.3%	47.7%	41.9%

지역별로 의료기관의 기본재산비율은 군읍면 지역소재병원이 낮았고, 도시지역의 재무적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소재지별 병원과 타 산업의 기본재산 비율(2009)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읍면
기본재산 비율	36.3%	40.5%	31.0%

나. 소결론: 종합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수지는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흑자 수준이지만 수익성과 재무적 안정성이 타 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산업은 수익 대비 인건비가 44.2% 로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임을 알 수 있으며, 인건비는 중소도시 및 군읍면지역이 높게 나타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수익 대비 비용구조면에서 군읍면지역과 중소도시의 비용구조가 대도시 지역소재 병원군에 비해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34〉 병원의 소재지별 의료수익 대 비용요소별 비율(2009)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읍면
의료수익 대 인건비	44.2	46.7	44.3
의료수익 대 관리비	29.0	28.7	30.8
의료수익 대 재료비	24.5	23.6	24.8
소계	96.6	99.5	99.9

또한, 의료기관 종별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의 비용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 42.9%, 종합병원 43.8%, 병원급이 48.4%로 나타나 병원규모가 작을 수록 인건비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병원의 비용요소 중에서 재료비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급 순으로 나타나 환자중증도를 비례적으로 반증하고 있다. 또한, 병원의 관리비용은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비율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의료기관 종별 주요비용 구성 비율(2009)

(단위: %)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사직	16.5%	16.7%	21.6%
간호직	13.5%	14.9%	9.9%
기타직	12.9%	12.2%	16.9%
인건비계	42.9%	43.8%	48.4%
약품비	19.9%	15.8%	7.8%
진료재료비	16.5%	12.9%	12.6%
급식재료비	0.8%	1.5%	1.3%
재료비계	37.2%	30.2%	21.7%
복리후생비	4.2%	3.8%	4.2%
수도광열비	1.8%	2.3%	1.0%
감가상각비	1.8%	6.3%	6.6%
기타관리비	12.2%	13.6%	18.6%
관리비계	19.9%	25.9%	30.4%
의료사업비	100.0%	100.0%	100.0%

이와 같은 병원경영수지 분석결과는 병원의 종별, 설립주체별, 소재지별, 규모별 수익구조 및 비용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산정과정에서 의료기관 설립유형별(공공과 민간),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 종합, 병원)로 수익과 비용구조에 대한 분석접근법에 가중치가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미국 병원의 지출 및 수입 현황¹⁶⁾

여기서는 외국 병원의 지출과 수입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는데 자료 구득의 한계 상 미국 병원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지출 현황

미국 전체 병원의 인건비 비율은 총 의료비용 대비 약 45%이며, 총 의료수익 대비로는 약 40%를 차지한다. 최근 그 비중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병원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일반관리운영비가 총 의료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로 지난 10여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표 3-36〉 미국 병원의 인건비 및 관리비 비율: 2001-2009

	2001	2005	2009
의료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	47.17	46.31	44.97
의료비용 대비 관리비 비율(%)	31.43	30.21	3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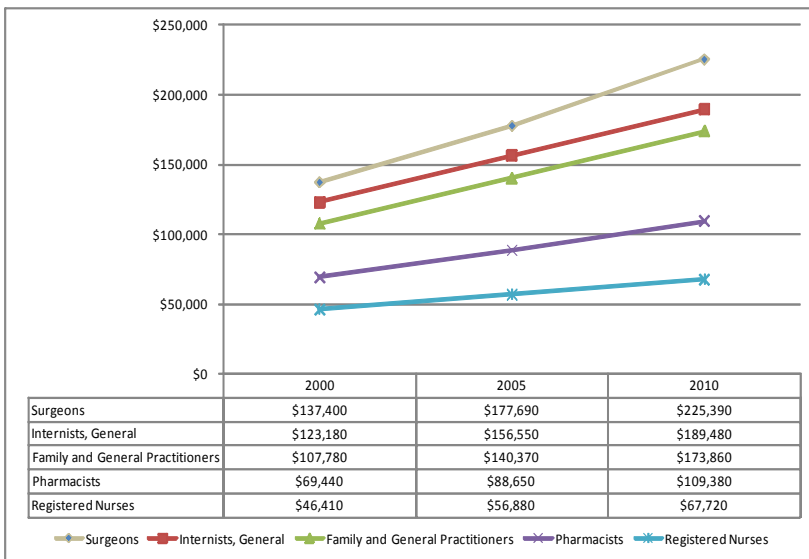
나. 의료인력별 연간 평균임금 현황

미국의 주요 의료인력별 연간임금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외과 의사들(Surgeons)의 평균 임금은 \$225,390, 일반내과 의사들(General Internists)은 \$189,480, 가정의 또는 일반의들(Family and General Practitioners)은 \$173,860이다. 이는 전국적인 평균치이며, 실제 의사가 근무하는 의원이나 병원의 규모, 설립형태, 지역 등에 따라 연간임금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약사의 경우는 2010년 현재

16) 미국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의 Hospital Cost Reports와 Thompson Benchmark 자료에 바탕을 둔 것으로, 미국 전체 병원의 중위수(median)임

전국평균 임금은 \$109,380이며, 간호사는 그 뒤를 이어 \$67,720의 연간임금을 받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의사군과 간호사의 임금격차가 지난 10여년간 더 커졌다는 것이다. 2000년에 일반내과 의사들의 연간임금이 간호사 연간임금의 2.65배였으나, 2010년에는 2.80배로 증가하였다.

[그림 3-1] 미국 주요 의료인력별 연간임금 평균: 2000-2010¹⁷⁾



다. 수입 현황

지난 10여년간 미국 병원의 조정환자 1인당 의료수익은 2001년 \$6,601에서 2009년 \$8,959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동 기간에 조정환자 1인당 의료비용 또한 2001년 \$5,809에서 2009년 \$8,510로 약 1.5배 가량 증가하였다. 환자진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수익과 의료비용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의료이익률은 2.6%에서 3.9% 선을 유지하고

17) 미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의 직종별 임금자료를 분석함

있다. 의료외수익과 의료외비용 등을 모두 고려한 당기순이익률은 2.8%에서 4.2% 대를 기록하였다. 2009년에 의료이익률에 비해, 당기순이익률이 다소 크게 감소한 이유는 2008-2009년 기간 동안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병원들이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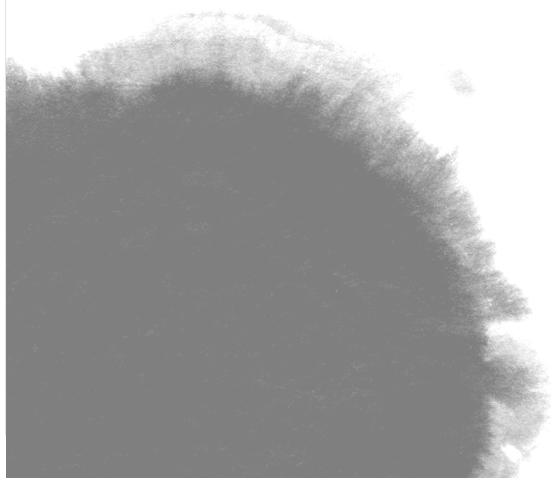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그림 3-2] 미국 병원의 수익성 지표(2001-2009)¹⁸⁾



18) 미국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의 Hospital Cost Reports와 Thompson Benchmark 자료에 바탕을 둔 것으로, 미국 전체 병원의 중위수(median)임

04

결론 및 정책제언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건강보험급여 지출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비 지출도 급증하고 있으며, 환산지수 산출모형인 지수모형, SGR모형, 원가모형 중 특히 원가모형에서 자료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출구조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수입에 대한 구조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병·의원의 현재 수입구조를 분석하여 적정한 또는 표준적인 수입구조에 대하여 의원의 개원비용 및 의원 경영수지를 분석하였고, 수련병원에 대하여 3년간 경영수지를 분석하였으며, 외국사례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의원의 개원 비용

의원의 개원 비용이 지역별, 전문과목별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평균 9,674.6만원이었으며 1억원~2억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30.2%로 가장 많았음.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평균 1억 2945.5만원이었으며 정형외과가 평균 2억 3625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불하였음. 의료장비 등 시설설비 투자비용은 평균 1억 9125.6만원이었으며 2억원 이상을 지불하였다는 응답자가 32.6%로 가

장 많았다.

개원비용 전체에서는 재활의학과(평균 9억 400만원)와 정형외과(8억 8,088.2만원)가 가장 많이 지불하고 가정의학과(평균 2억 2,934.6만원)가 가장 적게 지불하였다.

개원비용 조달을 보면, 부채를 안고 개원한 의원이 68.4%였으며, 부채의 출처는 대부분 금융기관이었다(평균 4억 3천만원으로 월 평균 262만원의 이자 지급).

나. 의원의 경영 수지 분석(2008년)

2008년 지역별, 전문과목별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연간 평균 매출액은 4억 7,100만원 정도였으며 정형외과와 안과, 재활의학과 의원의 평균 매출액이 각각 7억 2,700만원과 7억 700만원, 6억 1,100만원으로 높고, 가정의학과(2억 8,900만원)와 이비인후과(3억 7,200만원)의 매출액이 비교적 낮았다.

비용 및 손익 현황을 보면, 연간 평균 비용은 3억 600만원 정도였고 안과(5억 900만원), 정형외과(5억 100만원), 재활의학과(4억 500만원)가 지출 비용이 높았으며 가정의학과(1억 8,400만원)와 이비인후과(2억 3,700만원)가 낮았다.

순이익은 매출액과 비례하여 정형외과(2억 2,600만원), 재활의학과(2억 600만원), 안과(1억 9,800만원) 등이 순이익도 높은 편이었고, 마찬가지로 가정의학과(1억 400만원)와 이비인후과(1억 3,500만원) 등은 순이익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 당 순이익(단독 및 공동 개원 전체): 전체 평균 원장 당 순이익은 1억 4,100만원 정도이며, 의원당 순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등의 경우 원장당 순이익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당부분이 공동개원의 영향에 의한 것이며 산부인

과의 경우 의원당 순이익은 186,129,216원이었지만 원장당 순이익은 131,841,528원으로서 전체 평균보다도 약간 낮은 편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향후 경영에 대하여 개원의들이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진료영역의 확장에 관심이 많았다. 예를 들면 비만클리닉, 건강검진, 만성질환관리, 대체의학 시술, 건강기능식품판매 등의 순으로 확장 진료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다. 수련병원(240여개) 경영수지 분석

2007~2009년 3개년간의 의료수익은 2007년 이후 3년 동안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은 전년 대비 6.1% 증가하였으며, 2009년은 10.7% 증가하였고, 입원 및 외래 수익이 모두 증가하였다.

수련병원의 연도별 비용 변화 추이 역시 2007년 이후 3년 동안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8년은 전년 대비 16.0% 증가하였으며, 2009년은 7.8% 증가하였다. 의료비용 가운데 인건비 비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주요 인력별 3개년간 인건비 변동을 보면 의사(전문의, 레지던트)와 간호조무사의 인건비는 감소하였고, 간호사의 인건비는 증가하였다. 또한 재료비 및 관리비는 2007년에 비해 2009년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유형별 2009년도 건강보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주요 4대 비용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진료행위료 46.3%, 기본진료료 22.1%, 약품비 21.8%, 재료대 9.8%로 나타났다.
-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품비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기본진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환자 중증도에 따른 약품비의 비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40개 수련병원의 2009년도 의료기관 종별로 2009년도 의료이익률

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이익률이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수익성은 상급종합과 병원급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익률이 양호한 이유는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본 분석대상병원이 수련병원으로서 경영실적이 양호한 병원군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도 병상당 의료수익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군의 경우 2.18억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종합병원급은 1.4억원, 병원급은 1.26억원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병원의 규모별 수익성의 차이는 단위 병상당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비례하여 병상당 비용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지역별 의료수익 및 비용을 비교해 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군읍면 지역의 순으로 병상당 의료수익 및 의료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 지역 병원의 진료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2009년도 수련병원의 의료수익 의료이익률은 2.9%로 국내 제조업 5.2%, 서비스업 4.0%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의료기관 종별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의 비용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 42.9%, 종합병원 43.8%, 병원급이 48.4%로 나타나 병원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병원의 비용요소 중에서 재료비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급 순으로 나타나 환자중증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의 관리비용은 병원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서 2009년간 백병상당 인력지표를 살펴보면 의사직은 20.1명→25.9, 약사직은 2.4명→3.1명, 의료기사직은 12.3명→17.8명, 행정관리직은 11.3명→14.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특히 간호직은 47.9명→67.5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간호등급제 도입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되며 중소병원에서의 간호사 구직 노력과 반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2007년에서 2009년간 직종별 1인당 평균 인건비를 살펴보면 전문의

9천 6백만원→1억 7백만원, 간호사 2천 5백만원→3천 1백만원, 약사 4천 1백만원→4천 2백만원로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간호사 인건비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라. 외국 사례 분석: 미국 병원 경영 수지 분석

미국 병원의 인건비 비율은 총 의료비용 대비 약 45%이며, 총 의료 수익 대비로는 약 40%를 차지하였다. 최근 그 비중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병원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일반관리비가 총 의료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로 지난 10여년간(2001~2009) 큰 변화가 없었다(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의 Hospital Cost Reports와 Thompson Benchmark 자료).

미국의 주요 의료인력별 연간 임금소득 자료에 따르면(미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0년 현재 외과 의사(Surgeons)의 평균 소득은 \$225,390, 일반내과 의사(General Internists)는 \$189,480, 가정의 또는 일반의(Family and General Practitioners)는 \$173,860임. 이는 전국적인 평균치이며 실제 의사가 근무하는 의원이나 병원의 규모, 설립형태, 지역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약사의 경우는 \$109,380이며, 간호사는 그 뒤를 이어 \$67,720이며, 의사군과 간호사의 임금격차가 지난 10여년간 다소 벌어졌는데 2000년 일반내과 의사의 연 평균 소득이 간호사의 2.65배였으나, 2010년에는 2.80배로 증가하였다.

2. 정책제언

우리나라는 최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가장 빠르게 개선한 국가 중 하나지만, 최근의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적정화를 기하고, 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에 대하여 의원, 수련병원,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강보험재정 절감 및 의료공급자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원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의원의 경우 스스로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 중 수입증대 방안으로는 진료영역 확대, 의원의 규모확대, 진료시간 연장 등이 있으며, 비용절감 방안으로는 관리비 축소, 인력 감축, 공동개원, 공동구매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의원들은 진료영역의 확대의 고려는 현행 전공의 교육체계와 전문과목의 구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이는 곧 수련병원에서의 교육과 훈련이 개원의의 실제 진료분야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관점에서 단골의사제도이든 만성질환 관리의사제도이든 일차의료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의원의 경영수지가 호전되면서 효율적인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의료계에서 반대하여 만성질환관리 의사제도가 원래 취지가 퇴색되기는 하였으나 일단 시작이 되었으므로 향후 점진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병원의 경영수지 분석결과는 병원의 종별, 설립주체별, 소재지별, 규모별 수익구조 및 비용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산정과정에서 의료기관 설립유형별(공공과 민간),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 종합, 병원)로 수익과 비용구

조에 대한 분석접근법에 가중치가 달리 적용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병원 중별 환산지수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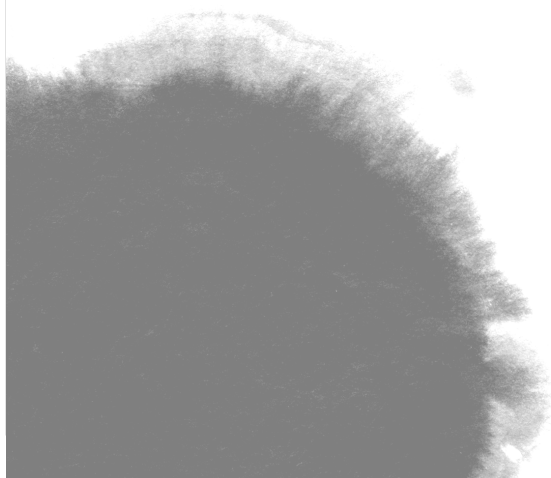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또한 분석대상인 수련병원은 경영상태가 호전되면서 병원인력 중 간호인력 비중과 인건비 수준도 급증하였는데, 이는 간호등급제의 과실이 집중되는 현상으로서 중소병원에서의 간호사 구직난을 고려할 때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예: 간호조무사)의 인정에 관한 문제의 해결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0). 진료비 통계지표.
- 대한병원협회 내부자료(2009)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2002). 의원급 의료 기관의 원가분석 연구.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2004). 산부인과 의원의 실태분석.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2005). 의원급의료기관 경영분석 연구.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2010). 의원경영실태조사 분석.
- 임금자 최진우. 의원 경영실태조사(2009)



부 록



[부록 1 : 2007~2009년 연도별 주요비용 및 인력지표]

의료기관백병상당손익계산서(2007)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전체 평균	일 반 병 원							정신 병원
		평균	중 합 병 원				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500병상 이상	300병상이 상 ~500병상 미만		100병상이 상 ~300병상 미만	
			1000병상이 상	500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1.의료수입	11,590,032.6	10,447,703.6	23,559,533.5	18,719,327.3	13,482,934.3	9,407,650.4	7,778,202.8	11,941,912.6	1,651,088.5
1)인원수익	7,156,564.4	6,380,726.7	14,195,149.2	12,025,838.3	7,999,391.8	5,524,387.3	5,411,482.6	5,467,047.7	1,228,859.0
2)외래수익	4,242,069.2	3,969,547.8	8,486,307.9	6,385,703.9	4,855,760.4	3,306,992.8	2,786,987.0	6,393,614.9	399,193.8
3)기타의료수익	688,594.6	678,570.2	882,861.1	906,770.2	548,397.6	634,624.1	666,416.2	1,146,285.5	17,865.5
①건강진단수익(종합건강진단)	416,103.3	383,233.2	885,340.6	665,294.9	353,673.5	326,474.8	320,457.5	26,748.6	334,357.3
①건강진단수익(일반건강진단)	238,337.8	249,992.3	62,973.8	230,600.7	162,953.9	353,272.1	243,272.6	180,676.2	18,688.3
②수탁검사수익	53,215.6	56,330.8	46,416.2	75,698.3	34,471.3	35,882.1	86,349.0	42,999.0	-
③제증명료수익	37,411.8	32,860.1	61,643.2	56,542.4	41,675.9	25,810.8	30,428.0	32,141.2	4,047.6
④기타	186,587.5	250,475.3	-39,814.8	102,600.9	63,667.1	124,124.1	287,972.0	1,590,721.4	66,748.8
2.의료비용	11,631,797.5	10,449,994.2	23,044,332.6	18,332,911.4	13,389,909.3	9,464,128.9	7,796,551.1	10,696,582.4	4,139,268.3
1)인건비	5,204,396.8	4,767,030.9	9,336,580.9	7,897,273.5	5,638,162.8	4,456,897.9	3,911,362.4	5,640,265.1	1,252,643.5
①급여	4,944,715.0	4,474,250.1	8,429,244.3	7,548,009.4	5,255,947.5	4,158,878.9	3,709,129.9	5,394,262.0	1,428,823.1
의사직(전문의)	1,843,505.4	2,007,377.8	1,541,297.8	1,581,449.0	1,378,465.7	3,451,566.6	1,179,679.0	2,500,771.6	178,251.9
의사직(재지먼트)	376,397.6	283,528.7	811,364.8	762,239.3	375,386.0	198,223.6	131,182.5	239,411.7	31,490.2
의사직(인턴)	220,314.0	272,553.1	154,040.5	140,370.8	89,324.0	616,603.6	49,967.3	31,545.9	-
의사직(일반의)	57,843.7	63,065.5	513,038.1	64,693.9	27,440.4	34,815.3	60,029.8	16,768.5	-
의사직(기타)	278,550.6	206,175.1	1,277,845.4	771,192.7	115,517.8	248,649.3	93,570.8	-	4,885.0
간호직(간호사)	2,216,516.5	2,367,760.6	2,592,244.2	2,430,274.1	1,633,645.2	4,644,914.8	1,094,725.0	783,116.3	344,490.7

간호직(간호조무사)	741,229.5	928,587.6	208,211.3	429,149.5	180,494.6	2,282,447.2	181,203.0	243,371.5	172,185.3
간호직(보조인력)	99,769.3	99,629.5	282,853.1	106,906.2	116,630.7	60,945.9	72,314.8	132,750.3	125,344.5
약무직(약사)	148,950.0	165,442.1	127,778.6	116,197.2	81,989.8	438,188.8	39,218.6	47,243.0	10,410.2
약무직(약무보조)	29,328.1	30,843.5	15,121.2	29,873.8	26,002.5	28,470.1	36,509.1	22,400.3	5,038.6
의료기사직급여	1,599,882.1	2,025,717.0	897,226.8	750,347.0	500,288.6	5,577,778.2	327,815.7	364,055.3	70,052.8
사무직급여	1,513,631.0	1,911,656.4	625,814.7	680,633.4	511,508.4	5,083,202.1	408,716.8	912,359.0	125,987.1
기타	1,648,539.9	2,034,721.1	1,333,238.3	1,321,494.8	519,395.0	5,177,589.7	283,180.7	495,452.5	246,555.3
②퇴직금여	358,535.7	320,759.0	877,658.2	456,663.1	372,808.8	318,299.8	276,128.4	345,780.2	48,909.4
2)제료비	3,504,901.5	2,976,248.0	8,336,077.3	6,392,559.5	4,277,497.8	2,615,311.5	2,015,707.7	2,512,419.2	522,406.5
①약품비	1,842,731.6	1,583,073.4	4,537,551.4	3,366,230.0	2,305,661.8	1,354,048.8	1,060,751.3	979,047.4	182,885.0
②진료재료비	1,495,776.2	1,222,779.4	3,675,635.1	2,815,531.0	1,797,581.7	1,101,429.8	791,717.4	1,282,593.2	27,603.1
③급식재료비	194,806.4	194,821.2	122,890.8	217,825.1	200,686.9	186,109.8	198,919.4	214,022.2	159,613.5
3)관리운영비	2,761,952.7	2,611,069.9	5,371,674.5	3,805,681.5	3,569,612.1	2,250,232.6	1,881,597.0	2,971,926.7	583,353.1
①복리후생비	415,229.4	381,406.6	1,026,651.7	526,536.3	458,476.5	369,103.3	311,633.1	416,866.8	100,449.6
②전기수도료	150,863.8	143,813.0	229,022.3	190,769.9	172,173.8	121,634.8	134,634.5	142,803.8	44,427.1
③세금과공과	58,683.1	58,668.9	72,935.2	67,583.1	55,307.1	48,823.5	58,358.7	103,345.2	26,680.3
④보험료	28,692.5	31,850.9	22,631.4	14,224.5	17,942.0	27,343.5	43,784.4	45,540.6	4,353.7
⑤자금임차료	75,843.4	66,208.2	221,062.0	122,652.6	53,942.9	58,748.7	43,753.0	139,900.7	7,638.7
⑥수선비	149,564.8	125,819.2	298,953.4	240,294.5	195,241.1	108,008.8	82,602.9	180,805.5	17,809.1
⑦연료비	90,453.5	85,496.3	140,938.5	115,558.4	108,909.7	74,926.8	73,293.2	62,273.0	42,006.5
⑧연구비	91,009.9	94,750.1	205,918.0	137,784.5	72,916.5	71,359.3	19,581.7	119,562.0	13,930.1
⑨감각장각비	708,985.5	655,837.5	1,135,372.9	1,012,460.5	932,857.2	567,197.7	481,381.9	746,876.8	130,536.5
⑩피복침구비	28,451.4	28,086.7	45,839.3	41,774.0	27,042.5	27,293.0	25,178.6	19,178.7	6,751.0
⑪의약품역비	465,023.2	405,332.8	991,813.6	716,303.6	635,736.4	310,040.5	283,665.0	218,154.8	103,576.0
⑫기타	650,686.8	660,873.7	723,484.2	691,412.8	975,899.8	534,522.8	456,176.4	933,805.9	201,881.8
3.의료이익(손실)	245,082.6	253,619.7	515,200.9	394,733.9	54,500.6	106,563.0	137,947.9	1,979,832.9	-254,465.9
4.의료외 수익	673,107.5	682,598.0	1,585,133.2	626,972.7	810,197.8	472,518.9	662,029.3	317,558.5	609,975.4
①의료부대수익	393,585.0	455,831.0	486,772.2	236,154.5	248,959.0	387,748.5	632,524.8	-	-
②이자수익	62,242.4	58,782.0	186,708.4	62,927.5	60,007.2	39,588.6	48,283.5	179,751.7	8,138.2

③ 임대료 수익	76,666.9	66,471.5	211,359.9	110,559.5	81,440.3	61,502.6	45,391.2	13,115.8	23,093.7
④ 기부금수익	225,551.2	252,572.3	299,112.6	99,398.6	405,765.7	165,989.2	169,521.3	107,301.8	-
⑤ 기타	218,279.1	213,554.1	538,245.3	209,701.7	265,314.2	120,969.3	174,239.3	120,114.4	531,555.9
5.의료외비용	756,881.6	680,304.4	2,309,063.0	1,110,849.8	673,405.9	460,542.4	594,136.6	1,188,729.4	97,721.9
① 의료부대비용	204,844.3	239,586.1	275,271.3	110,806.0	132,869.1	202,079.2	346,757.3	1,682.0	-
② 이차비용	162,609.3	168,999.1	148,805.2	111,051.9	202,220.1	127,006.8	180,774.8	161,428.1	118,729.2
③ 기부금	71,637.2	30,558.9	95,338.5	15,643.9	88,750.7	6,574.6	48,116.8	424,250.3	5,761.6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800,377.9	769,158.6	1,732,635.6	937,789.7	479,709.4	467,876.6	688,079.0	1,568,125.1	-
⑤ 고유목적사업비	575,375.0	549,526.5	1,006,022.4	557,903.8	620,837.2	352,872.6	658,614.3	-	-
⑥ 기타	111,921.2	119,247.3	473,439.3	119,462.4	112,359.1	59,184.8	105,091.9	50,632.1	35,476.5
6.경상이익(손실)	19,984.0	66,772.1	-170,451.4	-92,114.6	-132,760.5	105,082.3	38,763.3	1,086,737.0	-74,761.9
7.특별이익	265,938.6	217,991.2	25,524.9	498,858.9	450,879.9	24,529.2	205,706.8	-	-
8.특별손실	47,579.0	71,055.1	32,360.8	25,598.7	80,152.2	18,994.3	121,276.7	13,698.6	3,889.5
9.세전순이익(손실)	124,101.6	174,834.4	-132,330.9	-61,543.6	77,451.7	148,648.7	161,629.7	1,198,356.6	43,441.5
10. 법인세 비용	95,569.5	105,432.3	214,025.3	-37,613.7	51,182.8	81,270.4	92,430.8	310,574.7	31,438.8
11.당기순이익(손실)	68,777.8	101,590.5	-223,710.2	79,183.6	-14,992.0	81,116.3	53,934.6	822,445.0	-40,846.1

의료기관백병상당순의계산서 (2008)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전체 평균	일 단 병 원							특수병원
		평균	종 합 병 원					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1000병상이상	500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이 상 ~500병상미 만	100병상이 상 ~300병상 미만		
1.의료수입	14,468,287.6	14,276,033.2	26,387,639.3	20,124,848.4	14,195,314.4	20,181,100.3	8,203,399.0	13,146,224.4	1,634,731.6
1)입원수익	7,160,896.9	6,213,877.8	15,659,243.6	12,548,268.9	8,376,069.2	5,653,346.8	4,503,127.0	6,259,574.6	1,152,969.8
2)외래수익	4,467,616.8	4,180,418.2	9,426,882.5	6,807,586.6	5,053,942.8	3,495,158.3	2,939,991.0	6,748,379.6	466,646.1
3)기타 의료수익	716,913.6	728,472.7	1,051,222.7	768,992.9	530,165.6	690,512.8	749,040.2	1,319,163.3	11,689.4
①건강진단수익(종합건강진단)	460,125.4	433,773.8	1,042,652.7	712,728.7	375,131.6	361,353.0	382,344.7	27,018.0	353,728.2
① 건강진단수익(일반건강진단)	273,504.4	289,280.7	78,876.8	249,327.2	167,427.4	410,328.2	308,542.0	213,146.9	13,609.8
② 수탁검사수익	49,343.6	46,238.2	48,101.4	98,510.0	33,172.9	22,707.0	55,665.4	58,929.0	-
③ 제증명료수익	41,954.3	37,988.4	70,892.3	62,738.7	43,856.0	30,320.4	35,337.8	35,930.7	4,580.8
④ 기타	201,539.4	264,423.5	-30,309.7	108,202.7	62,215.0	131,101.7	285,874.1	1,567,267.2	101,254.1
2.의료비용	12,746,327.9	11,742,379.2	25,907,536.5	19,617,698.8	14,360,473.9	10,011,982.4	9,637,683.3	12,367,349.7	2,580,433.6
1)인건비	5,659,343.1	5,165,669.8	10,425,162.8	8,676,197.0	6,080,064.6	4,818,083.9	4,257,294.4	6,324,913.7	1,270,361.0
①급여	5,235,708.3	4,792,199.0	9,418,036.7	8,084,639.0	5,520,078.4	4,137,761.2	4,020,552.7	6,231,555.0	1,410,157.9
의사직(전문인)	1,487,189.6	1,461,136.2	1,749,281.8	1,581,824.9	1,523,327.7	1,423,140.7	1,293,898.9	2,818,454.1	183,154.5
의사직(레지던트)	1,518,002.4	298,632.8	859,406.3	823,613.7	418,747.4	201,273.0	127,782.1	243,637.1	35,686,638.8
의사직(인턴)	90,128.1	68,435.1	177,337.8	177,797.7	101,018.5	57,239.1	53,388.9	37,166.3	-
의사직(일반인)	61,901.9	69,922.8	602,829.3	57,249.3	25,109.9	29,971.3	61,468.8	35,727.4	-
의사직(기타)	298,624.6	203,805.6	1,377,545.0	830,843.5	103,047.4	286,187.8	92,523.9	-	8,298.4
간호직(간호사)	1,603,449.5	1,424,456.4	3,003,554.2	2,578,493.8	1,801,399.3	1,327,733.9	1,202,318.1	906,046.0	382,936.4

간호직(간호조무사)	238,116.9	217,468.5	235,198.2	466,639.8	183,116.3	210,383.2	190,322.5	273,501.2	198,471.0
간호직(보조인력)	103,596.2	104,732.4	346,316.3	108,002.5	118,777.1	66,750.5	70,080.2	158,594.5	134,589.6
약무직(약사)	70,632.6	60,392.4	147,692.7	124,563.1	89,368.4	50,223.2	40,636.1	47,551.1	13,056.5
약무직(약무보조)	31,639.4	33,747.5	13,959.7	29,253.9	25,885.1	33,019.9	39,382.7	23,188.1	6,720.3
의료기사직급여	502,149.1	435,677.1	1,003,958.6	831,592.3	552,132.3	420,522.4	353,312.4	298,662.1	72,990.3
사무직급여	538,050.3	505,236.7	658,666.5	716,005.0	537,040.4	431,885.3	444,203.3	1,107,984.3	120,939.7
기타	595,481.3	478,184.1	1,144,523.3	1,438,681.5	535,897.8	348,684.5	321,710.3	440,593.0	163,584.4
②퇴직급여	412,114.2	387,247.2	1,007,126.1	448,307.0	426,931.9	409,400.0	313,355.2	459,798.4	76,484.6
2)재로비	3,644,531.6	3,075,909.8	9,132,687.0	6,884,425.1	4,461,060.8	2,701,964.3	2,009,946.0	2,706,953.2	476,630.9
①약품비	1,893,019.5	1,610,942.3	4,923,479.3	3,575,322.6	2,400,732.9	1,355,748.4	1,052,562.1	982,375.7	190,272.0
②진료재료비	1,592,725.8	1,303,465.3	4,082,879.4	3,102,464.9	1,880,674.5	1,179,197.5	806,799.5	1,455,199.7	32,113.7
③급식재료비	196,305.5	196,158.3	126,328.4	213,488.8	202,919.1	191,809.7	199,084.8	225,875.7	150,386.6
3)관리운영비	2,990,056.9	2,823,125.5	6,349,686.6	4,074,634.3	3,787,787.5	2,476,164.1	2,026,417.1	3,335,482.9	624,464.3
①복리후생비	457,045.9	418,382.3	1,180,483.8	587,533.8	516,604.1	409,249.0	325,570.5	454,901.0	108,520.6
②전기수도료	162,216.8	147,961.4	247,496.4	194,973.4	205,962.1	126,837.0	139,987.4	132,473.0	48,221.2
③세금과공과	63,568.2	64,801.8	79,951.4	41,702.1	61,077.9	57,390.0	70,698.0	126,365.5	26,817.9
④보험료	20,431.3	20,643.9	23,614.0	12,796.7	15,438.2	25,017.0	19,177.6	46,055.0	5,612.8
⑤지급임차료	84,152.4	74,736.2	215,325.7	123,731.6	63,428.3	77,843.8	47,312.8	168,643.1	10,133.3
⑥수선비	155,844.7	131,193.0	358,469.5	250,043.6	211,362.3	106,450.7	80,199.2	182,993.5	22,864.0
⑦연료비	101,271.4	95,440.0	178,266.4	127,698.7	113,745.4	84,216.2	84,558.0	78,702.7	49,950.3
⑧연구비	742,143.4	107,177.9	226,226.6	160,012.8	88,658.4	60,085.9	20,270.8	173,667.0	14,881.2
⑨감각장비	48,891.1	694,386.2	1,371,700.5	1,060,763.7	944,968.1	623,869.6	513,584.8	771,965.7	132,159.3
⑩복합기구비	28,848.7	28,880.1	43,420.1	39,638.9	28,518.1	29,982.9	25,561.4	17,978.1	4,745.3
⑪외주용역비	518,353.2	466,812.1	1,222,770.8	793,966.3	742,752.0	333,121.8	310,402.8	244,171.8	109,721.4
⑫기타	691,616.3	685,281.0	824,238.8	726,877.4	962,951.2	631,604.8	461,860.7	1,138,135.2	221,168.2
3.의료이익(손실)	172,919.1	186,415.0	480,102.8	489,627.5	-33,087.9	-116,447.4	83,566.5	2,079,317.4	-290,151.9
4.의료외 수익	764,871.4	762,066.3	1,795,461.1	676,224.2	930,930.9	482,899.3	768,735.7	563,021.4	707,693.6
①의료부대수익	452,827.9	539,694.4	505,579.7	251,004.3	241,360.7	383,922.7	872,643.9	-	345.0
②이지수익	70,880.3	64,171.9	215,251.6	73,996.8	65,836.6	51,624.6	53,011.2	195,098.6	6,550.2

③ 임대료수익	85,807.0	72,269.6	241,029.6	132,929.8	92,289.3	64,438.1	45,186.8	17,039.3	23,689.7
④ 기부금수익	261,737.2	299,990.2	364,155.5	130,199.4	449,067.3	107,433.3	261,390.5	320,155.5	-
⑤ 기타	230,649.8	206,696.0	625,440.2	169,454.4	313,184.1	89,808.1	154,890.3	341,400.2	621,230.3
5. 의료외비용	834,599.6	786,138.4	2,886,591.8	1,192,525.0	686,637.4	470,788.2	667,362.8	1,673,148.0	24,233.5
① 의료부대비용	215,037.6	259,057.6	299,033.4	108,317.3	132,594.0	212,088.3	376,076.1	1,438.5	-
② 이차비용	177,189.4	185,472.2	158,854.8	110,419.0	229,308.5	148,162.6	192,131.3	182,572.2	46,518.9
③ 기부금	102,592.4	56,669.5	88,639.4	18,084.8	152,752.4	32,931.2	84,840.5	470,844.3	7,238.3
④ 교육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871,832.4	846,289.8	2,016,683.9	1,103,350.0	461,527.2	451,143.5	956,646.3	896,819.3	-
⑤ 교육목적사업비	687,787.5	777,341.8	2,341,592.7	440,392.9	576,557.9	343,908.3	616,976.4	-	-
⑥ 기타	168,746.0	195,341.8	643,064.8	169,308.1	115,978.1	54,597.7	76,855.8	950,349.7	6,314.4
6. 경상이익(손실)	-60,084.6	-51,553.1	-611,141.2	-28,512.8	-42,377.6	-166,781.9	10,196.6	622,530.9	-3,262.7
7. 특별이익	149,894.1	239,754.7	69,796.5	20,976.4	213,542.6	62,497.4	9,861.5	1,542,932.2	-
8. 특별손실	29,124.0	35,030.3	26,341.6	62,706.0	21,503.9	16,848.3	56,499.1	-	2,999.5
9. 세전순이익(손실)	23,654.1	39,964.5	-313,414.9	-7,536.9	65,767.5	-115,656.3	37,131.7	1,320,382.1	56,026.6
10. 법인세비용	93,192.7	94,014.9	180,232.3	42,548.0	43,734.7	86,719.2	77,149.0	392,067.4	55,606.8
11. 당기순이익(손실)	-26,579.3	-18,082.2	-598,920.6	-34,066.0	22,176.9	-179,799.1	-3,363.9	894,662.6	16,103.1

의료기관별병상당손익계산서(2009)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전체평균	일 반 병 원						정신병원	
		평균	중 합 병 원						
			종합전문요양기관 1000병상이상	500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이 상 ~500병상미 만	100병상이 상 ~300병상 미만		
1.의료수입	13,532,313.0	14,251,704.6	33,163,892.5	21,820,426.7	15,666,247.4	11,333,873.3	8,864,331.9	12,983,048.0	2,022,047.0
1)입원수익	7,678,724.9	8,084,578.4	18,267,300.8	13,312,759.6	9,077,599.8	6,471,259.2	4,773,714.8	5,644,946.6	1,185,068.2
2)외래수익	5,024,597.6	5,320,978.7	11,149,948.0	7,644,678.9	5,996,365.3	4,166,304.2	3,298,276.8	6,908,816.2	282,499.1
3)기타의료수익	732,863.0	778,210.0	3,744,200.0	863,817.8	588,158.6	659,472.7	590,861.8	383,356.6	7,310.3
①건강진단수익(종합건강진단)	319,469.0	339,435.8	1,131,011.1	582,224.8	350,786.4	253,092.7	205,155.5	68,943.0	-
①건강진단수익(일반건강진단)	139,103.9	147,687.6	34,381.1	82,162.2	120,705.7	224,783.4	176,358.9	27,345.9	1,763.6
②수탁검사수익	13,144.2	13,965.7	27,068.7	22,614.6	18,527.0	3,941.1	14,580.7	6,264.5	-
③제증명료수익	29,119.3	30,792.5	75,000.5	49,488.6	36,126.8	22,581.5	19,385.2	18,353.4	2,347.7
④기타	211,229.8	223,866.2	2,476,738.6	104,822.6	56,561.3	137,840.2	119,024.2	295,732.5	9,047.7
2.의료비용	12,699,596.8	13,343,427.2	29,805,749.6	20,715,722.6	14,963,648.8	10,527,981.3	8,339,038.4	11,459,709.0	2,398,310.2
1)인건비	5,817,021.1	6,097,410.8	11,551,076.9	8,962,638.4	6,257,180.4	5,160,646.4	4,489,117.5	5,544,709.5	1,330,786.6
①급여	5,139,319.5	5,391,322.4	10,670,549.3	8,183,474.5	5,815,033.4	4,418,566.9	3,791,518.3	4,310,113.6	1,107,273.2
의사직(전문직)	1,429,874.4	1,508,639.6	2,171,805.9	1,598,990.4	1,362,830.3	1,433,571.4	1,328,706.0	2,479,806.8	169,629.8
의사직(레지던트)	281,753.3	296,136.2	848,039.1	819,601.2	323,202.0	160,314.6	58,362.6	124,277.3	51,627.4
의사직(인턴)	46,460.3	49,364.0	109,978.7	78,137.6	62,590.6	38,857.7	32,424.8	5,004.5	-
의사직(일반의)	14,876.0	15,669.5	130,169.9	11,089.0	9,719.3	7,055.3	14,897.6	3,596.6	2,180.2
의사직(기타)	40,301.7	42,783.1	154,557.8	111,882.9	31,003.8	12,941.9	32,704.9	-	600.0
간호직(간호사)	1,570,138.8	1,653,412.3	3,584,256.6	2,623,521.3	1,606,217.9	1,382,830.4	1,252,936.3	891,564.1	237,761.8
간호직(간호조무사)	181,405.1	185,638.8	159,298.9	303,311.2	100,123.4	199,551.3	168,258.4	233,373.8	113,665.0
간호직(보조인력)	49,204.5	48,562.2	112,721.4	78,513.4	57,550.2	31,533.7	37,619.2	15,010.5	59,481.0
약무직(약사)	66,762.6	70,200.5	173,486.1	123,842.6	80,041.8	50,396.7	41,971.1	34,935.0	11,756.2

약무직(약무보조)	18,490.5	19,276.8	4,648.4	17,085.2	12,341.1	19,434.9	30,427.8	8,841.5	5,909.4
의료기사직급여	486,537.6	514,286.1	1,163,045.0	814,440.7	505,202.9	418,640.1	371,787.1	359,136.1	42,561.9
사무직급여	503,322.0	523,235.0	745,899.0	696,768.3	438,921.6	462,785.7	439,515.8	871,943.2	184,712.5
기타	564,715.8	592,746.9	1,312,642.5	1,178,052.5	726,257.2	395,737.2	295,515.5	288,887.7	116,219.1
② 퇴직급여	436,862.5	461,271.1	886,420.4	516,319.6	633,122.2	372,422.3	328,092.3	377,051.9	46,324.7
2) 재료비	3,957,549.0	4,176,934.2	10,772,981.4	7,409,132.3	4,774,511.3	3,081,109.0	2,225,589.1	2,488,550.6	447,384.4
① 약품비	2,020,409.8	2,130,185.1	5,736,389.5	3,803,508.4	2,486,240.5	1,544,037.9	1,147,902.0	889,424.3	264,005.6
② 진료재료비	1,782,802.1	1,893,456.4	4,920,281.6	3,393,221.4	2,222,046.4	1,356,186.8	908,869.7	1,446,443.7	121,344.1
③ 급식재료비	180,512.5	181,104.2	116,310.2	212,402.5	168,655.8	176,793.5	194,394.5	151,921.8	17,034.7
3) 관리운영비	3,248,918.7	3,413,224.3	7,481,691.4	4,335,033.0	4,189,449.2	2,836,422.5	2,154,078.5	3,488,411.7	620,029.4
① 복리후생비	467,977.4	493,399.5	1,077,270.9	636,348.8	543,992.4	394,237.4	375,480.8	479,321.4	61,223.8
② 전기수도료	149,773.9	157,311.6	292,080.1	200,944.9	179,855.2	133,256.2	126,121.4	109,966.3	29,170.4
③ 세금과공과	64,557.7	66,819.3	79,245.1	33,294.9	58,687.8	76,682.8	70,966.9	111,496.2	28,371.4
④ 보험료	21,764.1	22,578.9	18,683.5	17,405.0	12,663.9	34,305.3	18,129.8	44,275.1	8,727.9
⑤ 지급임차료	73,733.5	78,054.9	266,790.5	96,869.0	42,174.5	87,601.4	34,768.7	176,669.5	4,591.2
⑥ 수선비	167,501.6	176,794.3	406,864.0	271,164.8	203,652.7	131,479.8	92,340.8	252,288.0	18,817.8
⑦ 연료비	95,867.4	99,337.7	211,754.7	140,613.8	114,248.3	80,556.5	74,967.4	48,001.2	40,343.7
⑧ 연구비	60,508.4	61,913.2	150,793.5	175,732.2	69,432.6	28,283.0	10,496.5	59,404.6	38,030.7
⑨ 감가상각비	803,871.6	849,609.3	2,088,974.7	1,029,936.8	1,088,402.9	682,106.7	535,941.7	762,069.9	72,068.0
☞ 피복정구비	18,422.1	19,409.3	33,419.0	34,967.6	20,841.4	19,739.5	9,666.9	6,894.0	2,627.8
☞ 의주용역비	571,335.5	602,294.6	1,451,164.6	840,149.1	929,111.7	387,193.1	358,313.6	225,045.8	75,989.6
기타	776,627.1	810,930.0	1,594,349.1	857,746.1	954,913.0	777,227.0	485,435.9	1,231,914.7	227,780.2
3. 의료이익(손실)	478,711.4	528,772.5	3,358,142.9	1,106,428.4	216,018.1	256,951.2	99,167.9	1,224,905.2	-322,265.6
4. 의료외 수익	773,367.2	784,325.3	2,263,811.4	909,117.7	552,657.0	710,741.6	704,189.5	879,588.8	598,036.5
① 의료부대수익	247,598.8	258,143.8	518,278.1	184,959.7	174,128.2	249,781.5	385,195.0	801.3	78,878.6
② 이자수익	62,256.8	65,575.5	170,677.1	82,108.1	51,793.9	69,414.7	38,666.5	101,511.1	9,157.8
③ 임대료수익	66,600.1	70,643.0	257,619.2	146,382.2	71,000.5	54,034.7	23,444.7	22,974.9	1,913.6
④ 기부금수익	150,263.8	157,857.1	327,310.4	193,413.1	124,304.2	130,474.9	99,592.6	453,964.8	28,771.6
⑤ 기타	252,472.5	238,116.3	989,926.6	302,242.0	131,633.3	232,498.6	154,997.7	300,336.7	482,172.7

5. 의료외비용	955,703.7	1,013,682.9	3,582,253.4	2,002,982.1	715,300.4	643,801.9	643,258.7	940,563.5	28,036.4
① 의료부대비용	120,584.7	128,121.3	300,558.3	89,731.3	77,629.2	128,807.6	187,634.0	-	-
② 이자비용	137,533.6	145,536.2	189,265.2	115,553.4	170,865.7	155,126.6	140,991.5	75,327.4	9,492.3
③ 기부금	76,465.1	81,109.9	163,540.0	12,686.6	125,784.2	16,947.9	70,575.6	367,395.5	2,148.9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406,769.9	431,934.1	1,664,065.4	1,253,153.6	199,504.9	213,104.9	158,563.7	453,588.5	4,142.4
⑤ 고유목적사업비	101,754.0	108,113.6	506,170.8	324,435.6	75,348.0	74,815.2	2,769.5	-	-
⑥ 기타	531,120.3	563,567.5	10,416,576.5	201,493.4	90,501.9	90,592.2	82,768.1	44,252.0	11,965.9
6. 경상이익(순실)	176,067.2	183,892.7	2,039,700.8	-25,528.1	53,275.2	157,944.7	-26,369.2	888,725.4	50,859.6
7. 특별이익	26,438.4	28,081.1	25,854.5	8,046.2	21,970.8	19,068.1	58,975.3	-	155.2
8. 특별손실	4,546.2	4,804.9	10,144.0	4,016.6	712.4	11,577.9	2,173.5	0.6	406.5
9. 세전순이익(순실)	264,725.6	280,715.2	2,055,411.3	137,555.9	253,615.7	159,545.9	132,644.8	625,433.7	8,892.0
10. 법인세비용	-8,824.6	-9,646.5	27,306.7	812.4	-140,418.6	23,646.5	23,609.0	112,841.1	4,326.4
11. 당기순이익(순실)	219,784.9	225,564.0	2,028,104.6	30,635.8	203,271.4	145,546.1	-51,881.8	1,089,981.6	127,319.8

병원규모별 직종별 인력수 (2007)

백병원상당직종별인력	전체 평균	인원							병원	특수병원
		평균	종합병원			의원		100병상 ~300병상 미만		
			1000병상 이상	중환자 ~500병상 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 ~500병상 미만				
의사직 소계	(명) 24.5	25.6	55.4	49.6	28.3	18.7	15.0	19.0	4.7	
전문의	(명) 13.5	14.0	23.8	20.4	14.7	11.3	10.9	14.6	2.9	
레이디턴트	(명) 7.5	7.8	23.7	20.7	9.6	4.5	2.0	4.0	1.4	
인턴	(명) 2.5	2.6	6.3	5.8	3.1	2.0	1.4	0.2	0.0	
일반의	(명) 0.2	0.2	0.2	0.3	0.2	0.1	0.1	0.0	0.1	
치과의사	(명) 0.7	0.7	1.5	1.9	0.7	0.4	0.5	0.1	0.2	
한의사	(명) 0.2	0.2	-	0.6	0.0	0.3	0.0	-	0.0	
간호직 소계	(명) 59.8	62.0	93.7	81.6	63.9	56.9	52.8	48.3	20.8	
간호사	(명) 49.3	51.4	80.4	66.8	56.0	47.4	41.9	34.8	11.8	
간호조무사	(명) 6.6	6.7	3.0	6.2	4.5	7.0	8.5	10.2	4.8	
보건인력	(명) 4.0	3.9	10.3	8.6	3.4	2.5	2.3	3.2	4.2	
약무직 소계	(명) 2.7	2.9	4.5	3.9	3.2	2.4	2.5	2.4	0.7	
약사	(명) 1.7	1.7	3.5	2.9	2.2	1.2	1.0	1.2	0.4	
약무보조	(명) 1.1	1.1	1.0	1.0	1.0	1.1	1.5	1.2	0.3	
의료기사직 소계	(명) 13.5	14.0	15.8	15.0	13.2	12.7	13.0	23.4	4.7	
행정관리직 소계	(명) 13.5	14.0	15.8	15.0	13.2	12.7	13.0	23.4	4.7	
보건직 소계	(명) 2.9	3.0	2.0	2.1	2.5	3.0	3.8	3.8	0.8	
안전관리자직 소계	(명) 0.5	0.5	0.4	0.6	0.5	0.5	0.6	0.6	0.2	
병원관리자직 소계	(명) 0.3	0.3	0.2	0.3	0.3	0.4	0.3	0.7	0.1	
에너지관리자직 소계	(명) 1.1	1.2	0.7	1.3	1.0	1.2	1.3	0.8	0.4	
전산직 소계	(명) 0.8	0.9	1.0	1.0	1.0	1.0	0.7	0.6	0.2	
의료화학직 소계	(명) 0.3	0.3	0.8	0.4	0.5	0.2	0.1	0.2	0.0	
기타직 소계	(명) 6.7	6.9	12.3	9.1	5.7	5.8	6.8	8.0	3.4	
합계	(명) 126.7	131.5	202.6	179.9	133.3	115.4	109.9	131.3	40.7	

병원규모별 직종별 인력수 (2008)

백병상당직종별인력	전체 평균	인원							병원	정신병원
		평균	종업원					100병상이 상~300병상 미만		
			1000병상이 상	종합전문요양기관		500병상이 상	300병상이 상~500병상 미만			
				500병상이 상~1000 병상미만						
의사직 소계	(명) 24.8	25.9	55.3	48.7	28.4	19.5	14.8	21.0	5.3	
전문의를	(명) 13.9	14.5	25.4	20.9	14.8	12.5	11.2	15.8	3.4	
레지던트	(명) 7.5	7.8	22.3	20.0	9.7	4.3	1.5	4.9	1.4	
인턴	(명) 2.3	2.4	5.7	5.1	2.9	1.7	1.2	0.2	0.0	
일반의	(명) 0.2	0.2	0.5	0.2	0.2	0.2	0.3	0.0	0.3	
치과의사	(명) 0.7	0.8	1.4	1.9	0.7	0.4	0.6	0.0	0.2	
한의원사	(명) 0.2	0.2	-	0.5	0.2	0.3	0.0	-	0.0	
간호직 소계	(명) 61.1	63.5	103.6	81.8	64.8	60.8	54.1	49.2	20.1	
간호사	(명) 50.4	52.6	87.9	68.5	56.0	50.6	43.6	33.4	13.0	
간호조무사	(명) 7.0	7.1	3.1	6.7	5.1	7.7	8.2	12.9	4.9	
보조인력	(명) 3.7	3.8	12.6	6.6	3.7	2.5	2.3	2.8	2.2	
약무직 소계	(명) 2.9	3.0	5.0	4.0	3.4	2.6	2.4	2.7	0.8	
약사	(명) 1.8	1.8	4.2	3.0	2.4	1.3	0.9	1.4	0.5	
약무보조	(명) 1.1	1.2	0.8	0.9	1.1	1.2	1.5	1.2	0.2	
의료기사직 소계	(명) 16.6	17.3	27.2	22.6	17.8	15.7	14.4	18.2	4.0	
행정관리직 소계	(명) 13.8	14.3	16.6	14.5	13.5	12.8	13.3	26.4	5.4	
보건직 소계	(명) 2.8	3.0	1.9	1.9	2.3	3.1	3.9	3.6	0.9	
안전관리자직 소계	(명) 0.6	0.6	0.4	0.6	0.5	0.5	0.6	1.1	0.3	
방화관리자직 소계	(명) 0.3	0.3	0.3	0.3	0.3	0.4	0.4	0.6	0.1	
에너지관리자직 소계	(명) 1.1	1.1	0.8	1.3	1.1	1.1	1.1	0.7	0.4	
전산직 소계	(명) 0.9	0.9	0.9	1.0	1.2	1.1	0.6	0.8	0.1	
의공학직 소계	(명) 0.3	0.3	0.9	0.4	0.5	0.2	0.1	0.2	0.0	
기타직 소계	(명) 6.9	7.1	12.8	8.7	5.6	5.8	7.4	7.6	4.0	
합계	(명) 132.0	137.3	225.7	185.9	139.3	123.5	113.0	132.0	41.4	

병원규모별 직종별 인력수 (2009)

백병원당 직종별인력	전체 평균	인원						병원	정신병원	
		평균	성							
			중환자문호양기관		500병상이 ~1000 병상미만	500병상이상	300병상 ~500병상미 만			100병상 ~300병상미 만
			1000병상이 상	500병상						
의사직 소계	(명) 25.9	27.2	56.3	49.4	29.7	20.8	15.5	21.8	5.1	
전문의	(명) 14.8	15.6	27.0	22.0	15.5	13.5	11.8	16.9	2.5	
레지던트	(명) 7.7	8.0	21.7	19.7	10.0	4.7	1.6	4.4	2.3	
인턴	(명) 2.2	2.3	5.2	5.0	2.9	1.6	1.1	0.4	0.0	
임상의	(명) 0.2	0.2	0.3	0.3	0.2	0.3	0.3	0.0	0.1	
치과의사	(명) 0.8	0.9	2.0	1.8	0.8	0.5	0.6	0.2	0.1	
한의사	(명) 0.2	0.2	0.2	0.5	0.2	0.3	0.0	0.0	0.0	
간호직 소계	(명) 67.5	70.3	115.4	90.9	72.3	68.1	56.5	51.8	21.5	
간호사	(명) 53.6	56.2	93.0	73.4	58.8	54.8	44.6	35.6	11.6	
간호조무사	(명) 7.6	7.7	3.2	6.9	4.2	9.5	8.7	12.2	5.6	
보조인력	(명) 6.3	6.5	19.2	10.6	9.2	3.7	3.1	4.0	4.3	
약무직 소계	(명) 3.1	3.2	5.5	4.3	3.7	2.8	2.4	2.5	0.9	
약사	(명) 1.8	1.9	4.3	3.2	2.4	1.5	0.9	1.4	0.5	
약무보조	(명) 1.3	1.3	1.3	1.1	1.3	1.3	1.4	1.2	0.4	
의료기사직 소계	(명) 17.9	18.8	29.2	24.9	18.7	17.0	15.1	21.4	2.2	
행정관리직 소계	(명) 14.3	14.9	18.4	15.4	14.1	13.4	14.1	23.8	5.2	
보건직 소계	(명) 4.0	4.1	3.7	2.9	3.7	4.5	4.8	4.2	1.8	
안전관리자직 소계	(명) 0.8	0.8	1.0	0.9	0.7	0.7	0.5	1.8	0.3	
병원관리자직 소계	(명) 0.5	0.5	0.6	0.5	0.5	0.5	0.4	1.0	0.3	
에너지관리자직 소계	(명) 1.4	1.5	1.8	1.9	1.7	1.4	1.2	1.6	0.8	
전신직 소계	(명) 1.1	1.2	1.2	1.4	1.4	1.3	0.7	1.2	0.1	
의료행정직 소계	(명) 0.3	0.3	1.0	0.5	0.5	0.2	0.1	0.2	0.0	
기타직 소계	(명) 17.2	17.8	29.1	23.1	17.3	15.9	14.2	22.2	7.9	
합계	(명) 154.0	160.6	263.3	216.0	164.2	146.6	125.4	153.5	46.0	

의료기관 규모별 백병상당 직종별 인건비(2007)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인 건 비							병원
	평균	중 합			300 병상 이상 ~500 병상 미만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미만		
		종합전문요양기관		500 병상 이상 ~1000 병상 미 만				
		1000 병상 이상	500 병상 이상 ~1000 병상 미 만					
인건비 소계	4,767,030.9	9,336,580.9	7,897,273.5	5,638,162.8	4,456,897.9	3,911,362.4	5,640,265.1	
의사직 (전문의)	2,007,377.8	1,541,297.8	1,581,449.0	1,378,465.7	3,451,566.6	1,179,679.0	2,500,771.6	
의사직(레지던트)	283,528.7	811,364.8	762,239.3	375,386.0	198,223.6	131,182.5	239,411.7	
의사직(인턴)	272,553.1	154,040.5	140,370.8	89,324.0	616,603.6	49,967.3	31,545.9	
의사직(일반의)	63,065.5	513,038.1	64,693.9	27,440.4	34,815.3	60,029.8	16,768.5	
의사직(기타)	206,175.1	1,277,845.4	771,192.7	115,517.8	248,649.3	93,570.8	-	
간호직(간호사)	2,367,760.6	2,592,244.2	2,430,274.1	1,633,645.2	4,644,914.8	1,094,725.0	783,116.3	
간호직(간호조무사)	928,587.6	208,211.3	429,149.5	180,494.6	2,282,447.2	181,203.0	243,371.5	
간호직(보조인력)	99,629.5	282,853.1	106,906.2	116,630.7	60,945.9	72,314.8	132,750.3	
약무직(약사)	165,442.1	127,778.6	116,197.2	81,989.8	438,188.8	39,218.6	47,243.0	
약무직(약무보조)	30,843.5	15,121.2	29,873.8	26,002.5	28,470.1	36,509.1	22,400.3	
의료기사직급여	2,025,717.0	897,226.8	750,347.0	500,288.6	5,577,778.2	327,815.7	364,055.3	
사무직급여	1,911,656.4	625,814.7	680,633.4	511,508.4	5,083,202.1	408,716.8	912,359.0	
기타직	2,034,721.1	1,333,238.3	1,321,494.8	519,395.0	5,177,589.7	283,180.7	495,452.5	

의료기관규모별 백병상당 직종별 인건비(2008)

계정과목	원	병		원			원	병	
		평	관	증		합			
				합					500병상 이상
				1000병상 이상	500병상이상 ~1000병상 미만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인건비 소계	5,165,669.8	10,425,162.8	8,676,197.0	6,080,064.6	4,818,083.9	4,257,294.4	6,324,913.7		
의사직 (전문의)	1,461,136.2	1,749,281.8	1,581,824.9	1,523,327.7	1,423,140.7	1,293,898.9	2,818,454.1		
의사직(레지던트)	298,632.8	859,406.3	823,613.7	418,747.4	201,273.0	127,782.1	243,637.1		
의사직(인턴)	68,435.1	177,337.8	177,797.7	101,018.5	57,239.1	53,388.9	37,166.3		
의사직(일반의)	69,922.8	602,829.3	57,249.3	25,109.9	29,971.3	61,468.8	35,727.4		
의사직(기타)	203,805.6	1,377,545.0	830,843.5	103,047.4	286,187.8	92,523.9	-		
간호직(간호사)	1,424,456.4	3,003,554.2	2,578,493.8	1,801,399.3	1,327,733.9	1,202,318.1	906,046.0		
간호직(간호조무사)	217,468.5	235,198.2	466,639.8	183,116.3	210,383.2	190,322.5	273,501.2		
간호직(보조인력)	104,732.4	346,316.3	108,002.5	118,777.1	66,750.5	70,080.2	158,594.5		
약무직(약사)	60,392.4	147,692.7	124,563.1	89,368.4	50,223.2	40,636.1	47,551.1		
약무직(약무보조)	33,747.5	13,959.7	29,253.9	25,885.1	33,019.9	39,382.7	23,188.1		
의료기사직급여	435,677.1	1,003,958.6	831,592.3	552,132.3	420,522.4	353,312.4	298,662.1		
사무직급여	505,236.7	658,666.5	716,005.0	537,040.4	431,885.3	444,203.3	1,107,984.3		
기타직	478,184.1	1,445,235.3	1,438,681.5	535,897.8	348,684.5	321,710.3	440,593.0		

(단위 : 천원)

의료기관 규모별 백병상당 직종별 인건비(2009)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일	반	병	원	중					원	병	원
					종합전문요양기관		500병상 이상	300병상 ~500병상 미만	100병상 ~300병상 미만			
					1000병상 이상	500병상 ~1000병상 미만						
인건비 소계	6,097,410.8		11,551,076.9	8,962,638.4	6,257,180.4	5,160,646.4	4,489,117.5	5,544,709.5				
의사직 (전문의)	1,508,639.6		2,171,805.9	1,598,990.4	1,362,830.3	1,433,571.4	1,328,706.0	2,479,806.8				
의사직(레지던트)	296,136.2		848,039.1	819,601.2	323,202.0	160,314.6	58,362.6	124,277.3				
의사직(인턴)	49,364.0		109,978.7	78,137.6	62,590.6	38,857.7	32,424.8	5,004.5				
의사직(일반의)	15,669.5		130,169.9	11,089.0	9,719.3	7,055.3	14,897.6	3,596.6				
의사직(기타)	42,783.1		154,557.8	111,882.9	31,003.8	12,941.9	32,704.9	0.0				
간호직(간호사)	1,653,412.3		3,584,256.6	2,623,521.3	1,606,217.9	1,382,830.4	1,252,936.3	891,564.1				
간호직(간호조무사)	185,638.8		159,298.9	303,311.2	100,123.4	199,551.3	168,258.4	233,373.8				
간호직(보조인력)	48,562.2		112,721.4	78,513.4	57,550.2	31,533.7	37,619.2	15,010.5				
약무직(약사)	70,200.5		173,486.1	123,842.6	80,041.8	50,396.7	41,971.1	34,935.0				
약무직(약무보조)	19,276.8		4,648.4	17,085.2	12,341.1	19,434.9	30,427.8	8,841.5				
의료기사직급여	514,286.1		1,163,045.0	814,440.7	505,202.9	418,640.1	371,787.1	359,136.1				
사무직급여	523,235.0		745,899.0	696,768.3	438,921.6	462,785.7	439,515.8	871,943.2				
기타직	592,746.9		1,312,642.5	1,178,052.5	726,257.2	395,737.2	295,515.5	288,887.7				

주) 인건비에서 퇴직급여(인건비 대비 7.6%), 복리후생비용(인건비 대비 8.1%) 제외함

주요비용분석비표(2007)

수익성지표	전체평균	입원						특수병원	
		평균	중 합		병 원		병원		
			1000병 상이상	500병상 ~1000 병상미만	500 병 상 이상	300병상이 상~500병 상미만			100병상이 상~300병 상미만
조정환자1인당의료원가 (천원)	239.9	245.2	477.7	380.0	267.5	191.9	159.6	252.4	113.5
조정환자1인당인건비 (천원)	108.3	111.4	186.2	173.4	112.0	91.0	78.4	125.9	32.1
조정환자1인당재료비 (천원)	73.0	74.4	162.9	131.5	88.0	52.5	43.0	49.5	9.6
조정환자1인당관리비 (천원)	54.1	55.8	102.4	75.8	66.0	46.6	37.9	50.2	12.7
전문의1인당급여 (천원)	96,133.0	96,312.6	53,741.0	79,413.6	89,094.0	111,804.9	100,173.3	110,863.2	91,507.7
간호사1인당 인건비 (천원)	24,906.4	24,937.4	28,732.3	33,251.5	27,189.6	23,170.7	20,795.8	19,596.5	23,986.0
약사1인당 인건비 (천원)	41,834.6	41,842.5	38,039.4	41,968.9	38,983.9	43,214.6	44,054.9	40,351.2	41,636.0
의료기사직1인당급여 (천원)	118,395.5	144,657.7	56,855.9	50,053.3	37,904.1	439,477.6	25,206.0	15,548.9	14,975.0
행정직1인당 인건비 (천원)	112,012.7	136,512.5	39,656.9	45,403.0	38,754.1	400,509.5	31,426.5	38,967.1	26,933.0

주요비용분석비표(2008)

수익성지표	전체 평균	영 입 반 병 원							특수병원
		평균	병 원				병 원		
			중 합	영 입		100병상이 상~300병 상미만			
				500병 상이상	500병이상 ~1000 병상미만				
조정환자1인당의료원가	(천원) 253.4	262.0	510.5	389.8	290.2	205.3	160.2	289.7	69.9
조정환자1인당인건비	(천원) 117.8	121.1	205.4	172.9	125.3	105.4	84.1	142.6	37.1
조정환자1인당재료비	(천원) 76.1	78.4	172.3	136.9	91.1	56.1	40.7	73.8	14.1
조정환자1인당관리비	(천원) 58.2	60.1	114.0	80.4	72.4	50.0	39.2	55.4	17.3
전문의1인당급여	(천원) 102,867.5	103,705.6	66,671.6	75,374.7	99,939.4	113,420.5	112,960.2	131,129.8	80,551.4
간호사1인당 인건비	(천원) 26,377.7	26,403.7	32,462.3	33,877.6	28,748.8	23,383.8	22,955.0	21,218.0	25,677.7
약사1인당인건비	(천원) 41,581.1	41,721.9	35,765.0	41,880.0	39,702.7	42,036.6	43,951.9	38,381.3	37,971.6
의료기사직1인당급여	(천원) 30,222.2	25,113.0	36,852.4	36,822.1	31,048.3	26,869.6	24,453.5	16,404.4	18,452.4
행정직1인당 인건비	(천원) 39,111.5	35,408.2	39,691.1	49,349.2	39,858.6	33,693.5	33,313.5	41,908.2	22,279.9

주요비용분석비표(2009)

수익성지표	전체평균	인원							특수병원
		평균	병원				병원		
			중합 종합전문요양기관 1000병 ~1000 상이상	500병상 이상 병상미만	500 병상 이상	300병상이 상~500병 상미만		100병상이 상~300병 상미만	
조정환자1인당의료원가 (천원)	263.9	270.6	532.2	412.8	292.7	231.3	170.6	242.8	83.7
조정환자1인당인건비 (천원)	120.9	123.7	219.8	179.2	121.5	108.9	89.0	126.3	46.3
조정환자1인당재료비 (천원)	82.8	85.2	186.5	147.9	96.8	67.2	43.6	75.0	17.4
조정환자1인당관리비 (천원)	62.5	64.1	113.0	85.7	74.5	58.2	41.0	66.8	20.0
전문의1인당급여 (천원)	106,669.1	105,620.9	77,809.6	74,946.4	103,835.8	118,252.4	119,501.8	120,602.8	138,814.5
간호사1인당 인건비 (천원)	31,024.8	31,031.3	38,043.4	36,951.2	30,771.5	28,511.3	29,066.9	26,335.0	30,781.8
약사1인당 인건비 (천원)	42,402.2	42,464.5	42,512.1	41,530.1	39,445.2	39,770.1	49,283.7	38,560.1	40,510.6
의료기사직1인당급여 (천원)	27,198.2	27,296.4	39,787.6	32,730.3	27,007.8	24,617.2	24,622.0	16,820.0	18,951.2
행정직1인당 인건비 (천원)	35,099.0	35,129.5	40,432.2	45,273.8	31,180.2	34,506.6	31,160.2	36,666.7	35,301.9

[부록 2 : 지역별 공공 대 민간병원의 주요경영 분석지표]

재무제표 분석 : 백병상당 대차대조표(2009) - 특별시

(단위 : 천원)

	계정 과목	인 민 병 원						
		평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000병상 이상	500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100병상 이상~300병상 미만	
민간	1.유동자산	4,996,845.6	10,226,479.8	4,427,683.7	4,401,112.8	2,832,215.2	7,587,070.7	7,997,265.9
	1)당좌자산	4,872,553.0	10,362,331.7	4,261,901.8	4,258,939.4	2,729,287.8	7,450,011.5	7,704,042.7
	2)재고자산	152,271.1	209,217.3	165,781.9	142,173.4	102,927.4	137,059.0	293,223.2
	2.고정자산	15,139,879.1	21,940,790.9	9,736,762.8	15,128,771.0	13,547,251.1	20,265,716.8	35,101,997.3
	자산총계	19,072,990.7	32,167,270.8	14,869,518.9	19,529,883.9	16,379,466.3	15,898,030.8	43,099,263.2
	1.유동부채	6,515,364.2	13,430,461.7	6,356,173.8	5,262,974.3	5,095,417.7	9,886,049.8	1,213,390.5
	2.고정부채	6,318,845.6	10,248,017.7	4,382,378.1	9,716,158.3	4,330,620.0	7,053,031.0	10,324,710.6
	부채총계	12,834,387.7	23,678,479.4	10,738,780.2	14,979,132.6	9,426,037.7	16,940,042.4	11,538,101.2
	3.자본(기본재산)	7,320,879.2	8,488,791.4	4,392,790.0	4,704,469.0	7,024,345.3	7,775,020.9	31,561,162.0
	②이익잉여금	-1,218,046.6	-6,961,673.6	-4,513,247.8	-402,476.0	-81,188.6	5,467,985.4	5,665,536.7
공공	1.유동자산	6,401,790.9	12,753,200.3	-	5,136,529.3	1,965,342.7	6,722,846.0	13,663,269.0
	1)당좌자산	6,201,323.0	12,366,660.9	-	4,964,453.8	1,763,932.1	6,599,684.0	13,459,882.0
	2)재고자산	200,467.9	386,539.3	-	172,075.4	201,410.6	123,162.0	203,387.0
	2.고정자산	16,180,352.9	16,235,172.7	-	8,854,103.7	14,927,923.6	13,920,892.0	50,194,849.0
	자산총계	22,582,143.7	28,988,372.9	-	13,990,633.0	16,893,266.2	20,643,738.0	63,858,118.0
	1.유동부채	3,461,045.4	8,853,399.0	-	1,706,388.1	3,937,021.9	770,286.0	6,826,127.5
	2.고정부채	3,861,572.9	17,018,249.5	-	3,376,602.9	1,403,324.6	1,422,846.0	0.0
	부채총계	7,676,183.4	29,053,734.5	-	5,082,990.9	5,340,346.5	2,193,132.0	6,826,127.5
	3.자본(기본재산)	11,448,786.5	3,116,724.4	-	6,656,066.4	-1,092,254.0	18,450,606.0	57,031,990.5
	②이익잉여금	-4,358,191.3	-9,045,030.0	-	-5,790,221.7	-2,676,767.9	1,112,203.5	-2,846,472.5

재무제표 분석 : 백병상당 대차대조표(2009) - 광역시

(단위 : 천원)

	계정 과목	예 비 산						
		평균	상급종합병원		중합병원			병원
			1000병상 이상	5 0 0 병 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병상미 만	100병상 이상~300병상미 만	
민간	1.유동자산	3,387,722.2	4,237,373.3	5,679,963.0	3,822,428.0	2,905,299.2	1,820,740.3	3,960,680.3
	1)당좌자산	3,279,722.3	4,189,465.9	5,544,802.3	3,773,825.3	2,807,043.0	1,710,132.9	3,750,776.1
	2)재고자산	107,236.8	47,907.4	133,273.0	48,602.7	98,256.2	108,932.4	209,903.5
	2.고정자산	9,068,619.3	16,259,900.3	10,341,675.7	5,464,735.4	12,496,013.8	5,977,360.4	11,605,450.1
	자산총계	12,316,553.3	20,497,273.6	16,021,638.7	9,287,163.5	15,401,313.1	7,267,915.6	15,568,893.4
	1.유동부채	3,632,211.3	2,774,896.8	5,627,472.2	3,807,551.5	3,705,079.9	2,534,255.8	2,731,767.0
	2.고정부채	5,015,904.3	11,604,692.7	6,299,930.7	3,101,595.7	8,001,470.0	2,366,689.4	4,273,734.3
	부채총계	8,648,115.6	14,379,589.5	11,927,402.9	6,909,147.2	11,706,549.9	4,900,945.2	7,005,501.3
	3.자본(기본재산)	3,840,347.5	6,057,894.6	4,026,250.3	3,304,485.5	3,399,307.3	2,701,619.7	8,557,287.2
	②이익잉여금	213,606.2	4,774,723.2	-2,797,657.2	255,037.5	525,575.3	182,094.0	3,853,515.2
공공	1.유동자산	5,479,906.1	8,231,391.5	8,853,939.1	4,241,054.8	4,593,971.6	-	489,160.7
	1)당좌자산	5,396,390.1	8,174,408.8	8,732,404.2	4,136,332.1	4,520,837.3	-	450,709.8
	2)재고자산	83,515.9	56,982.6	121,534.9	104,722.7	73,134.3	-	38,450.9
	2.고정자산	10,681,984.9	8,758,054.2	11,147,641.4	11,548,330.8	12,206,844.3	-	4,900,057.7
	자산총계	16,161,890.9	16,989,445.7	20,001,580.5	15,789,385.6	16,800,815.9	-	5,389,218.4
	1.유동부채	2,590,182.9	4,339,476.5	5,274,642.8	1,727,530.2	1,569,744.0	-	392,389.3
	2.고정부채	4,477,530.8	7,274,946.3	9,478,878.2	2,811,596.8	2,574,590.9	-	1,489,566.1
	부채총계	7,067,713.7	11,614,422.8	14,753,521.1	4,539,127.0	4,144,334.9	-	1,881,955.4
	3.자본(기본재산)	7,127,840.7	5,375,022.9	5,248,059.4	7,598,996.0	9,495,918.1	-	3,507,263.0
	②이익잉여금	319,611.7	-1,838,393.8	-4,402,758.5	3,562,124.7	531,002.2	-	3,507,263.0

재무제표 분석 : 백병상당 대차대조표(2009) - 중소도시

(단위 : 천원)

	계정 과목	영 입 반 병 원						
		평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000명상 이상	500명상 이상	300명상 이상~500명상 미만	100명상 이상~300명상 미만		
민간	1.유동자산	3,442,174.7	4,958,330.7	8,207,823.9	2,979,285.7	3,409,513.8	2,272,952.6	1,405,782.0
	1)당좌자산	3,317,424.1	4,871,062.1	8,025,697.1	2,845,678.6	3,266,518.7	2,184,961.4	1,340,205.8
	2)재고자산	120,569.3	87,268.6	182,126.8	129,081.9	131,530.1	87,991.2	65,576.2
	2.고정자산	9,263,184.2	12,633,460.3	10,329,564.8	12,109,844.4	9,382,754.1	6,387,620.9	5,400,990.1
	자산총계	12,721,857.1	17,591,791.0	18,537,388.7	15,148,002.0	12,791,930.5	8,660,573.6	6,806,772.1
	1.유동부채	4,231,898.5	6,116,350.3	5,492,804.9	5,523,666.8	3,510,196.0	3,254,291.3	2,577,365.0
	2.고정부채	3,569,697.0	3,388,968.9	4,570,328.7	4,565,895.3	3,319,543.2	2,802,944.3	381,216.3
	부채총계	7,782,014.6	9,505,319.2	10,063,133.7	10,210,298.1	6,829,739.2	5,884,282.8	2,958,581.2
	3.자본(기본재산)	5,060,979.9	8,086,471.8	8,922,834.5	5,699,909.1	4,939,626.8	3,147,844.5	3,848,190.9
	②이익잉여금	-812,180.0	-2,428,452.7	691,311.1	-2,071,022.3	1,344,415.2	-1,979,356.4	0.0
공공	1.유동자산	4,149,631.4	7,980,619.1	8,726,475.6	5,632,837.6	3,297,232.9	3,229,446.5	1,345,032.4
	1)당좌자산	4,007,855.6	7,928,818.2	8,566,238.6	5,413,111.2	3,145,637.6	3,105,309.2	1,266,988.3
	2)재고자산	141,775.8	51,800.9	160,237.0	219,726.4	151,595.2	124,137.3	78,044.1
	2.고정자산	12,494,934.3	11,506,847.1	17,630,808.2	24,207,008.8	12,970,377.7	8,696,166.7	8,679,278.9
	자산총계	16,630,184.0	19,487,466.2	26,357,283.8	29,839,846.4	16,267,610.6	11,896,850.0	10,024,311.3
	1.유동부채	2,970,687.5	4,315,035.6	5,515,905.1	4,017,579.0	1,728,651.1	2,876,401.3	5,952.7
	2.고정부채	4,982,339.3	4,390,019.2	8,583,628.0	8,658,490.7	4,682,234.2	3,867,772.0	0.0
	부채총계	7,953,026.7	8,705,054.7	14,099,533.1	12,676,069.7	6,410,885.3	6,744,173.3	5,952.7
	3.자본(기본재산)	8,336,042.4	10,782,411.5	12,257,750.7	14,163,742.7	8,761,626.1	5,699,561.3	10,018,358.8
	②이익잉여금	-3,000,901.7	2,453,893.0	-3,781,258.8	-2,017,668.9	-3,707,308.5	-3,375,837.9	896,271.1

재무제표 분석 : 백병상당 대차대조표(2009) - 기타지역

(단위 : 천원)

	계정 과목	인원							병원
		평균	상급종합병원		500명상 이상	종합병원		100명상 이상~300명상미만	
			1000명상 이상	500명상 이상		300명상 이상~500명상미만	100명상 이상~300명상미만		
민간	1.유동자산	1,595,362.5	-	-	-	1,671,296.3	1,576,379.1	-	
	1)당좌자산	1,520,437.4	-	-	-	1,608,378.7	1,498,452.1	-	
	2)재고자산	74,924.9	-	-	-	62,916.6	77,926.9	-	
	2.고정자산	2,887,254.7	-	-	-	2,697,903.7	2,934,592.5	-	
	자산총계	4,482,617.6	-	-	-	4,369,200.0	4,510,972.0	-	
	1.유동부채	1,878,504.6	-	-	-	1,937,393.9	1,863,782.3	-	
	2.고정부채	1,555,544.4	-	-	-	965,345.3	1,703,094.2	-	
	부채총계	3,434,049.1	-	-	-	2,902,739.2	3,566,876.5	-	
	3.자본(기본재산)	93,946.4	-	-	-	1,466,460.8	-249,182.2	-	
	②이익잉여금	1,000,980.6	-	-	-	1,378,449.2	906,613.4	-	
공공	1.유동자산	4,561,378.2	-	-	7,566,940.9	1,555,815.5	-	-	
	1)당좌자산	4,446,803.8	-	-	7,481,885.8	1,411,721.8	-	-	
	2)재고자산	114,574.4	-	-	85,055.1	144,093.7	-	-	
	2.고정자산	14,308,068.5	-	-	18,690,289.8	9,925,847.1	-	-	
	자산총계	18,869,446.7	-	-	26,257,230.7	11,481,662.6	-	-	
	1.유동부채	3,504,981.8	-	-	6,160,971.1	848,992.5	-	-	
	2.고정부채	4,972,660.3	-	-	7,742,660.2	2,202,660.4	-	-	
	부채총계	8,477,642.1	-	-	13,903,631.3	3,051,652.9	-	-	
	3.자본(기본재산)	10,391,804.5	-	-	12,353,599.2	8,430,009.7	-	-	
	②이익잉여금	63,872.0	-	-	828,394.8	-700,650.7	-	-	

재무제표 분석 : 백병상당 손익계산서(2009) - 특별시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일 반 병 원							
		평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000병상 이상	500 병 상 이상 ~ 1000 병상미만	500 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100병상 이상~300병상 미만		
민간	1.임원수익	11,832,239.6	22,893,853.1	13,506,296.0	12,500,639.1	8,165,183.0	7,740,576.3	9,708,892.5	
	2.외래수익	8,583,623.6	14,549,612.8	8,667,312.4	6,776,293.6	5,865,307.3	12,015,653.9	11,282,017.1	
	2.의료비용	19,813,785.8	36,580,969.4	22,957,274.0	14,195,846.0	14,100,864.2	20,570,217.1	19,707,645.2	
	1)인건비	9,398,409.6	13,743,869.3	10,789,587.0	6,871,261.3	7,512,279.8	9,974,406.7	10,393,255.3	
	2)재료비	6,282,543.6	13,572,617.4	7,564,467.1	5,225,565.2	4,053,507.1	4,858,694.5	4,819,708.2	
	3)관리운영비	4,800,611.6	9,264,482.7	4,603,219.9	4,551,855.8	3,534,158.1	5,737,115.7	4,494,681.6	
	3.의료이익(손실)	1,038,963.5	2,464,992.9	635,140.5	1,608,767.0	-370,351.7	2,775,101.4	3,187,746.9	
	4.의료외수익	1,031,817.7	3,312,919.8	726,934.4	753,873.1	1,127,638.2	401,369.6	1,055,091.0	
	5.의료외비용	1,967,252.3	6,034,231.3	2,013,802.5	1,189,720.8	725,064.2	2,455,131.5	3,155,258.2	
	6.경상이익(손실)	89,665.6	-256,318.6	-651,727.6	1,172,919.3	-19,071.9	721,339.5	1,087,579.7	
	7.특별이익	17,682.2	22,147.1	12,344.6	0.0	43,966.4	0.0	0.0	
8.특별손실	16,787.5	16,759.0	6,084.5	0.0	49,784.8	0.0	0.0		
공공	9.세전순이익(손실)	137,334.3	-250,930.6	-300,067.3	1,172,919.3	-185,142.0	518,428.2	1,087,579.7	
	10.법인세비용	34,357.4	0.0	2,353.9	53,178.5	3,206.4	140,334.0	165,253.4	
	11.당기순이익(손실)	72,870.2	-250,930.6	-647,821.4	1,119,740.7	33,572.7	581,005.5	922,326.3	
	1)임원수익	7,081,494.2	20,211,600.0	-	7,003,609.1	4,052,319.8	4,055,014.0	3,347,758.0	
	2.외래수익	6,154,911.2	14,119,204.0	-	7,564,806.9	3,858,974.8	2,670,664.5	627,154.5	
	2.의료비용	16,011,859.0	37,631,831.6	-	16,634,621.0	9,537,115.4	10,435,992.5	10,426,191.5	
	1)인건비	6,339,832.6	16,645,619.3	-	6,445,765.5	4,670,170.7	0.0	5,289,471.0	
	2)재료비	3,727,248.0	11,708,878.1	-	3,654,288.4	2,030,197.6	2,052,326.5	1,106,478.0	
	3)관리운영비	5,379,841.2	9,277,334.2	-	6,534,567.1	2,836,746.9	3,299,232.0	4,030,242.5	
	3.의료이익(손실)	-426,765.0	-410,070.6	-	-1,568,151.1	2,840,729.5	3,597,543.5	-6,437,212.0	

4.의료외수익	2,843,282.7	4,236,942.1 -	1,320,872.1	3,368,242.1	3,197,070.5	6,135,559.0
5.의료외비용	715,918.5	4,101,912.7 -	283,338.4	490,554.8	0.0	226,890.0
6.경상이익(손실)	-180,095.6	-275,041.2 -	-530,617.4	852,833.2	-400,473.0	-528,543.0
7.특별이익	28,430.9	59,054.2 -	48,508.3	0.0	2,791.0	0.0
8.특별손실	1,758.5	354.0 -	0.0	0.0	15,472.5	0.0
9.세전순이익(손실)	-4,953.5	-216,341.1 -	-434,488.8	954,857.2	0.0	0.0
10.법인세비용	0.0	0.0 -	0.0	0.0	0.0	0.0
11.당기순이익(손실)	-153,423.2	-216,341.1 -	-482,109.2	852,833.2	-413,154.5	-528,543.0

재무제표 분석 : 백병상당 손익계산서(2009) - 광역시

(단위 : 천원)

계정과목	평균	인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000병상 이상	500병상 이상~1000 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100병상 이상~300병상 미만		
민간	1)입원수익	7,717,115.5	14,172,972.5	12,859,017.7	8,376,548.6	6,236,197.7	5,402,109.4	6,480,240.8
	2)외래수익	4,757,716.8	8,018,211.6	6,556,427.8	4,286,820.4	3,650,382.0	2,921,722.5	10,051,052.1
	2.의료비용	11,441,886.7	19,963,529.5	18,748,229.0	13,037,767.6	9,400,292.0	6,356,220.5	13,350,711.5
	1)인건비	5,476,560.8	6,342,934.7	7,923,706.0	5,953,300.5	4,200,655.7	4,473,366.2	6,326,424.2
	2)재료비	3,890,044.1	7,727,362.6	7,582,740.5	4,480,591.9	2,791,273.5	2,322,966.6	2,759,005.7
	3)관리운영비	2,681,942.1	5,893,232.2	3,241,782.4	2,603,875.2	2,328,367.0	1,878,988.5	4,426,385.2
	3.의료이익(손실)	779,150.4	2,814,843.2	1,396,421.2	358,699.8	456,605.1	267,514.5	2,437,533.1
	4.의료외수익	421,571.7	1,595,678.4	797,456.7	385,502.3	428,956.2	138,595.2	353,953.9
	5.의료외비용	910,099.5	3,375,832.1	2,037,163.5	617,132.9	765,835.1	319,330.9	1,032,263.5
	6.경상이익(손실)	213,051.1	1,034,689.4	156,714.4	127,069.2	119,726.3	42,654.4	1,060,513.3
	7.특별이익	501.2	0.0	2,444.7	0.0	0.0	325.8	0.0
	8.특별손실	3,004.5	0.0	0.0	2,056.8	3,375.2	6,529.1	1.6
	9.세전순이익(손실)	275,035.2	1,034,689.4	159,159.1	215,251.3	137,386.3	227,990.7	968,391.0
	10.법인세비용	33,879.9	272,955.3	0.0	4,974.5	20,537.2	13,701.9	198,717.5
	11.당기순이익(손실)	263,779.2	761,734.1	159,159.1	120,037.9	95,813.8	66,873.6	1,661,625.8
공공	1)입원수익	8,258,369.6	12,626,193.2	15,633,863.5	6,382,357.9	5,052,224.9	-	3,224,349.1
	2)외래수익	6,714,677.4	6,534,271.8	9,363,612.6	8,150,327.3	5,764,488.2	-	1,271,425.4
	2.의료비용	15,467,658.9	18,287,718.8	25,354,074.2	15,274,751.3	11,619,698.5	-	6,025,272.5
	1)인건비	5,858,740.3	7,665,430.3	9,699,387.2	4,800,130.0	4,720,078.9	-	2,294,543.2
	2)재료비	4,261,467.9	6,866,692.1	9,290,965.5	2,993,172.7	2,174,315.7	-	1,145,519.1
	3)관리운영비	5,472,160.2	3,755,596.3	6,363,721.5	7,481,448.6	5,099,432.7	-	2,585,210.2
	3.의료이익(손실)	-293,247.0	1,206,236.2	139,635.4	-509,104.3	-934,225.0	-	-946,494.2

4.의료외수익	1,161,934.4	1,163,029.7	2,145,213.6	770,141.6	1,204,781.1	-	197,177.2
5.의료외비용	986,208.8	1,327,897.1	3013,184.8	352,278.3	519,096.4	-	19,121.6
6.경상이익(손실)	-117,521.4	1,041,368.8	-728,335.9	-91,241.1	-248,540.3	-	-768,438.6
7.특별이익	10,727.2	54,592.5	9,770.6	0.0	0.0	-	0.0
8.특별손실	1,865.7	0.0	11,194.3	0.0	0.0	-	0.0
9.세전순이익(손실)	18,268.2	1,095,961.3	-729,759.6	-147,826.9	-17,426.2	-	0.0
10.법인세비용	9.3	55.8	0.0	0.0	0.0	-	0.0
11.당기순이익(손실)	-108,669.3	1,095,905.4	-729,759.6	-91,241.1	-248,540.3	-	-768,438.6

재무제표 분석 : 백병상당 손익계산서(2009) - 중소도시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인원	반	병	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000병상 이상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100병상 이상~300병상 미만				
									5	0	0	
민간	1)입원수익	7,588,282.3	17,718,625.6	12,762,343.5	8,741,964.2	7,293,641.5	4,758,489.5	4,216,854.2				
	2)외래수익	4,444,768.1	10,580,905.1	6,500,096.1	5,509,403.7	4,163,364.3	2,926,991.4	1,877,910.6				
	2.의료비용	11,680,122.2	28,409,696.0	17,650,083.3	14,344,225.3	10,553,193.9	7,840,278.1	5,738,562.3				
	1)인건비	5,574,669.6	12,430,233.1	7,543,137.0	6,433,668.3	5,508,079.2	4,097,365.5	2,565,983.2				
	2)재료비	3,807,391.7	11,058,663.8	6,576,500.8	4,699,502.9	3,517,985.1	2,093,566.0	1,785,653.2				
	3)관리운영비	2,661,558.1	4,920,799.2	3,492,540.0	3,211,054.0	2,661,025.5	1,873,483.8	1,386,925.8				
	3.의료이익(손실)	772,087.7	1,508,681.8	1,967,019.6	519,511.5	808,995.7	495,196.5	845,001.3				
	4.의료외수익	408,129.9	1,171,511.9	579,584.3	338,290.0	312,693.6	489,113.2	54,847.6				
	5.의료외비용	765,849.7	2,557,870.8	1,446,010.3	774,509.5	674,284.7	565,253.1	139,028.9				
	6.경상이익(손실)	362,189.3	122,323.0	938,702.2	83,294.2	479,996.0	279,010.8	760,820.0				
	7.특별이익	25,843.9	0.0	5,594.5	35,985.0	32,965.8	21,361.6	0.0				
8.특별손실	2,684.4	0.0	5,145.3	0.0	6,653.4	1,168.3	0.0					
9.세전순이익(손실)	414,588.1	122,323.0	1,097,032.0	130,086.9	500,731.0	351,027.8	556,762.0					
10.법인세비용	28,503.4	0.0	0.0	17,388.3	55,363.8	23,169.3	71,420.1					
11.당기순이익(손실)	394,685.0	122,323.0	1,164,174.7	76,987.3	429,957.7	358,811.6	689,399.8					
공공	1)입원수익	5,928,913.2	14,781,515.9	13,820,213.8	9,904,405.8	4,630,550.6	3,787,742.6	847,706.8				
	2)외래수익	3,716,292.9	7,306,083.2	8,725,162.7	7,440,042.9	2,614,673.7	2,334,078.6	31,657.0				
	2.의료비용	11,328,865.4	21,640,341.0	22,734,801.9	20,039,815.0	8,619,093.2	8,143,198.4	1,894,858.2				
	1)인건비	4,871,489.4	8,653,188.5	8,065,812.6	6,503,919.5	3,812,941.0	4,341,523.6	866,391.6				
	2)재료비	3,107,345.0	7,866,021.9	7,232,763.7	6,118,480.1	2,324,176.7	1,806,954.3	216,299.6				
	3)관리운영비	3,276,375.5	5,121,130.5	7,436,225.6	6,828,066.4	2,481,975.4	1,994,746.8	812,167.0				

3.의료이익(손실)	-1,066,005.0	899,062.4	471,220.8	-1,803,900.5	-712,622.8	-1,450,339.3	-1,015,494.3
4.의료외수익	1,214,183.4	1,634,135.5	2,027,525.3	628,127.8	747,826.9	1,393,130.8	1,099,763.1
5.의료외비용	727,833.9	910,602.5	2,668,946.1	271,726.5	384,600.0	662,124.1	153.9
6.경상이익(손실)	-597,456.7	1,622,595.4	-170,199.9	-1,448,703.3	-349,395.9	-749,376.6	0.0
7.특별이익	105,083.8	23,864.4	13,045.7	34,888.8	5,705.3	195,011.7	0.0
8.특별손실	1,587.8	50,808.7	0.0	0.0	0.0	0.0	0.0
9.세전순이익(손실)	-160,510.9	1,595,651.1	-157,154.2	450,354.5	-343,690.6	-353,507.5	0.0
10.법인세비용	-233,040.7	0.0	-208.7	-1,864,169.0	0.0	0.0	0.0
11.당기순이익(손실)	-448,368.5	1,595,651.1	-156,945.5	434,703.7	-343,690.6	-930,606.4	84,114.8

재무제표 분석 : 백병상당 손익계산서(2009) - 기타지역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일 반 병 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병원
			1000병상 이상	500 병상 이상 ~ 1000 병상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1000병상 이상	1000병상 이상~300병상 미만		
민간	1)입원수익	3,739,705.9	-	-	-	3,439,432.6	3,814,774.2	-	
	2)외래수익	1,835,941.8	-	-	-	1,361,285.3	1,954,605.9	-	
	2.의료비용	5,743,857.4	-	-	-	4,519,185.3	6,050,025.4	-	
	1)인건비	2,754,660.1	-	-	-	2,068,303.7	2,926,249.2	-	
	2)재료비	1,662,397.6	-	-	-	1,529,410.3	1,695,644.4	-	
	3)관리운영비	1,326,826.5	-	-	-	921,471.3	1,428,165.3	-	
	3.의료이익(손실)	39,745.4	-	-	-	281,532.6	-20,701.4	-	
	4.의료외수익	648,211.2	-	-	-	78,961.3	790,523.7	-	
	5.의료외비용	408,990.9	-	-	-	126,884.7	479,517.4	-	
	6.경상이익(손실)	278,965.8	-	-	-	233,609.2	290,304.9	-	
	7.특별이익	0.0	-	-	-	0.0	0.0	-	
	8.특별손실	0.0	-	-	-	0.0	0.0	-	
	9.세전순이익(손실)	198,573.2	-	-	-	233,609.2	189,814.2	-	
	10.법인세비용	35,452.4	-	-	-	-	0.0	-	
11.당기순이익(손실)	243,513.36	-	-	-	233,609.2	245,989.4	-		
공공	1)입원수익	9,482,735.6	-	-	15,337,052.0	3,628,419.2	-	-	
	2)외래수익	5,992,255.8	-	-	9,641,114.8	2,343,396.8	-	-	
	2.의료비용	15,194,764.8	-	-	23,295,888.6	7,093,641.0	-	-	
	1)인건비	4,232,026.2	-	-	4,711,591.2	3,752,461.2	-	-	
	2)재료비	6,324,990.7	-	-	10,956,582.6	1,693,398.8	-	-	
	3)관리운영비	4,637,747.9	-	-	7,627,714.8	1,647,781.1	-	-	
	3.의료이익(손실)	680,059.9	-	-	1,754,556.9	-394,437.1	-	-	

4.의료외수익	1,203,877.4	-	-	1,277,048.3	1,130,706.6	-	-
5.의료외비용	1,468,835.8	-	-	2,257,481.3	680,190.3	-	-
6.경상이익(손실)	415,101.5	-	-	774,123.9	56,079.1	-	-
7.특별이익	654.6	-	-	1,309.3	0.0	-	-
8.특별손실	6,814.1	-	-	13,628.2	0.0	-	-
9.세전순이익(손실)	380,902.5	-	-	761,804.9	0.0	-	-
10.법인세비용	0.0	-	-	0.0	0.0	-	-
11.당기순이익(손실)	408,942.0	-	-	761,804.9	56,079.1	-	-

성장성 분석 - 특별시

	성장성지표	전체평균	일 반 병 원						특수 병원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000 병상 이상	500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 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병 상미만	100병상 이상~300병 상미만		병원
민간	총자본 증가율	4.8	4.8	11.5	4.6	5.1	3.2	0.6	10.7	-
	자기자본 증가율	29.36	29.36	115.2	24.4	36.5	10.0	-1.9	40.6	-
	순이익 증가율	32.0	32.0	-30.2	-89.0	168.6	111.9	-26.0	-15.2	-
	의료수익 증가율	9.2	9.2	13.2	7.2	12.9	10.0	5.6	5.4	-
	임원수익 증가율	4.3	4.3	11.7	4.5	9.9	6.6	-22.6	9.5	-
	외래수익 증가율	17.9	17.9	15.7	10.9	18.3	17.7	44.6	10.7	-
공공	총자본 증가율	6.9	7.0	9.6	-	10.3	-3.9	3.3	16.8	5.6
	자기자본 증가율	-5.29	-6.66	-102.4	-	12.3	-10.1	-	20.4	5.6
	순이익 증가율	-91.3	32.0	80.4	-	-59.2	18.3	-	-738.3	146.0
	의료수익 증가율	13.4	9.9	8.7	-	12.2	4.5	-	7.6	37.3
	임원수익 증가율	7.8	7.8	8.6	-	9.0	0.9	-	9.0	-
	외래수익 증가율	12.9	12.9	9.6	-	17.5	10.3	-	0.6	-

성장성 분석 - 광역시

	성장성지표	전체 평균	일 반 병 원							수 입 비 율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000 병상 이상	500 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 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병 상미만	100병상 이상~300병 상미만		
민간	총자본 증가율 (%)	7.8	7.8	8.3	9.9	5.0	10.8	6.3	7.3	-
	자기자본 증가율 (%)	11.85	11.85	14.2	11.6	-74.8	60.4	28.3	38.9	-
	순이익 증가율 (%)	39.0	39.0	147.0	39.4	74.0	26.3	15.9	27.0	-
	의료수익 증가율 (%)	9.5	9.5	11.1	10.4	4.2	15.0	6.3	26.8	-
	임원수익 증가율 (%)	8.3	8.3	8.5	9.1	4.4	14.5	12.3	-16.9	-
	외래수익 증가율 (%)	16.4	16.4	15.3	12.7	3.6	14.3	26.2	33.7	-
공공	총자본 증가율 (%)	14.5	14.5	31.5	19.1	9.3	11.0	-	1.2	-
	자기자본 증가율 (%)	27.93	27.93	98.6	19.3	12.5	16.6	-	-4.6	-
	순이익 증가율 (%)	-15.8	-15.8	-3.8	45.7	-21.5	-34.5	-	-58.6	-
	의료수익 증가율 (%)	10.3	10.3	13.6	9.5	10.5	12.5	-	-0.3	-
	임원수익 증가율 (%)	10.3	10.3	11.7	9.5	6.0	16.1	-	0.1	-
	외래수익 증가율 (%)	14.2	14.2	17.9	9.5	13.8	18.0	-	5.6	-

성장성 분석 - 중소도시

	성장성지표	전체 평균	일 반 병 원							특수 병원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 병원
				1000 병상 이상	500 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상~500 병상미만	100 병상 이상~300 병상미만			
민간	총자본 증가율 (%)	8.6	8.9	3.3	13.5	6.0	11.6	8.0	10.5	5.5	
	자기자본 증가율 (%)	41.02	28.25	19.60	51.40	10.60	24.70	41.80	17.90	13.60	
	순이익 증가율 (%)	62.7	62.2	-	15.9	72.3	50.7	84.8	12.1	68.5	
	의료수익 증가율 (%)	13.9	14.5	-	10.4	12.8	20.8	12.2	11.9	7.7	
	임원수익 증가율 (%)	15.1	15.7	-	8.9	8.0	34.8	8.7	13.2	5.4	
	외래수익 증가율 (%)	20.4	21.6	-	13.2	22.4	27.9	18.7	13.1	3.0	
공공	총자본 증가율 (%)	13.5	11.5	25.6	14.1	0.1	10.2	14.6	1.8	42.5	
	자기자본 증가율 (%)	5.00	2.75	38.1	54.0	-7.9	8.8	-10.7	1.8	38.7	
	순이익 증가율 (%)	-46.2	-52.8	149.7	16.9	29.2	-81.5	-73.5	-55.5	131.1	
	의료수익 증가율 (%)	13.0	10.2	12.9	11.6	5.3	16.5	7.3	4.1	50.8	
	임원수익 증가율 (%)	9.7	7.0	11.4	9.0	10.8	12.3	3.5	4.4	83.7	
	외래수익 증가율 (%)	16.4	16.8	12.9	17.7	1.2	25.4	15.2	-3.8	4.8	

성장성 분석 - 기타지역

	성장성지표	전체 평균	일 반 병 원						수 탁 병 원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300병 상미만	병원	
				1000 병상 이상	500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 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병 상미만			
민간	총자본 증가율	(%)	5.1	5.3	-	-	7.5	4.8	-	4.2
	자기자본 증가율	(%)	24.90	30.17	-	-	15.30	35.10	-	3.80
	순이익 증가율	(%)	39.6	42.4	-	-	16.6	51.1	-	28.3
	의료수익 증가율	(%)	7.5	5.0	-	-	5.2	4.9	-	17.9
	임원수익 증가율	(%)	0.7	0.7	-	-	3.0	-0.1	-	-
	외래수익 증가율	(%)	-5.5	-	-	-	11.2	17.1	-	-90.0
공공	총자본 증가율	(%)	8.8	4.4	-	-	9.4	-0.6	-	17.7
	자기자본 증가율	(%)	9.56	5.57	-	-	10.3	0.9	-	17.5
	순이익 증가율	(%)	52.7	52.7	-	-	-10.2	115.7	-	-
	의료수익 증가율	(%)	13.4	13.4	-	-	14.4	12.3	-	-
	임원수익 증가율	(%)	14.0	14.0	-	-	15.2	12.8	-	-
	외래수익 증가율	(%)	16.3	16.3	-	-	13.1	19.4	-	-

활동성 분석 - 특별시

	활동성지표	전체 평균	일 반 병 원						수 평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평균
				1000병상 이상	500병상 이상~1000병 상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100병상 이상~300병 상미만		
민간	총자본 회전기간	357.1	301.0	227.8	367.7	390.4	384.5	977.7	-	
	의료 미수금 회전기간	38.9	38.1	39.2	42.7	42.8	29.4	26.5	-	
	재고자산보유일수	9.9	5.7	8.4	7.8	10.4	11.8	25.4	-	
	의료 미수금 회전율	0.4	0.6	0.3	0.8	-0.1	1.1	1.6	-	
공공	총자본 회전기간	714.9	284.3	-	362.1	681.5	1,101.9	-	2,236.7	
	의료 미수금 회전기간	55.2	42.1	-	71.0	39.0	64.7	1.9	81.5	
	재고자산보유일수	18.1	-	-	-	13.9	16.4	-	29.4	
	의료 미수금 회전율	0.0	-	-	-	0.6	-0.2	-	0.3	

활동성 분석 - 광역시

	활동성지표	전체 평균	입원 병 원							수 영 원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000병상이 상	500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병 상미만	100병상 이상~300 병상미만		
민간	총자본 회전기간 (일)	356.0	356.0	328.4	286.5	434.0	386.1	328.1	325.3	-
	의료 미수금 회전기간 (일)	42.0	42.0	27.1	43.4	48.1	42.6	38.0	40.0	-
	재고자산보유일수 (일)	12.6	12.6	1.8	6.0	5.4	14.9	17.1	22.6	-
	의료 미수금 회전율 (회)	0.6	0.6	1.7	0.6	0.2	0.4	0.5	1.9	-
공공	총자본 회전기간 (일)	349.2	349.2	328.4	286.5	434.0	386.1	304.7	325.3	-
	의료 미수금 회전기간 (일)	56.2	56.2	44.1	36.8	72.0	66.8	-	29.2	-
	재고자산보유일수 (일)	18.1	15.9	-	-	-	13.9	16.4	-	29.4
	의료 미수금 회전율 (회)	-0.003	-0.1	-	-	-	0.6	-0.2	-	0.3

활동성 분석 - 중소도시

	활동성지표	전체 평균	일 반 병 원							수 평 원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300병 상미만		병원
				1000병상이상	500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병 상미만				
민간	총자본 회전기간	370.0	368.0	214.6	332.1	391.4	362.3	370.3	380.7	394.1	
	의료 미수금 회전기간	42.7	43.9	42.7	36.9	46.1	43.7	45.6	35.3	29.2	
	재고자산보 유일수	12.4	12.0	2.2	9.0	11.0	11.6	14.9	12.5	16.5	
	의료 미수금 회전율	0.9	1.1	0.5	5.0	0.3	0.7	0.6	1.4	-0.5	
공공	총자본 회전기간	370.0	368.0	214.6	332.1	391.4	362.3	370.3	380.7	394.1	
	의료 미수금 회전기간	49.8	50.4	42.3	42.4	47.2	53.8	51.6	52.7	43.4	
	재고자산보 유일수	22.6	21.4	1.9	7.5	9.8	16.0	23.2	125.7	59.8	
	의료 미수금 회전율	-1.9	-1.5	0.4	0.1	-1.4	-0.7	-1.8	-10.2	-12.0	

활동성 분석 - 기타지역

	활동성지표	전체 평균	일 반 병 원						수원 병원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000병상 이상	500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병 상미만	100병상 이상~300병 상미만		
민간	출자본 회전기간 (일)	292.9	281.8	-	-	-	332.2	269.2	-	348.4
	의료 미수금 회전기간 (일)	46.4	47.6	-	-	-	41.1	49.2	-	40.4
	재고자산보 유율수 (일)	18.1	15.9	-	-	-	13.9	16.4	-	29.4
	의료 미수금 회전율 (회)	-0.003	-0.1	-	-	-	0.6	-0.2	-	0.3
공공	출자본 회전기간 (일)	292.9	281.8	-	-	-	332.2	269.2	-	348.4
	의료 미수금 회전기간 (일)	46.1	48.5	-	-	-	41.5	55.4	-	41.2
	재고자산보 유율수 (일)	44.8	16.3	-	-	-	2.5	30.1	-	101.7
	의료 미수금 회전율 (회)	3.1	0.1	-	-	-	0.7	-0.4	-	9.1

수익성 분석 - 특별시

	수익성지표	전체 평균	일 반 병 원							수 익 원 비 율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비율	
				1000 병상 이상	500 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상~500 병 상미만	100병상 이상~300병 상미만		
민간	총자본 순이익율	(%)	0.6	-0.6	-4.8	6.3	3.7	0.1	2.6	-
	의료수익 순이익율	(%)	0.5	-0.6	-2.9	6.0	0.9	0.4	4.4	-
	총자본 의료이익율	(%)	3.7	8.4	1.1	8.9	-0.5	6.9	10.8	-
	의료수익 의료이익율	(%)	3.3	7.0	2.2	8.5	-2.3	10.0	9.6	-
공공	총자본 순이익율	(%)	-1.4	-0.7	-	-3.3	2.0	-2.0	-0.8	-
	의료수익 순이익율	(%)	-2.7	-0.6	-	-4.9	7.7	-6.0	-13.3	-
	총자본 의료이익율	(%)	-2.2	-1.4	-	-10.6	4.1	17.4	-10.1	-
	의료수익 의료이익율	(%)	-7.3	-1.1	-	-21.1	-17.9	52.6	-	-

수익성 분석 - 광역시

	수익성지표	전체 평균	일 반 병 원						수입원 비율 평균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경신원 비율	
				1000 병상 이상	500 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 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 병 상미만	100병상 이상~300 병 상미만		
민간	총자본 순이익율 (%)	2.1	2.1	3.7	1.1	1.4	2.7	1.3	6.7	-
	의료수익 순이익율 (%)	1.3	1.3	3.3	0.9	0.6	0.1	0.1	9.6	-
	총자본 이익이익율 (%)	5.9	5.9	13.7	9.1	3.5	7.2	3.7	5.6	-
	의료수익 이익이익율 (%)	4.2	4.2	12.4	7.2	2.4	2.8	2.2	10.3	-
공공	총자본 순이익율 (%)	-1.4	-1.4	6.1	-4.2	-0.2	-1.3	-	-14.3	-
	의료수익 순이익율 (%)	-3.0	-3.0	5.6	-3.3	-3.2	-3.9	-	-15.1	-
	총자본 이익이익율 (%)	-2.7	-2.7	7.0	-0.1	-2.5	-5.3	-	-17.6	-
	의료수익 이익이익율 (%)	-7.4	-7.4	6.2	-0.04	-8.4	-14.4	-	-18.6	-

수익성 분석 - 중소도시

	수익성지표	전체 평균	일 반 병 원						수익률 평균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000 병상 이상	500 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상~500 병상미만	100병상 이상~300 병상미만		
민간	총자본 수익률	3.2	3.2	0.7	4.4	0.9	2.3	5.1	10.4	3.1
	의료수익률	2.4	2.6	0.4	2.0	0.9	3.1	3.6	10.0	-0.8
	총자본 수익률	6.3	6.5	8.6	11.0	3.9	7.1	6.0	12.6	2.9
	의료수익률	5.1	5.8	5.0	9.6	3.8	5.9	5.5	12.6	-4.4
공공	총자본 수익률	-3.9	-4.3	8.2	-0.6	1.3	-2.2	-8.5	0.8	8.7
	의료수익률	-4.8	-5.7	7.1	-0.6	1.6	-4.4	-11.6	9.6	22.3
	총자본 수익률	-9.3	-8.8	4.6	-0.4	-4.4	-5.2	-13.9	-10.1	-22.2
	의료수익률	-15.4	-14.0	4.0	0.4	-13.1	-9.3	-20.6	-	-57.2

수익성 분석 - 기타

	수익성지표	전체 평균	일 반 병 원						수익률 비율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000 병상 이상	500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 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병 상미만	100병상 이상~300병 상미만		
민간	총자본 순이익율 (%)	4.6	4.8	-	-	-	5.3	4.7	-	3.4
	의료수의 순이익율 (%)	3.7	3.8	-	-	-	4.9	3.6	-	3.3
	총자본 이익이익율 (%)	-0.5	-1.3	-	-	-	6.4	-3.2	-	3.3
	의료수의 이익이익율 (%)	0.5	0.0	-	-	-	5.9	-1.5	-	3.1
공공	총자본 순이익율 (%)	5.3	1.7	-	-	2.9	0.5	-	-	12.4
	의료수의 순이익율 (%)	1.9	1.9	-	-	3.0	0.8	-	-	-
	총자본 이익이익율 (%)	7.2	1.6	-	-	6.7	-3.4	-	-	18.4
	의료수의 이익이익율 (%)	0.6	0.6	-	-	7.0	-5.9	-	-	-

안전성 분석 - 특별시

	안전성지표	전체 평균	일 반 병 원							수 평 점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000병상이 상	500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 병상미만	100병상 이상~300 병상미만		
민간	기본재산 비율	33.7	33.7	24.0	20.0	25.0	46.6	53.7	68.9	-
	타인자본 의존도	33.7	33.7	76.0	80.0	75.0	53.4	46.3	31.1	-
	유동비율	116.7	116.7	104.1	74.9	90.5	90.4	85.9	643.8	-
	당좌비율	113.2	113.2	106.8	72.3	87.6	87.0	84.1	619.8	-
	고정비율	82.3	82.3	177.8	47.8	-171.5	233.7	140.2	111.3	-
	고정장기 적합률	105.0	105.0	82.8	114.7	104.9	99.2	120.8	79.0	-
공공	기본재산 비율	61.7	57.4	-0.2	-	69.7	29.8	89.4	89.3	99.9
	타인자본 의존도	38.3	42.6	100.2	-	30.3	70.2	10.6	10.7	0.1
	유동비율	292.7	292.7	144.0	-	330.1	48.6	872.8	200.2	-
	당좌비율	281.1	281.1	139.7	-	318.2	31.9	856.8	197.2	-
	고정비율	61.0	57.5	-	-	82.8	-17.4	75.4	88.0	89.6
	고정장기 적합률	78.4	77.0	95.8	-	65.0	101.9	70.0	88.0	89.5

안전성 분석 - 광역시

	안전성지표	전체 평균	일 반 병 원							수 특 병원
			소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000병상이 상	500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병 상미만	100병상 이상~300병 상미만		
민간	기본재산 비율	31.2	31.2	29.8	27.1	27.6	28.6	34.7	44.5	-
	타인자본 의존도	68.8	68.8	70.2	72.9	72.4	71.4	65.3	55.5	-
	유동비율	147.6	147.6	152.7	126.8	115.0	114.3	100.6	464.8	-
	당좌비율	143.9	143.9	151.0	124.3	113.4	111.0	94.8	458.7	-
	고정비율	245.3	245.3	265.8	136.8	29.4	304.0	307.4	542.7	-
	고정장기 적합율	115.3	115.3	91.7	112.1	122.2	112.1	114.7	124.2	-
공공	기본재산 비율	58.0	58.0	32.3	24.7	72.2	75.2	-	65.1	-
	타인자본 의존도	42.0	42.0	67.7	75.3	27.8	24.8	-	34.9	-
	유동비율	315.1	315.1	189.5	178.9	459.3	385.4	-	124.7	-
	당좌비율	309.0	309.0	188.2	176.6	449.6	378.6	-	114.9	-
	고정비율	137.8	137.8	168.4	238.7	102.7	97.8	-	139.7	-
	고정장기 적합율	79.2	79.2	69.2	72.9	81.1	81.3	-	98.1	-

안전성 분석 - 중소도시

	안전성지표	전체 평균	일 반 병 원							특수 병원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000병상 이상	500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 병상미만		100병상 이상~300 병상미만		
민간	기본재산 비율	(%)	41.4	40.2	50.6	34.7	32.9	48.9	37.5	71.6	61.3
	타인자본 의존도	(%)	58.6	59.8	49.4	65.3	67.1	51.1	62.5	28.4	38.7
	유동비율	(%)	139.9	138.1	133.0	173.2	128.4	153.7	124.3	136.1	165.6
	당좌비율	(%)	134.0	132.7	131.7	169.7	122.7	146.8	119.3	126.5	153.8
	고정비율	(%)	136.8	138.0	131.5	471.3	-12.1	133.1	132.0	136.7	118.6
	고정장기 적합율	(%)	115.9	114.9	93.0	103.6	128.4	104.9	116.5	132.5	131.3
공공	기본재산 비율	(%)	47.0	45.5	55.3	41.0	62.6	60.1	31.7	99.9	94.8
	타인자본 의존도	(%)	53.0	54.5	44.7	59.0	37.4	39.9	68.3	0.1	5.2
	유동비율	(%)	185.4	172.0	184.9	152.6	226.2	218.7	140.9	-	598.8
	당좌비율	(%)	177.4	165.0	183.7	149.3	214.3	208.5	135.5	-	559.8
	고정비율	(%)	66.6	66.4	106.7	178.1	182.5	138.6	-18.9	86.6	73.9
	고정장기 적합율	(%)	94.7	95.3	75.8	85.8	94.4	89.2	102.2	86.6	73.7

안전성 분석 - 기타

	안전성지표	전체 평균	일 반 병 원						특수 병원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000병상이상	500병상 이상~1000 병상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500병 상미만		
민간	기본재산 비율 (%)	45.5	31.0	-	-	47.0	53.5	15.8	96.2
	타인자본 의존도 (%)	54.5	69.0	-	-	53.0	46.5	84.2	3.8
	유동비율 (%)	193.4	130.4	-	-	122.8	134.8	130.1	634.9
	당좌비율 (%)	181.8	123.3	-	-	121.4	124.6	123.1	590.8
	고정비율 (%)	141.2	158.5	-	-	151.3	150.9	164.1	80.7
	고정장기 적합율 (%)	138.0	154.9	-	-	93.0	102.1	196.7	79.0
공공	기본재산 비율 (%)	73.4	60.2	-	-	47.0	73.4	-	99.8
	타인자본 의존도 (%)	26.6	39.8	-	-	53.0	26.6	-	0.2
	유동비율 (%)	153.0	153.0	-	-	122.8	183.3	-	-
	당좌비율 (%)	143.9	143.9	-	-	121.4	166.3	-	-
	고정비율 (%)	115.2	134.5	-	-	151.3	117.7	-	76.5
	고정장기 적합율 (%)	87.6	93.2	-	-	93.0	93.4	-	76.5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판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홍보팀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303)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 2011년	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9,000원
	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6,000원
	11-03	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6,000원
	11-04	약제비 자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미아	5,000원
	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야채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7,000원
	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농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7,000원
	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6,000원
	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6,000원
	11-09	인구집단 의료이용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6,000원
	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방안	황나미	7,000원
	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7,000원
	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7,000원
	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5,000원
	11-14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7,000원
	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6,000원
	비발간	해외사회보장제도 정보서비스 제공	강유구	미정
	11-16-1	선진국의 아동사태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6,000원
	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 수준에 관한 연구	고경환	6,000원
	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8,000원
	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7,000원
	11-17-4	2011 보건복지 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10,000원
	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미정
	11-17-6	사회복지재정 추계모형개발	원종욱	8,000원
	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5,000원
	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 정책 개선 방안	이태진	6,000원
	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7,000원
	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6,000원
	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10,000원
	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6,000원
	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7,000원
	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8,000원
	비발간	2011 기초보장평가 및 정책대안 모색	이태진	미정
	비발간	2011 기초보장모니터링 및 현장보고	최현수	미정
	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미정
	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제검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12,000원

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10,000원
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5,000원
11-29	장애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7,000원
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6,000원
11-31	사회복지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 실태 및 운영구조 연구	강혜규	미정
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분석	이삼식	7,000원
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5,000원
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6,000원
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6,000원
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11,000원
11-37-1	출산율 예측모형 개발	이삼식	6,000원
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 (외부)	미정
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 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7,000원
11-37-4	소득계층별 출산 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6,000원
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 (외부)	미정
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7,000원
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6,000원
11-37-8	외국의 이민정책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 (외부)	미정
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9,000원
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모색: OECD 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소정	5,000원
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5,000원
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8,000원
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1)	오영희	6,000원
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7,000원
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8,000원
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판	이삼식	5,000원
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7,000원
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각지대 분석	이소정	8,000원
11-37-19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10,000원
비발간	국제신포자음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사회연구관련 학술대회	이삼식	미정
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홍 (외부)	미정
11-37-21	북한연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이삼식	미정
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방안	(미정) (외부)	미정
11-37-23	저출산고령화대응영세자영업자생활실태연구	박종서	미정
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8,000원
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10,000원
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 지원	김동진	11,000원
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의 정책동향	최은진	10,000원

	11-39-4	건강영향평가 DB구축	김동진	10,000원
	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9,000원
	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8,000원
	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8,000원
	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홍석표	5,000원
	11-42	취약·위험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2차년도)	김승권	11,000원
	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김미숙	13,000원
	11-44-1	한국의 복지실태	남상호	16,000원
	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옥	8,000원
	비발간	한국의 사회복지분석	남상호	미정
	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7,000원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정책방향 모색	박실바아	미정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분석	조재국	미정
	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7,000원
	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6,000원
■ 2010년	10-0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영	5,000원
	10-02	화개난치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	박실바아	5,000원
	10-03	해외의료시장 개척의 투자효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	조재국	7,000원
	10-04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 요인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정기혜	6,000원
	10-05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김혜련	7,000원
	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박노성	7,000원
	10-07	식품위해물질 모니터링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김정선	5,000원
	10-08	간담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신영식	7,000원
	10-09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5,000원
	10-10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 연구	원종욱	5,000원
	10-11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태진	5,000원
	10-12	한국 제3세대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노대명	8,000원
	10-13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김태완	7,000원
	10-1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원
	10-15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대명	7,000원
	10-16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8,000원
	10-17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자본주의 체제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의 조응성 분석	여유진	7,000원
	10-18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8,000원
	10-19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6,000원
	10-2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저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8,000원
	10-21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혜규	8,000원
	10-22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김성희	8,000원
	10-23	민간 복지자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박세경	7,000원
	10-24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5,000원
	10-2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이윤경	7,000원
	10-26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27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메타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손창균	6,000원
	10-28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0	장영식	10,000원
	10-29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도세록	6,000원

10-30-1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	17,000원
10-30-2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이삼식	5,000원
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용찬	5,000원
10-30-4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김나영	6,000원
10-30-5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와 출산율 관계 연구	김은정	5,000원
10-30-6	저출산의 가시경제적 효과분석	남상호	6,000원
10-30-7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 (외부)	6,000원
10-30-8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신윤정	6,000원
10-3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윤석명	7,000원
10-3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식	6,000원
10-30-11	임업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10,000원
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최정수	6,000원
10-3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황나미	6,000원
10-30-14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염지혜	5,000원
10-30-1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	5,000원
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30-17	산노년층의 특성과 정책과제	정경희	6,000원
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경희	10,000원
10-30-19	에비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원
10-30-20	산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신우덕	5,000원
10-30-21	산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김수봉	7,000원
10-31-1	2010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8,000원
10-31-2	2010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9,000원
10-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4차년도): DB의 활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경환	7,000원
10-31-4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자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성은	6,000원
10-31-5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고경환	6,000원
10-31-6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7,000원
10-31-7	건강보험 재정평가	신영석	5,000원
10-32-1-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1권	김동진	8,000원
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2권	김동진	11,000원
10-32-2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서미경	5,000원
10-32-3	건강마을의 건강영향평가	최은진	5,000원
10-33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3년차)	오영호	9,000원
10-34	보건사회 기후변화 모니터링센터 운영 (1년차)	신호성	14,000원
10-35	취약위험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1년차)	김승권	10,000원
10-36	아시아 복지국가 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1년차):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홍석표	8,000원
10-37-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14,000원
10-37-2	2009년 한국복지패널 삼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김미곤	6,000원
10-38-1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Ⅱ)	정영호	11,000원
10-38-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Ⅰ)	정영호	7,000원
10-39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차)	정영철	7,000원
10-40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년차)	이연희	5,000원